KOTRA자료 20-098

2020 국별 진출전략

브라질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3

1. 개요 ····· 3
   가. 시장 전망 ····· 3
   나. 주요 경제지표 ····· 4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5
   가. 미-중 무역전쟁이 브라질에 미치는 영향 ····· 5
   나. 역대 최저 기준금리(5.5%) 도입 ····· 6
   다. 신정부 출범 이후 주요 경제 개혁 조치 이행 상황 ····· 7
   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 8
   마. 브라질 공기업 민영화 프로젝트 ····· 9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 10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10
   가. 정치 환경 ····· 10
   나. 경제 환경 ····· 13
   다. 산업 환경 ····· 14
   라. 정책·규제 환경 ····· 18
2. 시장 분석 ····· 23
   가. 시장 특성 ····· 23
   나. 교역 ····· 26
   다. 투자진출 ····· 31
   라. 프로젝트 ····· 33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 35
   가. 교역 ····· 35
   나. 투자 ····· 35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38

Ⅲ. 진출전략 ····· 41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41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42
3. 한-브라질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48
4. 진출 시 유의사항 ····· 53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 54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57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 59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61

부 록

對브라질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 62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2020년 브라질 경제성장률, 2019년 대비 소폭 상승 전망

○ 2020년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전년(0.8%) 대비 상승(2.5%) 예상

– IMF는 브라질의 2020년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하였으며, EIU Country Report의 경우 2.2% 수준으로 전망

– EIU는 현재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세금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2020~23년 브라질 GDP는 평균 2.3% 성장할 전망

– 브라질은 중남미 전체 국가 2020년 평균 경제성장률인 2.4%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2019~2020 중남미 주요 8개국 예상 경제성장률

(단위 : %)

자료 : IMF(국제통화기금)

○ 호재요인 : 신정부 시장경제 추구, 연금/세금개혁/공기업 민영화 추진

–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정부, 개방경제 및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 경제부 장관에 미국의 시카고학파 출신인 파울루 게지스(Paulo Guedes)를 임명하는 등 경제 개방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

– 복잡한 세금체계를 개혁하고 연금지출을 축소하여 행정 간소화 및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 성장 도모

ㅇ 악재 요인 : 미–중 무역전쟁, 신정부 지지율 하락

– 신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이행 가능성 축소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심화, 주변국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선언으로 인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

나. 주요 경제지표

주 요 지 표	단 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 구	백만 명	198	202	203	205	206	208	210	211
명목 GDP	십억 달러	2,464	2,456	1,800	1,795	2,053	1,868	1,960	2,063
1인당 명목GDP	달러	12,427	12,176	8,846	8,752	9,928	8,968	9,344	9,765
실질성장률	%	1.9	0.5	-3.5	-3.3	1.1	1.1	0.8	2.5
실 업 률	%	4.6	6,5	9.0	12,0	12.7	12.3	11.8	11.5-12
소비자물가상승률	%	5.4	6.3	9	8.7	3.4	3.7	3.6	4.1
재정수지(GDP 대비)	%	-3.4	-4.1	-3	-1.3	-0.4	-0.8	-1.7	-1.6
총수출	백만 달러	241,967	224,974	190,971	185,232	217,739	239,889	129,999 (1-6)	-
(對韓 수출)	〃	4,501	3,830	3,122	2,881	3,077	3,437	1,735 (1-6)	-
총수입	〃		229,127	171,458	137,585	150,749	181,230	101,524 (1-6)	-
(對韓 수입)	〃	9,097	8,525	5,420	5,451	5,239	5,380	2,860 (1-6)	-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19,438	-4,153	19,512	47,646	66,989	58,658	28,475 (1-6)	-
경 상 수 지	〃	-74,218	-104,181	-59,434	-23,530	-38,875	-30,075	-26,475	-31,025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95	2.35	3.34	3.48	3.20	3.85	3,80	3,81
해외 직접투자	억 달러	-84.2	-32.6	-76.8	-59.3	-166	-130	-	-
외국인 직접투자	억 달러	820	638	495	527	675	612	-	-

주 :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 중앙은행, 국가지리통계원(IBGE), Global Trade Atlas, UNCTAD Stat.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 개혁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역대 최하의 기준금리(5.5%) 정책, 공기업 민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반사이익에 대한 효과는 관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가. 미-중 무역전쟁이 브라질에 미치는 영향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반사이익

○ 중국은 브라질의 가장 큰 교역 대상국으로 2019년 8월 누적 기준 브라질은 중국에 415억불을 수출했고, 237억불 상당 수입

- 중국은 브라질의 주요 수출 상품인 석유, 대두, 철광석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 석유의 경우 브라질 전체 석유 수출의 56.5%를 중국이 차지
-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미국산 1차 산품 수입을 중단할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반사이익 효과 기대
- 2018년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이 2017년 대비 35% 상승하였으며,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약 7.4% 감소
  * 브라질의 대(對)중국 수출은 주로 농수산물 품목이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30%가량을 수입
- 그러나 향후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면 브라질의 대(對)중국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

○ 미-중 무역전쟁 이후 브라질과 미국의 대(對)중국 1차 산품 수출량에 변화 예상

- 대두의 경우, 2019년에 중국 정부가 미국산 대두에 대한 제재를 약화하면서 수출액 최고를 기록한 2018년과 비교 브라질의 수출이 약 22.63% 하락
- 브라질산 면화의 경우, 2018년~2019년도 기록적인 수확을 기록하면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
- 소고기의 경우, 중국의 소고기 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브라질의 수출이 약 15% 증가하였으며, 높은 세금에도 미국산 수출 또한 5% 상승

브라질의 대(對)중국 주요품목 수출 변동

(단위 : 백만/%)

연도	브라질 -> 중국		변동
	2019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대두	16,142	21,941	-26.43%
석유	11,311	9,686	16.77%
면화	311	31	894.75%
소고기	1.263	1.056	19.66%

자료 : 브라질 경제부(Ministerio da Economia)

나. 역대 최저 기준금리(5.5%) 도입

2019년 브라질 기준금리(Selic) 2차례 하향 조정

○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2019년에만 2번(1차-6.0%, 2차-5.5%) 하향 조정돼 2019년 9월 기준 브라질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기록

- 브라질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 하향 조절
- 브라질 중앙은행 (BCB)에 따르면 2019년 말의 기준금리는 5%로 더 하락 할 것으로 예상하며, 소비자 물가상승률 또한 하락 할 것으로 전망

* 브라질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최근 안정세로 접어들어 브라질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

브라질 기준금리 조정 내역

(단위 : %)

연도수	2016.1	2016.2	2017.1	2017.2	2018.1	2018.2	2019.1	2019.2	2019.2
Selic	14.25	14.25	13.75	9.25	6.75	6.50	6.50	6.00	5.50

자료 : 브라질 중앙 은행 (BCB)

기준금리 하락이 브라질 경제에 미칠 전망

○ 브라질의 은행권 의견에 따르면 기준금리 하향 조정으로 인한 은행 대출이 약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해 브라질 시장의 해외자본 투자가 감소하여 미국 달러화 대비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하락

* 금리 하락으로 인하여 해외 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성 대비 이자율이 낮아진 브라질 대신 금리가 높은 국가 혹은 투자 안전성이 보장되는 선진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

- 또한, 메르코수르 국가인 아르헨티나의 국가 재정 상태 악화로 인해 같은 경제 블록인 브라질에 대한 투자 불신도도 올라감

다. 신정부 출범 이후 주요 경제 개혁 조치 이행 상황

연금개혁 상원 표결 진행 중

○ 브라질 경제부에 따르면, 2018년 브라질은 전체 GDP의 4%에 해당하는 2,690억 헤알(약 81조 원)을 연금으로 지출

– 이는 2017년 연금지출 대비 7% 더 많은 금액으로, 법을 개정하여 연금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브라질 경제 정상화에 중요한 화두로 자리매김

– 브라질 정부는 연금개혁이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약 8,650억 헤알(약 260조 원)가량의 재정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19년 1월부터 자신이 공약으로 내놓은 연금개혁(Reforma da Providencia)을 강력하게 추진

– 연금개혁의 골자는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높이고 최소 납부기간을 늘려 정부의 연금 지출을 점차 줄이는 것

– 현행법상 남녀 구분 없이 15년 이상 연금을 납부하면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에 연금을 수령 자격이 주어짐

– 연금개혁 이후 최소 연금납부 기간의 경우 남자는 20년, 여자는 15년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수령 가능 연령은 남자 65세, 여자 62세로 변경될 예정

– 2019년 9월 기준, 브라질 국회 상원 표결을 앞둔 상황으로 세계 주요 기관은 통과 확률을 80% 이상으로 예측

브라질 연금개혁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수령 가능 연령		최소 납부 기간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남성	65세	65세	15년	20년
여성	60세	62세	15년	15년

참고 : 위 표에 기재된 정보는 브라질의 일반 직종에 해당하며, 군인, 교사 등 특수직의 경우 수령 가능 연령 및 최소 납부 기간이 각각 상이할 수 있음

세금 개혁

○ 현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코스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브라질의 복잡한 세금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추진 중

– 세금 개혁의 주요 골자는 현재 실행 중인 복잡하고 다양한 항목의 세금을 일부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것

* 한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의 세제는 연방, 주, 시별로 상이해 기업이 브라질 전역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려면 3,000개의 세무규정과 55,000개의 세무 조항을 알아야 한다고 함

– 현재 여러 법 개정안들이 상하원에서 비교 논의 중이며, Paulo Guedes(파울루 게지스) 경제부 장관은 2개(Cofins, PIS)의 세금 통합을 우선적 추진 중
– 기존에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세목을 부가가치세(Imposto sobre Valores Agregados-IVA)로 통합을 추진 중

파울루 게지스 Paulo Guedes 경제부 장관 추진 주요 개혁안

세금	제안	개혁 이전	개혁 이후
Cofins – 사회금융보장기여세(연방세)	통합	약 3 ~ 7.5%	(부가가치세)11%
PIS – 사회통합프로그램(연방세)	통합	약 0 ~ 1.65%	
IPI – 산업제품세(연방세)	삭제	약 0 ~ 30%	0%

자료 : 국세청 (Receita Federal)

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rade Agreement) 협상 진행 중

○ 한국 정부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 중
– 양측은 2017년 3월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2018년 5월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
*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 정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공동체이며, 베네수엘라는 2005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했으나, 2016년 자격 정지됨

○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시장 개방도가 낮아서 TA 체결 시 타국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브라질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국의 대(對)메르코수르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철광석, 곡실류 등 1차 산품
* 한-메르코수르 교역 규모(억불) : ('11) 208 → ('12) 193 → ('13) 183 → ('14) 157 → ('15) 118 → ('16) 99 → ('17) 111 → ('18) 102

한-메르코수르 TA 추진 경과

번호	날짜	내용
1	2004년 11월	공동연구 개시 합의
2	2017년 3월	협상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아르헨티나)
3	2018년 5월	무역협정 협상 개시 공식선언(서울)
4	2018년 9월 11~15일	제1차 협상 개최(몬테비데오)
5	2019년 4월 2~6일	제2차 협상 개최(서울)
6	2019년 7월 8~11일	3차 협상 개최(몬테비데오)
7	2019년 10월 1~4일	제4차 협상 개최(부산)

마. 브라질 공기업 민영화 프로젝트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공공부문 효율화 움직임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해 다수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 중

– 이에 브라질 정부는 2019년 8월 민영화 계획에 포함된 17개 기업을 새롭게 발표

– 브라질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서 R$ 2조(원화 579조 원)를 확보하길 기대, 확보된 자금으로 교육과 인프라에 투자할 것을 발표

브라질 민영화 대상 공기업

순번	기업명	분야	주요 업무 및 활동
1	Emgea	금융	채권 관련 업무
2	ABGF	금융	펀드 관리 및 보증
3	Serpro	IT 정보 통신업	공기업 IT회사로 민간 기업에도 서비스 제공
4	Dataprev	IT 기술	공공 기관에 IT 솔루션 제공
5	Casa da Moeda	화폐 제조	화폐 제조 및 유통
6	Ceagesp	유통 및 창고	Sao Paulo 주에서 농업물 관리 및 유통
7	Ceasaminas	유통 및 창고	Minas Gerais 주에서 농업물 관리 및 유통
8	CBTU	교통	브라질 5개의 도시에서 대중교통 운행
9	Trensurb	교통	Porto Alegre시 대중교통 운행
10	Codesa	항구 및 교통	Espirto Santo주의 항구 관리 및 운행
11	EBC	통신	브라질 통신 관리
12	Ceitec	기술 발전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지원
13	Telebras	통신 및 인공위성	통신망 구축과 인공위성 관리
14	Correios	통신 및 우편	합법적으로 우정郵政 사업을 독점
15	Eletrobras	전기 생산 및 공급	라틴 아메리카 최대 전기 생산 및 공급
16	Lotex	복권	복권 발행 및 유통
17	Codesp	항구 및 교통	Sao Paulo 주의 항구 관리 및 운행

자료 : 브라질 경제부 (Ministerio da Economia)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브라질은 2019년 1월부로 친(親)시장 정책을 펼치는 보우소나루(Bolsonaro)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으며,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15년 → △3.5%, '16년 → △3.3%)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세('17년 → 1.1%, '18년 → 1.1%)로 진입함. 브라질의 거대한 내수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다수의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투자 진출해 있으며, 브라질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들은 현재 추진 중인 세법개정, 공기업 민영화 프로젝트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가. 정치 환경

브라질 정치체제

○ 브라질의 국회(Congresso Nacional do Brasil)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원, 하원 포함하여 총 594개의 의석이 있음.

– **(하원)** 하원은 브라질의 각 주를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되며 각 주(州)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원을 선출, 총 513개의 의석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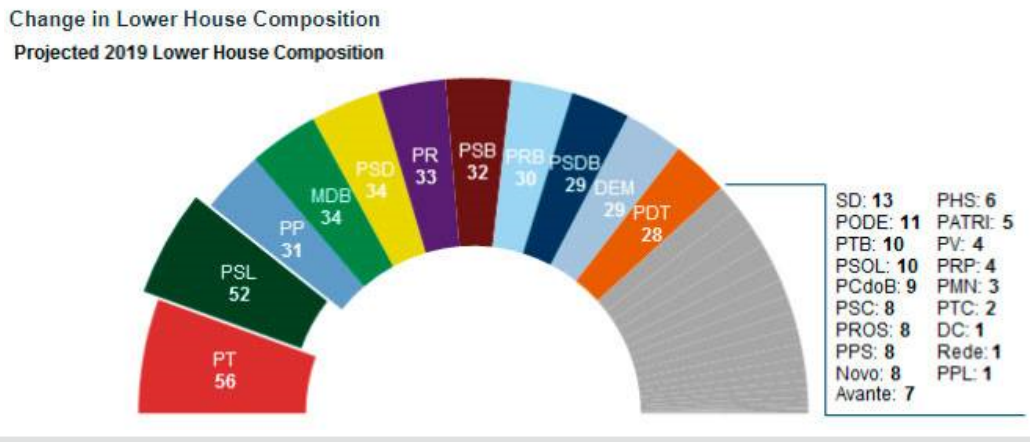
– **(상원)** 수도 브라질리아를 포함하여 총 27개의 주에서 각 3명씩 상원의원을 선출, 총 81명의 의석이 존재

○ 2019년 기준 브라질의 선거법원(TSE)에는 총 33개의 정당이 등록돼 활동 중이며 현재 집권당은 '사회자유당(PSL)'

– 현재 집권당인 사회자유당(PSL)은 하원 52석, 상원 4석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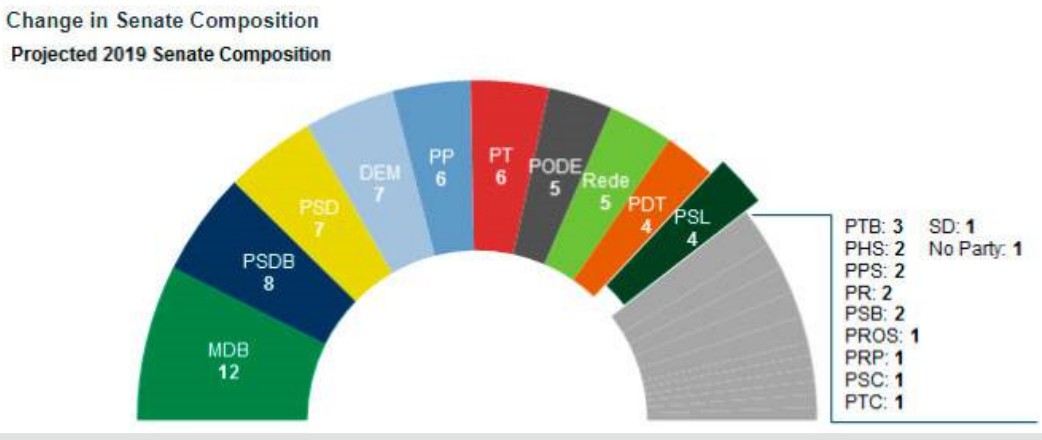
* 2019년 선거 이후 전체 513개 하원 의석 가운데 1석 이상을 보유하는 정당은 기존 25개에서 30개로 늘어남

브라질 연방 하원 의석 분포



자료 : Exame(브라질 경제 일간지)

브라질 연방 상원 의석 분포



자료 : Exame(브라질 경제 일간지)

집권당 주요 공약

○ 현 정권은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최대 현안인 연금개혁을 올해 안에 완수하여 2020년 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세움

– 이를 위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의 신봉자인 파울루 게지스(Paulo Guedes)를 경제부 장관에 임명

* 파울루 게지스(Paulo Guesdes) :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을 대표하는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기업 민영화 및 연금 및 조세 개혁 등을 강력하게 주장

–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공공지출을 억제하고 공기업 및 국가 소유 인프라의 민영화, 정치인 및 공무원 특권 축소, 조세개혁 등을 공약

2020년 브라질 전국 시장 선거

○ 2020년은 브라질의 모든 도시에서 시장 선거가 있어 각 시장 자리를 놓고 주요 정치계 인사들의 팽팽한 경쟁이 예상

– 특히, 상파울루시의 경우, 시장에 당선된 뒤 2년 후에 시장을 그만두고 상파울루 주지사 선거 후보로 나가 당선되는 경우가 근 10년 넘게 일어남

* 현 상파울루시의 시장 Bruno Covas (PSDB)의 경우도 Joao Doria (PSDB) 의 주지사 당선으로 인해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승격

상파울루시 주요 시장 후보

사진					
대표	Bruno Covas	Joice Hasselmann	Mario Franca	Jose Eduardo Cardozo	Andrea Matarazzo
정당	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사회 자유당 (PSL)	브라질 사회당 (PSB)	노동당 (PT)	사회민주당 (PSD)
직책 및 평가	- 현 상파울루 시장 - 지지율 10%	- 현 집권당 출신 하원 의원 - 2018년 선거 당시 여성 후보 중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의원	- 전 상파울루 주지사 - Joao Doria 현 주지사에게 2018년 선거 패배	- 지우마 전 대통령 변호인 - 노동당에서는 다른 좌파 정당과 합쳐 후보를 내보내지 않을 수도 있음	- 장관 및 외교관 출신

리우 데 자네이루 시 주요 시장 후보

사진					
대표	Marcelo Crivella	Helio Negao	Alessandro Molon	Marcelo Freixo	Martha Rocha
정당	공화당 (Republicanos)	사회 자유당 (PSL)	브라질 사회당 (PSB)	사회 자유당 (PSOL)	사회민주당 (PSD)
평가	- 현 리우 시장 - 올해 퇴출 위기에서 살아남아 재선을 위해 정치 세력을 키우는 중	- 현 집권당 출신 하원 의원 -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시장 후보로 당내에서 다른 후보와 경쟁 중	- 현 하원 의원 - PSB가 PSOL당의 후보를 지지하게 될 경우 후보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	- 좌파 정당들 사이에서 대표로 거론 되는 후보 - 노동당과 브라질 사회 자유당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정치적 입지와 지지율이 낮은 관계로 다른 정당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	- 현 리우데자네이루 주의원 - 여성 최초로 리우 민간 경찰을 이끌었으며, 여러 좌파 정당들 사이에서 부시장으로 추대하려 했으나, 직접 선거 참여 선언

보우소나루 대통령 지지율 하락

○ 집권 이후 기대에 못 미치는 경제 성장,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에 대한 대응 미흡 등을 이유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

– 8월 여론조사업체 MDA가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41%, 부정적 53.7%, 무응답 5.3%

– 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29.4%, 보통 31.1%, 부정적 38.5%

– 이와 같은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실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분석

대통령 지지율 및 국정 수행 여론 평가

	긍정적		부정적		보통/무응답	
	2019.2	2019.8	2019.2	2019.8	2019.2	2019.8
대통령 지지율	57.5%	41%	28.2%	53.7%	14.3%	5.3%
국정 수행 평가	38.9%	29.4%	19%	39.5%	29%	29%

자료 : MDA

나. 경제 환경

(경제 성장) 브라질 경제는 반짝 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둔화되면서 보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브라질 경제부는 2019년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 1.6%, 0.8%로 총 세 차례 하향 조정

– 2019년 1분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은 0.4%를 기록하여 주요 기관이 우려하던 기술적 침체는 벗어난 것으로 확인

* 기술적 침체 : 이전 분기 대비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을 뜻함

– 브라질 기준금리는 2019년 9월 기준 5.5%로 1996년 기준금리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금리) 2019년 투자와 소비 증가를 위한 기준금리(SELIC) 인하

○ 2019년 하반기 COPOM 의 결정으로 9월에만 두 번의 금리 인하(1차 6.5% ⇒ 6.0% 2차 6.0% ⇒ 5.5%)가 있었음

– 5.5%의 기준금리는 브라질 역사상 최저 이자율이며, 최근 브라질의 안정적인 물가에 따른 브라질 정부의 정책

– 브라질 정부는 금리 인하를 통한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함

(환율) 해외투자 축소로 환율 상승세

○ 금리인하 등으로 인하여 브라질의 해외투자가 축소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대거 미국, 스위스 같은 선진국, 혹은 금리가 높은 나라로 대거 이탈

– 2019년 예상 마감 환율은 달러당 R$3.93에서 R$3.94로 상향 조정

(생산경기) 서비스업, 제조, 가공업 전반적으로 회복될 가능성 보이며 산업 다양화가 일어나고 있음

○ 브라질의 제조 가공업은 2019년 마이너스 성장(예상치 -0.9%)을 기록하고 있으나, 2020년도에는 다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

– 브라질의 생산경기지수는 2014년도에 최고치를 달성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 다시 성장하기를 기대

(교역동향)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 기록, 2020년 경기회복 등으로 인한 증가 기대

○ 생산 및 소비 위축으로 2019년 상반기 무역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경기회복,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인해 2020년 교역 증가 기대

– 2019년 1월~7월 수출은 1,098억불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5% 하락했으며, 수입은 837억불을 기록, 전년 대비 0.04% 하락

* 유럽과의 FTA 협정이 마무리 후 교역량 증가 기대

(외국인 투자) 금리 인하,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하락

○ 금리 인하로 인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 축소, 투자자들은 미국, 독일, 스위스와 같은 재정적으로 안전한 국가 혹은 고금리 국가로 이동함

– 아르헨티나의 국가 재정 악화로 인해 메르코수르 국가들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불신도가 높아짐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의 브라질 인프라/에너지 시장 투자를 저지할 뜻을 보였으나 해외투자 축소 추세로 보았을 때 중국 투자를 제한할 가능성은 낮음

다. 산업 환경

자동차 산업

○ 브라질의 자동차 생산량은 연간 약 310만 대로 세계 10위에 해당하며, 자국 산업 활동의 22%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

– 브라질 경제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브라질에는 총 31개의 완성차 기업이 67개의 공장을 짓고 생산 중이며, 590개의 부품 제조업체와 5,592개의 자동차 판매점이 존재

– 현대자동차는 2012년부터 상파울루주 'Piracicaba(삐라씨까바)'시에 공장을 가동 유통과 판매는 브라질 기업 CAOA(까오아)를 통해서 운영

○ 2019년 브라질의 자동차 산업은 2017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와 판매 증가

– 자동차산업협회(ANFAVEA)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1월에서 7월 신차 판매량은 155만대로 전년 대비 12.1% 증가

– 2018년 상반기 기준 138만 대를 판매, 상승하는 등 자동차 산업 호조가 지속

브라질 자동차 시장 판매·수출·생산 현황

(단위 : 천대)

연도	내수 시장(상반기)		수출(상반기)		생산(상반기)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승용차	1,380	1,550	429	264	1,680	1,740
트럭	39	56	7	7	58	66
농업용 자동차	25	24	9	6	34	31

자료 : ANFAVEA

○ 현지 생산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Rota 2030이 2018년 11월 상원 통과 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

– Rota 2030은 국산부품 의무사용, 제조공정 현지화, 연구개발 투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공업세(IPI)를 감면해주는 정책

* 기존에 실행하던 Inovar-Auto 정책은 WTO의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인센티브로 판정받아 2017년에 폐지

– Rota 2030과 Inovar-Auto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산부품 사용기준 미준수 업체에 부과하는 추가 공업세(30%p)가 폐지된 것

– 동 프로그램은 실행 기간이 5년인 Inovar-Auto와 달리 15년간 실행될 예정이며, 세 단계로 나누어 실행될 예정

* 1차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 예정

– 동 프로그램은 자동차 부품 밸류 체인 조정, R&D 및 엔지니어링(연결성, 선진 제조 포함), 에너지 효율 및 모터리제이션 신기술, 자동차 안전, 프리미엄 자동차 생산 또는 소량 자동차 생산, 경쟁력 있는 통합을 위한 비용구조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

– 기존 브라질 정부는 수입 차량에 대해 수입 관세를 35% 부과하며 공업세(IPI)도 30%까지 부과

○ 2013년 현지 생산을 시작한 현대자동차의 경우 2018년 판매 점유율이 8%를 기록

– 현대자동차의 피라시카바(Piracicaba) 공장은 총생산량이 연간 18만 대로, 2017년도에는 약 17만 9천 대의 자동차를 생산

가전제품

○ 브라질의 가전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4년 기준 세계 3위였으나, 2017년 5위로 하락했고, 2022년도까지 세계 5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017년 가전제품 판매는 전년 대비 2.8% 성장한 총 9억 6,400만 대

– 브라질의 가전제품 시장은 미국계 Whirlpool, 유럽계 Electrolux, 멕시코계 Mabe 3사가 70%를 차지

– 특히, Whirlpoool사의 Brastemp와 Electrolux는 브라질 백색가전 '톱 2 브랜드'

○ 브라질의 가전제품 시장은 경제 위기 및 기준금리와 근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 브라질 경제 성장이 더딜 경우, 가전제품 시장 또한 낮은 성장률을 보이며, 장기 할부를 선호하는 브라질 소비 심리상 기준금리(SELIC)가 높을 경우 가전제품 판매 또한 낮아짐

○ 브라질의 가전제품 공장은 주로 브라질 북부 마나우스시의 자유무역지대인 ZFM(Zona Franca de Manaus)에 있음

–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마나우스에 공장을 설립, 브라질과 인근국에 판매할 제품을 생산 중

– ZFM에는 Consul, Eletrolux와 같은 백색 가전제품 공장부터 P&G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브라질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장을 설립

화장품 산업

○ Euromonitor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브라질 개인 위생용품·향수·화장품 시장 매출은 321억불로, GDP 대비 화장품 시장규모로 세계 1위

– 브라질 화장품 시장 매출은 전 세계 4위 규모(6.9%)로, 대부분 제품류 매출이 세계 상위권 차지

* 2위 : 데오도란트, 향수, 남성 미용제품, 선크림/3위 : 구강용 제품, 아동용 제품, 헤어 제품/4위 : 목욕용 제품/5위 : 메이크업 제품, 제모제/8위 : 스킨케어 제품

– 브라질 화장품 시장은 2017년~2022년 6년간 약 56%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브라질의 화장품 시장은 경제침체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9년 상반기에 매출액은 1.5% 성장하였으나 같은 시기 판매량은 10.9% 하락

– 2018년도 화장품 업체의 매출액은 약 2% 성장을 하였으며, 약 2,700여 개의 화장품 업체가 영업 중이며 이 중 1,600여 개 업체가 상파울루를 비롯한 남동부 지역에 위치

– 브라질 화장품 시장에는 국내자본으로 설립된 Natura, Boticario 등 대기업과 수많은 중소기업이 활동 중

– Unilevar, Avon, P&G, L'Oreal, Johnson&Johnson 등 유명 다국적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브라질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Natura는 브라질 최대 화장품 기업으로 시장점유율 11.7% 보유, 2위는 10.8%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Unilever
  * 1위 : Natura, 2위 : Unilever, 3위 : Boticario, 4위 : L'Oreal, 5위 : Colgate Palmolive, 6위 : Avon, 7위 : P&G, 8위 : Johnson&Johnson, 9위 : Coty, 10위 : Beiersdorf
  * 2019년 Avon과 Natura는 합병을 하기로 결정, 이번 합병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화장품 기업체가 탄생하며, 연 매출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2017년 브라질 화장품(HS Code 3304 기준) 수입액은 1억 7,814만불

- 브라질 정부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브라질 내 수입화장품 가격이 생산지 가격의 3배 이상인 경우가 많음
- 다수의 글로벌 화장품기업들은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브라질 내에서 생산 중이며, 소비자들도 국내 유통망이 아닌 해외 쇼핑을 통해 수입품을 구입
- 대(對)브라질 화장품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2017년 4,649만불 상당의 제품을 수출, 전체 브라질 수입제품 시장의 26%를 점유
  * 2위는 프랑스(4,053만불), 3위 중국(1,427만불) 순
- 한국은 19위 수입대상국으로 93만불의 제품이 수입

○ 유통 구조

- 브라질의 화장품 유통채널별 매출 비중은 전문매장(37.8%)과 하이퍼마켓(31.6%), 방문판매(26.1%)가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온라인(2.3%), 전통시장(1.0%), 미용실(0.2%)이 잇고 있음
- 전문매장과 온라인·모바일 매장이 전통적 유통채널인 방문판매나 전통시장 등을 통한 매출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화장품 전문점의 타깃 소비층은 소득 중상위층 소비자이고, 대형마트나 약국을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은 주로 그 외의 소비계층임

○ 최근 동향

- 색조 화장품에만 집중하던 소비자가 피부 관리, 기초화장품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
- 기초화장품 코너인 'Dermocosmeticos' 판매대에 진열되는 브랜드와 제품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
- 최근 브라질에는 방부제나 기타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크루얼티프리(cruelty free)한 제품 또는 유기농·식물성 화장품 소비를 일컫는 '슬로우 뷰티(Slow Beauty)'를 추구하는 소비자 증가
- 남성용 미용 제품 및 서비스 성장, 채식주의, 자연보호, 의식 있는 소비(Conscious Consumption) 등의 트렌드를 반영한 화장품·개인 위생용품 유행
- 브라질 여성의 경우, 영국 여성의 11배 이상을 미용에 관련된 소비를 하고 있음
- 초고속 인터넷 대중화, 스마트폰 사용 증가, 배송기간 단축 등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크게 증가
  * 세포라(Sephora) 등 오프라인 화장품 전문점도 온라인 판매에 집중

의료기기 및 의약품

- 인구고령화에 따른 병원 진료, 의료시술 횟수 확대에 따라 진단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의료산업협회(ABIMED)에 따르면 2030년까지 브라질 고령인구가 2011년 10%에서 20%로 증가 전망
  - 고혈압, 관절염, 녹내장 등 노인성 질환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국산 휴대용 진단 키트(Point of Care)의 브라질 수출에 성공하는 등 한국 제품이 브라질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2016년 한국의 지카 바이러스 진단 키트 공급업체인 젠바디(GenBody Inc.)는 브라질 국영 제약사 바이아파르마(Bahiafarma)를 통해 수출에 성공
  - 국내 생산이 부족한 백신(인체용 및 수의용), 프로바이오틱스 등도 유망
- 고령화와 식습관으로 인한 브라질의 임플란트 시장이 매해 성장 중
  - 브라질의 임플란트 시장은 세계 2위 수준이며(1위 미국), 브라질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들이 28살 이전에 5개의 치아를 잃는 것으로 조사됨
  - ABIMO(브라질 치과, 병원 및 실험실 의료 장비 산업 의학 협회)에 의하면 2019년 총 80만 건의 임플란트 시술이 일어나며, 8억 헤알 상당의 시장 규모를 자랑
    * 한국 기업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2018년도 브라질에 법인을 설립하여 시장을 넓히고 있음

석유 및 화학 산업

- 브라질의 화학공업연합(Abiquim)에 따르면 석유화학 산업은 브라질 전체 산업의 약 10%를 차지
  -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 1,570억 불로 세계 6위에 달하며, 브라질의 화학제품은 상당 규모 수입에 의존 중
    * 2016년 수입 규모는 342억 불임
  - 페루와 아르헨티나 등의 인근국도 화학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으므로 브라질에 화학 산업에 투자 시 인근국 사업 추진에도 용이
  - 그러나 '브라질 코스트'로 알려진 높은 세금 및 원료조달, 전력, 물류비용으로 인해 석유화학 산업 발달에 걸림돌로 작용

라. 정책·규제 환경

Rota 2030 발효

- Rota2030은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WTO에 의해 불법 인센티브로 판정되어 2017년 말 종료된 Inovar Auto를 대체하는 정책

Inovar-Auto 프로그램

- 2012년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분야 기술 혁신과 부품 현지 생산 강화 프로그램인 'Inovar-Auto'를 발표
- 이 프로그램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자국산 부품 사용 비중 65% 이상을 준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업세 감세 혜택 30%p를 부여
- 로컬 콘텐츠 의무 비중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나 수입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기존 공업세 외에 30%p의 세금을 추가
- 브라질 현지 투자 추진업체, 자동차 분야 기술혁신, 고에너지 효율을 보유한 자동차 생산업체에도 감세 혜택을 부여
- **'Inovar-Auto'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기업에 편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라는 판정을 받아 2017년 12월에 종료**

○ Rota 2030은 보다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동시에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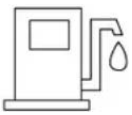
– 이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완성차 업체들은 투자금의 10.2% 상당의 금액을 법인소득세(IRPJ)와 기업이윤세(CSLL)에서 공제

– 자동차 업체들은 브라질 차량 라벨링 프로그램(Programa Brasileiro de Etiquetagem Veicular)을 준수해야 하며, 2022년까지 에너지 효율성을 현재 기준보다 11% 향상 의무 있음

– 또한, 생산되는 모든 차량의 장치는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안전 기능이 있는 부품으로 점진 교체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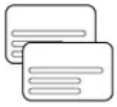
○ 기존에 시행하던 Inovar Auto와 Rota 2030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아래와 같음

Inovar Auto - Rota 2030 유사점

핵심 포인트	특징
감세 혜택	- 두 정책 모두 참가 업체에 세금 감면 혜택 부여 - Rota 2030 정책의 세금 감면 혜택은 Inovar Auto 정책 때와 비슷한 수준인 연간 15억 헤알
에너지 효율성 	- 두 정책 모두 자동차 에너지 효율성 제고 요구 - Rota 2030는 Inovar-Auto보다 11% 더 높은 에너지 효율성 요구(연비 제고, 오염물질 배출 감소)
R&D	- 두 정책 모두 기술 개발, R&D 투자 기업 우대 - Rota 2030의 경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업은 연간 최소 50억 헤알을 R&D에 투자해야 함 - Rota 2030는 자동차 부품업체도 R&D 투자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자료 : 정보포털사이트 Globo

Inovar Auto - Rota 2030 차이점

핵심 포인트	특징
적용 기간	- Inovar Auto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실시 - Rota 2030은 발효 시점부터 15년간 지속될 예정
적용 대상	- 자동차 생산업체와 수입업체 모두가 Rota 2030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차량 안전의 기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준수하는 경우는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짐
라벨 부착 	- Rota 2030는 모든 자동차에 에너지 효율성 및 안전 장비가 설치돼 있음을 입증하는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
안전장치	- Rota 2030는 자동차에 더 많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Inovar-Auto에는 없었던 '운전 보조장치'의 설치를 2027년까지 의무화 할 예정
슈퍼공업세(IPI)	- Inovar-Auto 정책과 달리 Rota 2030는 수입자동차에 대해 슈퍼 공업세(IPI) 30%p를 부과하지 않음
전기차	- 전기차의 공업세(IPI)는 25% → 7~20% 사이로 축소될 예정 - 전기/에탄올을 연료로 사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차량 무게 및 에너지 효율성에 따라 세금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료 : 정보포털사이트 Globo

태양광 에너지 법안 추진

○ 브라질 정부는 태양광발전계획(PISF-Programa de Incentivo a Fonte Solar Fotovoltaica)을 추진 중이며 국회에서 여러 관련 법안을 제정 중

–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일조량이 가장 좋은 나라로 브라질의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 생산량은 일 년에 약 1,500~2,350 KWH

– 목표는 10년 안에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7%를 태양광으로 생산,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수력발전소의 생산 하락을 대체할 전망

* 현재 태양광 발전은 약 2.3GW로 전체 생산량의 약 1.4%

– PISF는 Aneel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경매를 통해 태양광 에너지를 판매할 계획

– 브라질은 설치된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통하여 1GW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현재 약 8만 2,600여 개의 소형 발전기를 통하여 약 870MW 의 전기를 생산

○ 브라질태양광에너지협회(Absolar)에 의하면 2018년도 태양광 에너지(PV) 용량은 20,000MW에 달하였고, 13억 달러의 민간 자본이 태양광 분야에 투자

– 브라질 태양광 시장은 중국, 이탈리아, 미국 등의 국가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중이며 중국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21%

* 중국기업 CGN은 Piaui와 Bahia 주의 태양광 프로젝트에 추가 투자를 계획 중

○ 국가전기에너지기관(Aneel)의 482/12 규정에 따라 기업이 아닌 개인도 가정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 가능

– 이 규정에 따르면 자기 소유 가정에 전선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모든 사람은 신청을 통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 가능

* 자신의 집에서 사용되지 않은 전기는 Credit을 통해 다음 전기세 차감 될 수 있으며, Credit의 사용 가능 유효기간은 약 60개월

– 또한, 생산된 전기에 대해서는 세금 ICMS, PIS, Cofins 발생하지 않음

* ICMS의 경우 아마조나스주, 파라나주, 산타 카타리나주는 발생

인프라부 창설, 자국 인프라 개발 추진

○ 브라질은 자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2019년 1월 1일에 인프라부(Ministerio da Infraestrutura)를 재창설

– 인프라부는 1990년도에 창설돼 자국 내 광산, 에너지 등을 관리했으나 1992년에 없어짐

– 2019년 새로 창설된 인프라부의 역할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주요 선거 전략중 하나인 국가 인프라 구축

* 새롭게 창설된 인프라부는 교통부와 통신부를 합병하여 창설

브라질 인프라부 프로필

소속	장관	관련 법률	창설일	전임
브라질 정부	Tarcisio Gomes de Freitas	Lei 13.844/19 Decreto 9.676/19	2019년 1월 1일	교통부와 통신부

자료 : 인프라부

브라질의 IoT(Internet of Things) 산업 발전 전략

ㅇ 브라질 정부는 IoT 국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법 개설

- 이번 정책을 통해 브라질 정부는 IoT 분야의 76개의 계획을 실행할 것을 발표
- McKinsey&Company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IoT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진행할 경우 2025년까지 2,000억불의 경제 효과를 볼 전망
- 브라질의 IoT 정책은 인프라 구축, 산업, 농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중 농업에서 가장 큰 경제 효과를 볼 것을 기대
- ABINC(브라질사물인터넷협회)는 IoT 제품에 사용되는 프로세서를 생산하기 위해 Softline 회사와 투자 계약을 체결

ㅇ 브라질의 IoT 기술을 이미 여러 도시와 기업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을 통하여 더 많은 분야로 사용 범위를 넓히고자 함

- 브라질의 도시 쿠리치바(Curitiba)와 포르탈레자(Fortaleza)의 경우 IoT를 적극 사용하여 빅데이터 구축, 자연재해, 기후변화, 교통상황 등에 접목할 예정
- 농업의 경우 IoT 기술을 이용, 기후변화와 재배현황 등을 실시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4,900만 톤 이상의 수확 확대를 기대

2 시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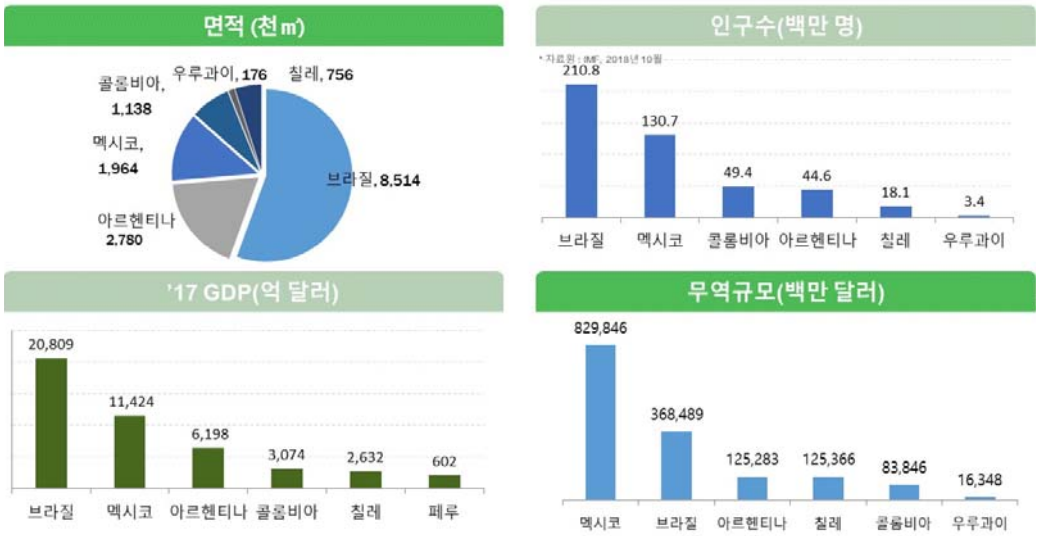
브라질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국토를 지니고 있으며, 중남미 최대 규모의 GDP를 보유한 국가이고, 철광석, 석유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대두, 닭고기 등 1차 산품을 토대로 경제 발전을 이룩해 옴. 또한, 인구 약 2억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중남미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기업에게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됨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중남미 경제의 맏형

○ 브라질은 국가면적(8,514천㎢), GDP(약 2.08조불), 인구(약 2억 명) 면에서 중남미 1위를 기록하는 국가로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을 보유

중남미 주요 국가와 브라질 비교



자료 : EIU, World Trade Atlas

○ 또한, 브라질은 주요 원자재 생산 및 수출국이며, 애견, 자동차, 화장품 등의 시장도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세계적 규모의 시장을 보유

세계적 규모의 브라질 시장

시장	애견(2위), 트럭(2위), 화장품(3위), 자동차(4위), 게임(4위 *user 기준), 휴대폰(5위), PC(5위), 광고(6위)
생산	유기농 제품(2위), 철광석(2위), 항공기(3위), 과일(3위), 음료수(3위),코코아(4위), 가솔린(5위), 고무(5위), 망간(5위)
수출	커피(1위), 에탄올(1위), 닭고기(1위), 쇠고기(1위), 사탕수수(1위), 오렌지(1위), 대두(2위), 돈육(4위)

자료 : 상파울루무역관 조사 자료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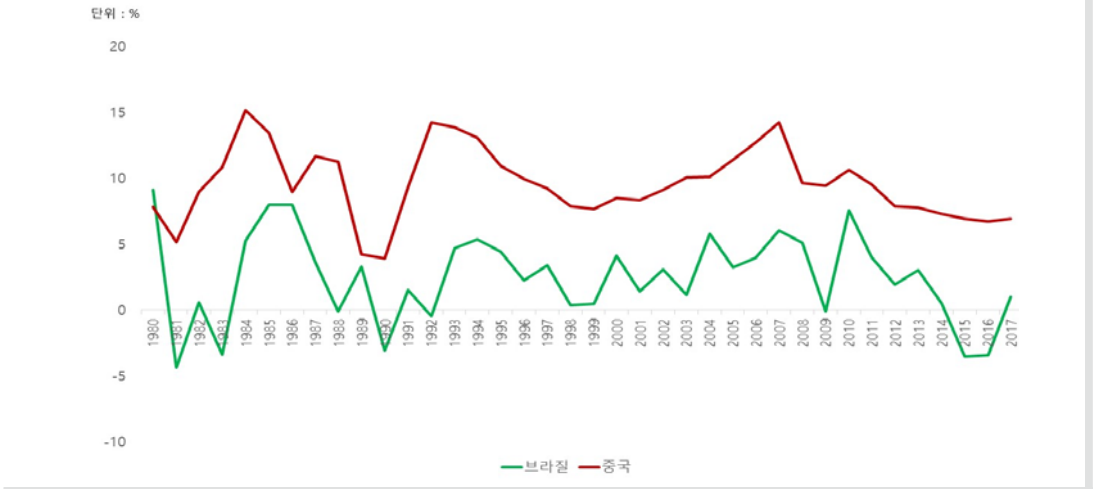
○ 브라질은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2019년 기준 원유, 철광석, 육류, 대두 등 1차 상품의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50.2%를 차지

– 브라질 경제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난 6년간 국제 철광석 가격과 함께 등락을 반복

– 또한, 대표적인 원자재 수요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해 중국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유한 국가

국제 철광석 가격과 브라질 경제성장률 비교

중국과 브라질 경제 성장 추이 비교



자료 : 상파울루무역관 조사 자료

소비성향이 강한 국민

○ 브라질 국민은 특유의 낙천적인 문화를 보유하고 있고,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해 소비성향이 강함

- Euromonitor에 따르면 브라질 소비지출이 전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저축률은 약 10%
- 다른 BRICs 국가에 비해 높은 소비지출로 브라질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소비에 관대
- 1980~1990년대까지 브라질이 겪은 극심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브라질 국민들이 현금보다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이유

주요 신흥국과 브라질 소비 및 저축 성향 비교

자료 : Euromonitor, 국제무역연구원

(참고) 2019년 브라질 소득별 계층 구분

구분	월소득 기준(BRL)	인구(천 명)	비중(%)
A계층	25,554.33	5,225	2.5
B1계층	11,279.14	9,196	4.4
B2계층	5,651.64	34,485	16.5
C1계층	3,085.48	44,935	21.5
C2계층	1,748.59	56,012	26.8
D-E계층	719.81	59,147	28.3

자료 : ABEP(브라질조사연구기업협회)
환율 : USD1=BRL4.10, 2019년 10월 8일 기준

나. 교역

브라질 수출입 동향

○ 2018년 브라질은 국내총생산 GDP 대비 11.55%의 수입을 하였고, 12.57% 수출
- 2018년 브라질 무역 수지는 약 580억불 규모의 무역 흑자 기록
- 2018년 브라질 수출은 전년(2017) 대비 10.2%, 수입은 전년 대비 20.2% 증가

연도별 수출, 수입 및 무역 수지

(단위 : US$ 백만,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1월-7월)
수출	217,739 (17.5)	239,889(10.2)	109,898 (-3.5)
수입	150,749 (9.6)	181,230 (20.2)	83,766 (-0.04)
무역 수지	66,990	58,659	26,132

자료 : 브라질 기획재정부(Ministerio de Economia)

○ 2019년 브라질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독일, 한국
- 중국과 미국이 브라질 수입시장의 약 35%를 차지, 한국의 브라질 수입시장 참여도는 매해 줄어드는 추세

브라질의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 US$ 백만)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월-7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국	23,357	16.98	27,321	18.12	34,730	19.16	17,973	19.94
미국	23,805	17.30	24,846	16.48	28,967	15.98	13,785	16.87
아르헨티나	9,084	6.60	9,435	6.26	11,051	6.10	5,305	6.28
독일	9,131	6.64	9,227	6.12	10,557	5.83	4,953	6.24
한국	5,451	3.96	5,239	3.48	5,380	2.97	2,425	3.56

자료 : Global Trade Atlas

브라질의 최근 수입 동향

○ 브라질의 수입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최근 2년간(2017, 2018) 연평균 약 14.9%의 속도로 다시 성장

– 2016년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주춤하여 -19.8%를 기록, 2017년에는 다시 9.6%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8년도에는 20.2%의 상승세를 보임

○ 2015년 브라질 헤알화(BRL)의 환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US$1당 BRL4.05를 기록,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입을 회복

– 높은 환율로 인한 수입시장의 축소, 하지만 경제 회복으로 인한 수입이 다시 성장

브라질 헤알화(BRL)의 연간 평균 환율 변화

(단위 : BRL/US$)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환율	2.14	1.77	2.30	1.78	1.84	1.79	2.03	2.38	3.19	4.05	3.28	3.83	4.05

자료 : 브라질 중앙 은행(Banco Central do Brasil)

브라질 주요 수입품목 목록

○ 브라질은 제조업 기반이 약하므로 제조업 관련품목의 수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음

– 2018년 전년 대비 광물 및 석유 제품의 수입 비중이 14.3%에서 17.4%로 늘었으며, 선박의 경우 전년 대비 5,390.7% 대폭 증가

– 2019년 상반기 브라질의 수입시장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철광석 및 석유 제품과 컴퓨터와 전자 제품의 수입이 강세

브라질의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2017년			2018년		
	수입액	증가율	비중	수입액	증가율	비중
철광석 및 석유 제품	21,551	42.3%	14.3%	26,233	21.7%	17.4%
컴퓨터, 부품 및 전자 제품	20,725	22.3%	13.7%	21,757	5.0%	14.4%
기계, 장비, 도구 및 기구	17,404	-17.6%	11.5%	19,096	9.7%	12.6%
자동차, 철도 이외의 부품들	11,235	12.9%	7.4%	14,026	24.8%	9.3%
각종 유기 화학 제품	8,436	1.3%	5.6%	10,593	25.6%	7.0%
선박	179	-80.3%	0.1%	9,869	5390.7%	6.5%
각종 비료	7,327	22.1%	4.9%	8,618	17.6%	5.7%
플라스틱 제품	6,533	10.4%	4.3%	7,336	12.3%	4.8%

자료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브라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위치

○ 한국은 브라질 시장에 주로 전자 제품, 자동차 등과 같은 제품을 수출 중

브라질의 상반기 한국 수입품목

(단위 : US$ 백만/%)

품목	2019년	2018년	점유율/19	점유율/18	증감률
전자 회로 및 반도체	829	1,217	25.33	31.99	-31.86
자동차 부품과 트랙터	296	408	9.06	10.75	-27.40
공산품	241	279	7.38	7.35	-13.61
수신기 및 구성 요소	215	243	6.59	6.40	-11.45
자동차 모터 및 부품	145	103	4.45	2.71	41.12
에틸렌, 프로필렌 및 스티렌 폴리머	98	98	3.01	2.60	-0.35
의약품	91	94	2.81	2.47	-2.28
철 혹은 강철 제품	90	84	2.77	2.23	6.92
측정 및 점검 기기 등	60	56	1.84	1.50	5.74
기계 부품	56	18	1.72	0.49	202.80
전체	3,274	3,804	2.80	3.14	-13.94

자료 : 브라질 경제부 (Ministerio de Economia)

브라질 수입시장에서 경쟁국들의 위치

○ 브라질 수입시장에서 중국, 미국, 일본 등이 한국과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의 경쟁 순위가 자주 변동됨

브라질의 상반기 중국 수입품목

(단위 : US$ 백만/%)

품목	2019년	2018년	점유율/19	점유율/18	증감률
공산품	3,856	3,682	16.25	15.16	4.71
수신기 및 구성 요소	2,585	2,498	10.89	10.29	3.49
석유 탐사 플랫폼, 준설선 등	2,085	3,686	8.79	15.18	-43.44
헤테로고리 화합물	766	699	3.23	2.88	9.57
발전기 및 부품	744	519	3.14	2.14	43.36
전자 회로 및 반도체	616	563	2.60	2.32	9.44
자동차 부품 및 트랙터	423	441	1.78	1.82	-3.94
여러 종류의 천	417	372	1.76	1.53	12.09
데이터 자동화 기계의 부품	394	481	1.66	1.98	-18.10
철 혹은 강철 제품	389	380	1.64	1.57	2.44
전체	23,735	24,284	20.27	20.03	-2.26

자료 : 브라질 경제부 (Ministerio de Economia)

브라질의 상반기 미국 수입품목

(단위 : US$ 백만/%)

품목	2019년	2018년	점유율/19	점유율/18	증감률
디젤과 같은 연료유	3,242	3,317	16.16	17.73	-2.27
공산품	2,175	2,383	10.85	12.74	-8.72
기본 생필품	1,000	962	4.99	5.15	3.87
가솔린	974	609	4.86	3.25	60.06
의약품	782	661	3.90	3.53	18.33
석유	665	326	3.32	1.75	103.39
토공, 드릴링 기계 및 장비	631	45	3.15	0.24	1,300.36
나프타	572	224	2.85	1.20	154.43
농약 및 씨앗	557	403	2.78	2.15	38.23
거름	426	375	2.12	2.00	13.64
전체	20,061	18,712	17.13	15.44	7.21

자료 : 브라질 경제부 (Ministerio de Economia)

브라질의 상반기 일본 수입품목

(단위 : US$ 백만/%)

품목	2019년	2018년	점유율/19	점유율/18	증감률
공산품	447	491	15.61	16.46	-8.82
자동차 부품과 트랙터	352	491	12.27	16.46	-28.28
석유 탐사 플랫폼, 준설선 등	218	0	7.63	0.00	0.00
자동차	149	185	5.20	6.21	-19.43
헤테로고리 화합물	136	104	4.75	3.51	30.07
측정 및 점검 기기 등	112	141	3.93	4.75	-20.52
베어링 및 기어, 부품	96	106	3.37	3.58	-9.49
자동차 모터 및 부품	91	104	3.20	3.51	-12.31
전자 회로 및 반도체	58	79	2.05	2.66	-25.69
타이어	58	50	2.05	1.71	15.61
전체	2,870	2,983	2.45	2.46	-3.80

자료 : 브라질 경제부 (Ministerio de Economia)

수입규제와 진입장벽

- 브라질의 수입 규제는 브라질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입 제품에 대해 덤핑 규제를 하고 있음
  -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38개국 80개 품목에 대한 177건의 수입규제 조치가 행해졌으며, 13건을 수사 중
  - 브라질 무역위원회 (CAMEX)에서는 철강제품, 의류, 보온병, 자물쇠, 타포린, 타이어, 주사기, 볼펜 등을 반덤핑 관세를 적용

수입 규제 관리 표				
번호	한국 HS Code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 개시일
1	5401.10.1000, 5402.10.0000, 5402.31.0000, 5402.32.0000, 5402.41.0000, 5402.51.0000, 5402.61.0000	나일론 6사 (Nylon)	반덤핑(규제종료)	2000-01-12
2	3904.10	염화비닐수지 (PVC: Polyvinyl chloride resins)	반덤핑(규제중)	2007-09-21
3	4002.19	부타디엔 고무 (SBR)	반덤핑(규제종료)	2010-06-01
4	4002.59	NBR합성고무	반덤핑(조사종료)	2010-09-30
5	7210.30, 7210.49, 7210.61, 7210.70	도금강판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반덤핑(조사종료)	2011-04-18
6	3907.40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Polycarbonate resin)	반덤핑(조사종료)	2011-12-21
7	7219.32/33/34/ 35,7220.20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flat-rolled stainless steel)	반덤핑(규제중)	2012-04-13
8	7225.19,7226.19	압연실리콘철강 (flat-rolled product silicon steel)	반덤핑(규제중)	2012-04-19
9	7208.51, 7208.52	평판압연제품 중 후판 (Heavy Plate Steel)	반덤핑(규제중)	2012-05-03
10	5402.31, 5402.45	나일론사 (Nylon synthetic filament yarn)	반덤핑(규제중)	2012-07-09
11	4011.10	승용차용 타이어 (Tire)	반덤핑(규제중)	2012-07-20
12	3907.30	액상 에폭시 수지 (liquid epoxy resin)	반덤핑(조사종료)	2013-01-03
13	3902.10, 3902.30	폴리프로필렌 레진 (PP resin)	반덤핑(규제중)	2013-03-19
14	4011.20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 (Pneumatic tires for trucks and buses)	반덤핑(규제중)	2013-06-10
15	8505.19	페라이트 자석 Ferrite segment (arc) magnet	반덤핑(규제중)	2014-06-16
16	3909.30	MDI 폴리머 (Polymeric MDI)	반덤핑(조사종료)	2014-06-18
17	4009.11	탄성고무관 (Elastomeric Rubber Tube)	반덤핑(조사종료)	2014-07-06
18	3921.90	PVC 코팅 직물 (PVC coated fabric)	반덤핑(규제중)	2015-03-28
19	4002.59	니트릴 고무 (Borracha Nitrilica: NBR)	반덤핑(규제중)	2017-06-26

자료 : 수입규제통합센터, 통산개발산업부 (MDIC)

○ 브라질은 1990년 시장 개방을 선언한 뒤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중이나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보임

– 브라질의 관세율은 상품에 따라 0%~35%이며, 관세율은 2007년부터 점차 상승하여 2011년도에는 10.61%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17년 평균 수입 관세는 7.6%로 집계

다. 투자진출

최근 투자진출 동향

○ 2017년 기준 브라질은 세계 6위 FDI 유치국으로 브라질에 투자진출하는 외국기업은 높은 수입관세 및 각종 비관세장벽을 피해 브라질의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함이 목적

○ 2018년 브라질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전년도보다 12%가량 하락

– 2017년도 대(對)브라질 FDI는 약 680억불에 달했으나, 2018년도에는 590억불에 그침

– 브라질 정부는 연금 개혁, 세금 개혁, 비교적 안정된 물가 및 고용시장 등으로 인해 2019년도 외국인 투자 상승 기대

○ 2019년 상반기 브라질 정부의 기준금리 하향 조절과 경제 회복 분위기로 브라질 상파울루 종합주가지수(IBOVESPA) 사상 최대인 10만 포인트를 돌파

–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해외 무역 전쟁의 여파로 해외 투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10만 포인트에서 성장이 정체되고 브라질의 R$이 미국 U$ 대비 약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18년 브라질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전년도보다 12%가량 하락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브라질의 주요 투자국은 유럽 연합 국가와 동북아시아 국가

– 2003년에서 2019년 2분기까지 브라질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으로 미국은 810억불, 중국은 790억불 투자

브라질 주요 5개 투자국

(단위 : US$ 백만)

국가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투자액	8,100	7,900	3,500	3,000	2,100

자료 : CAMEX

○ 2019년 2분기 동안에만 5개국(프랑스, 일본, 중국, 미국, 이탈리아)의 22개 기업이 브라질에 최대 179억 달러를 투자유치

2019년 2분기 대(對)브라질 투자 주요국

(단위 : US$ 백만)

국가명	프랑스	일본	중국	미국	이탈리아
투자액	860	200	21.3	13.1	420

자료 : CAMEX

투자진출 진입장벽

○ 브라질 시장 진출 시 기업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라고 부름

– (조세제도) 약 80개 이상의 조세 규정과 복잡한 과세방식으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탈세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관료주의) 지나친 관료주의적 행정으로 은행계좌 개설, 법인 설립을 비롯하여 각종 업무처리 지연

– (잦은 파업) 세관, 은행, 경찰 등 주요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잦은 파업으로 일정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물류 부족) 철도망이 발달되지 않아 도로운송이 전체 물류의 70%에 해당하며, 운송 인프라 부족으로 높은 물류비용 발생

– (보호무역)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수입규제 정책을 실시하는 품목이 많으며,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조치의 위험 항상 존재

– (영주비자 취득) 영주 비자를 발급받아야 현지 경영이 가능한데, 60만 헤알 이상을 투자하면 별도의 의무조건 없이 1개의 영주 비자를 받을 수 있음*

* 2015년 10월 개정된 투자법에 따른 내용이며, 2년 내 고용 10명이 가능한 경우 50만 헤알 투자 시 또는 기초·응용 분야, 과학기술 R&D 분야일 경우 15만 헤알 투자 시 1개의 영주비자 획득 가능

– (현지 채용 의무) 브라질 노동법상 외국기업이 현지 직원 고용 시, 전체 임금, 또는 직원 수의 2/3 이상을 브라질인으로 고용이 필수

– (치안 불안) 상파울루, 리우 등 대도시 치안이 불안하여 주재원들이 강도 또는 납치를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현지 경영 및 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

– (불규칙한 경기 사이클) 브라질의 경기지수가 단기적이고 불규칙한 사이클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장기 투자계획 수립 애로

– (인증요구) 식품을 비롯하여 위생 및 건강과 관련된 제품은 예외 없이 ANVISA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취득기간이 길고 절차 및 서류 구비가 까다로워 기업들이 브라질 현지 투자를 망설이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

라. 프로젝트

브라질 프로젝트 시장 특징

○ 2019년 브라질의 건설 및 플랜트 시장 규모는 약 2,717억불 수준으로 중남미 최대 건설시장

– 2015년 브라질 주요 인프라 관련 대기업 및 정치인들이 비리에 대거 연루된 'Lava Jato'* 사건으로 인해 현재 많은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태

* 브라질의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주요 인사들이 브라질 대형 건설 기업 공사 수주를 주는 조건으로 수년 동안 5,0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정치권에 사용한 사건

– 경기 침체, 비리 사건 등으로 인한 인프라 투자가 축소되자 브라질 정부는 PPI*정책 개설 등을 통해 민간 자금 투자를 유치하는 중

* PPI(Investment Partnerships Program) : 정부가 운영하는 투자 협력 프로그램으로 PPI에 프로젝트가 포함되면 양허 및 민자 유치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돼 사업 추진속도가 빨라짐

– 2015년~2016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에서 벗어난 브라질의 건설시장은 2019년을 기점으로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브라질 건설시장 성장 전망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규모	10억불	259.9	271.7	286.5	303.1
성장률	전년 대비, %	-2.5	0.5	1.2	1.5
GDP 대비 비율	전년 대비, %	3.8	3.7	3.7	3.6

자료 : IBGE, Fitch Solutions

○ 2019년 1월 출범한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는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프라부(Ministerio da Infraestrutura)'를 신설한다는 계획

– 지난 정부에 이미 공사가 시작된 인프라 프로젝트 중 완공되지 못한 80여 건은 이번 정부가 이어받게 될 전망

– 대부분 정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 브라질 정부는 민간 투자 확대 기회 모색 중

* 2018년 기준 70% 이상의 브라질 인프라 투자가 다국적 기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2018년 기준 브라질의 '사회개발은행(BNDES)'이 BRL 278억을 투자해 브라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기타 민간 은행들은 브릿지론,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간접 참여 중이며,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

주요 성공 사례

기초 정보	◎ 기업명 : A 사
	◎ 수주 프로젝트명 : 상파울루 지하철 도어 공급 프로젝트 ◎ 프로젝트 발주처 : S사 ◎ 프로젝트 세부내용 - 위치 : 상파울루시 - 진행상황 : 계약 체결 완료 - 전체 프로젝트 금액 : USD 9,000만 - 개요 : Metro Sao Paulo(상파울루 지하철공사)는 상파울루 시내의 1~3호선 44개 역사의 승차장에 스크린 도어(Passenger Screen Door)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한국기업 A 사와 B 사, 브라질 전동차량 제작 업체 C 사는 브라질 건설업체 D 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프랑스, 스위스, 중국의 경쟁 업체들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
세부 내용	◎ 수주 경험의 성공 요인(인터뷰) 1) 입찰 참여조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서 진입장벽의 정도가 당사에 적합하였음을 확인 2) 현지 업체와의 입찰준비 작업에서 상당 기간에 짜임새 있게 준비하고, 예상 리스크 등을 미리 분석하고 준비해 온 게 입찰 이후에 여러 잡음과 민원 발생 등에 대해서 잘 대처한 것으로 판단됨 3) 10년 넘게 해외 입찰에 대해 꾸준히 준비하고 데이터화해서 대비하여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최종 수주하게 된 것으로 분석 4) 한국에서 경험했던 여러 상황의 기술적인 문제점 해결능력과 공사 수행능력 등 잘 다져진 실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았음 5) 기진출한 한국의 유수 기업이 브라질에서 좋은 평가와 명성을 쌓아온 한국과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최종 입찰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 ◎ 진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비자 문제, 언어소통 문제, 과도한 세금부과 문제, 그리고 노무 관계 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고며, 이 모든 어려움은 결국 브라질 해당 시장에 대한 정보 부재가 아닐까 생각함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가. 교역

한-브라질 양국 간 교역 동향

○ 2019년 8월 누계 기준 한국은 브라질의 5위 수입 교역국이며, 11위 수출 교역국

– 2019년 8월 누계 한국과 브라질의 교역은 53억 9,376만불 기록

– 2019년 8월 누계 대(對)한국 브라질 수출액은 21억 2,267만불(전체 수출액의 1.48%)이며, 수입액은 32억 7,409만불

– 그러나 2018년 상반기 전년 동기 수출액은 약 3.2%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13.94% 감소

* 2018년 상반기 교역규모는 59억 9,730만불 기록, 수출액은 21억 9,291만불, 수입액은 38억 439만불

○ 한국의 대(對)브라질 수출은 약 99.3%가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의 공산품이며, 수입품목의 경우 광산물, 농수산물 등이 70.3%를 차지

– 최근 수출 동향을 보면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크게 떨어져 주요 교역국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 한국과의 교역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로는 브라질의 세계와의 교역규모 축소, 부품의 현지화, 경쟁국들과의 경쟁 등이 이유

한국산 브라질 시장 상반기 수출 경쟁력

(단위 : US$ 천, %)

제품명	2019 상반기	2018 상반기	2019 점유율	2018 점유율	18/19 변동율	순위
송수신기와 부품	233,737	266,411	4.49	5.02	-12.26	3위
자동차 부품	328,721	446,967	9.10	9.54	-26.46	5위
반도체	944,663	1,375,432	28.86	37.73	-31.32	1위
완제품	269,380	300,239	7.34	7.10	-10.28	5위

자료 : 브라질 경제부(Ministerio da Economia)

나. 투자

한국 기업의 브라질 투자 동향

○ (외국 투자) 브라질의 주요 외국인 직접투자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영국 등으로 이 가운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최대 투자국의 확고한 위상을 유지

-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의 투자가 상승하였으며, 한국은 2018년 상반기 기준 브라질의 제14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

○ (한국 투자) 우리나라의 대(對)브라질 투자는 1995년 메르코수르 관세 동맹 공식출범 및 시장 확대를 계기로 1994년 이후 확대되기 시작

- 1995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브라질의 경기 회복 현상과 1996년 한국 정상의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對)브라질 투자가 1996년부터 본격화됨
- 우리나라의 대(對)브라질 투자는 브라질 국내시장 확대와 인근 메르코수르 국가 등 남미시장 진출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 (투자 통계) 1980년 이후 2018년 3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대(對)브라질 투자 신고 건수는 1,040건, 투자 신고액은 93억 3,836만불이며, 실제 투자액은 80억 7,865만불

우리나라의 대(對)브라질 업종별 투자 현황(누적 통계)

(단위 : US$ 천)

업종 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합계	1,040	281	9,338,358	1,441	8,078,657
농업, 임업 및 어업	24	4	169,914	92	57,493
광업	18	4	2,293,742	91	2,129,215
제조업	602	126	4,466,679	785	4,071,478
건설업	67	33	522,858	78	461,262
도매 및 소매업	149	48	452,774	191	277,022
운수업	30	15	252,435	37	237,490
숙박 및 음식점업	8	3	2,275	13	2,27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1	14	147,770	66	13,572
금융 및 보험업	24	6	612,432	22	585,39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3	393,564	10	225,5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	7	11,635	22	11,53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8	15	11,854	28	5,22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	1	80	1	4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2	332	5	329
N/A	1	0	0	0	0

자료 : 수출입은행(2018년 3월 기준)

○ (업종별 투자) 브라질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POSCO, 현대자동차, 서울전자통신, CJ 등 대기업이 대부분

- 2012년 현대자동차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다수의 협력 업체들도 함께 진출

– 동국제강(30%)과 포스코(20%)가 브라질 기업인 VALE(50%)와 함께 합작 제철소인 CSP에 50억불 규모의 투자를 발표

○ (진출) 브라질에 진출한 기업은 여러 진출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투자 분야 또한 다양한 방면을 보여줌

브라질 진출 주요 한국기업 현황

기업명	주요 분야	진출형태	진출연도
POSCO	Pallet (Vale 합작)	생산법인	1975
포스코대우	WHOLESALES, BROKERAGE	판매법인	1980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금융 및 해외투자금융	연락사무소	1993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및 수출보증	연락사무소	1994
한국타이어	타이어, 튜브	판매법인	1994
삼성전자	TV, 프린터, 휴대폰, 모니터, 노트북 등	생산법인	1995
LG전자	TV, 휴대폰, 모니터, 노트북 등	생산법인	1995
외환은행	금융	서비스법인	1998
금호타이어	타이어	판매법인	2000
CJ	Lysine (동물사료용 단백질)	생산법인	2005
미래에셋증권	금융	서비스법인	2008
우리은행	금융	서비스법인	2009
현대자동차	자동차 생산	생산법인	2009
현대중공업	굴삭기, 휠로더, 지게차 등	생산법인	2011
동아제약	의약품, 의료기기, 음료수 등	판매법인	2013
하나 마이크론	반도체	생산법인	2014

자료 : 상업통산자원부

우리기업 투자진출 성공 사례

○ CJ제일제당, 브라질 라이신 시장 투자 진출 성공 사례

– CJ제일제당은 2007년 브라질 상파울루 피라시카바(Piracicaba)시에 생산 법인을 설립, 라이신을 생산하기 시작

– 2018년 기준 CJ제일제당은 약 20만 톤 규모로 추정되는 남미 라이신 시장 점유율 60%로 1위를 차지

– 또한, 2017년에는 글로벌 농축 대두단백 1위 업체인 셀렉타(브라질)를 인수하여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도 계속 진행 중

CJ 라이신 산업 총정리

세계 시장	CJ 매출	투자규모	CJ 브라질 매출	경쟁사
10조 원	2조 원	5억불	약 1,300억 원	에보닉, 아지노모토, 미원 등

자료 : CJ제일제당 홈페이지

○ 하나마이크론사 브라질 시장 진출 성공 사례

– 2009년 한국기업 하나마이크론사가 Parit과 합작하여 HT마이크론이라는 법인을 Rio Grande do Sul(히우그란지두술)주에 설립

– 하나마이크론과 Parit이 합작투자, 이후 BNDES(브라질사회개발은행)에서 100만불을 대출

– 하나마이크론은 브라질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프로그램인 PADIS를 활용하여 브라질 기업과 합작으로 자국 법인을 설립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촉진 협력

○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무역협정(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

– 2017년 3월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으며, 2018년 5월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

– 2018년 9월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1차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2019년 10월 부산에서 제4차 공식협상 개최

○ 브라질은 아직 한국의 주요 경쟁국과 무역협정 체결사례가 없어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브라질 시장에서의 우리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증대가 기대됨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기존의 북미 및 일부 중남미 지역(칠레, 페루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남미까지 확대해 미주 지역 대부분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가 구축될 전망

○ (경협 방안) 한-메르코수르 TA 추진을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포럼 개최, 상호 우호적 분위기 조성과 업계 및 일반 국민의 긍정적 인식 제고 필요

– 2017년 이후 매년 한국-메르코수르 TA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간 우호적 분위기 조성 중

– 2019년 상반기 한-메르코수르 TA 3차 협상 시기에 맞추어 상파울루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각 1회 한국-메르코수르 경제협력포럼을 개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 (일반현황) 브라질은 수력 발전이 국가 전력생산의 주 에너지원인 68.1%이지만, 지난 몇 년간 브라질 전역의 강수량이 감소

– 수력 발전을 통한 전력수급 차질, 전기료 급등 등으로 전력 생산방식의 다각화 필요성

– 현재 브라질에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요 증가 중

– 브라질은 국토 대부분이 적도와 남회귀선 사이에 위치, 풍부한 일조량으로 태양광 발전에 매우 유리한 조건 보유

○ 2004년 브라질 정부는 'PROINFA'라는 이름의 대체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풍력에너지와 함께 태양에너지 개발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선정

– 태양에너지 발전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동안 풍력에너지 위주로 개발되어 왔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브라질에서 태양광 발전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함

– 2016년 관련 법령 정비로 태양에너지 산업이 급속히 발전 중

* 브라질 국가전력공사(ANEEL)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브라질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137만 9,373KW로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0.86%를 점유. 풍력 발전량은 1,342만 3,139KW로 8.34% 차지

○ 브라질 국영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풍력 업체에 저금리 대출 지원

– 동 혜택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브라질에 현지법인 보유 및 국산부품 의무 사용 비중인 로컬콘텐츠 규정 준수 필요

– 2018년 10월 기준 브라질에는 545개의 풍력발전소가 있으며, 세계 10대 풍력 발전 설비국 대열에 진입

○ (경협방안) 한국 태양광 산업 관련 기업들을 초청하여 한국–브라질 유관기관/기업 간 이해도 제고 및 네트워킹 기반 마련

– (포럼 및 사절단) 태양광 산업 유관기관/기업 간의 포럼, 세미나와 한국에서 초청된 기업들과 함께 태양광 산업 유망지역을 순회하는 시장 개척단을 추진

– (GPP,GGHK 방한 지원)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Global Project Plaza(프로젝트), Global Green Hub Korea(신재생에너지)에 유관 브라질 기관/바이어를 방한 지원 중

신정부에서 확대 예정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참가 지원

○ (일반현황) 브라질 정부는 기간 인프라의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을 추진 중

– 2018년~2019년 2년간 브라질사회개발은행(BNDES)을 통해 확보한 재원 540억 헤알이 에너지, 보건 등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에 사용될 전망

– (열악한 인프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망 등 대부분의 주요 인프라가 노후하고 열악한 편으로 보수 또는 신규 건설이 시급한 상황.

– (외국 투자) 정부 예산 부족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중국 등 외국기업 다수가 지분 인수, M&A 등을 통해 전력 등 인프라 분야에 투자진출 가능

○ (중국 투자 현황) 2007년~2017년 10년간 중국은 브라질 다양한 산업 분야에 총 115건 550억불 투자

– 금융, 에너지, 수력, 광산, 항공사 등 광범위하게 투자 중

* 중국 4대 국영은행(ICBC, CCB, ABC, BOC) 모두 브라질 진출

* BIC(은행), CPFL(발전, 송전), Jupia(수력), Anglo(광산), Azul(항공사) 등 인수

– 2017년 중국, 대 브라질 M&A는 106억불 규모

* Chery(완성차)과 화웨이(백색가전, IT)의 생산공장 투자

* 중국 State Power, CEMIG 사 São Simão발전소 R$71억 8,000만에 인수

* Didi Changing, 택시 호출 앱 99 Taxi 2억 9700만불에 인수

○ (경협방안) 유관기관/기업의 협의회 운영을 통해 프로젝트 정보 공유 및 유망 프로젝트 참가를 위한 집중 지원

– (협의회 운영) 대사관, 총영사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SK네트웍스, 포스코대우, 현대로템 등 인프라 프로젝트 유관기관/기업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년 협의회를 개최 중

* 2018.11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브라질 인프라협회(ABDIB)와 유관기관/기업 17개사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 협의회를 개최

Ⅲ. 진출전략

브라질은 인구 2억 이상의 중남미 최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노동법 및 국민연금 개혁을 통한 정부지출 정상화를 추진 중이며, 또한, 주요 경제 및 사업 환경 지표 개선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확대가 기대되나, 복잡한 세금구조, 부패지수 등은 여전히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약점으로 작용하며, 현 정부가 추진한 교육예산 삭감은 브라질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분석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브라질 시장 SWOT 분석>

S 강점 (Strength)
- 인구 2억 850만의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
- 중남미국 중 상대적으로 발달한 제조업 기반 확보

W 약점 (Weakness)
- 과도한 재정적자로 인한 정부의 투자 여력 상실
- 높은 세금, 열악한 인프라, 관료주의 등의 '브라질 코스트'로 인한 사업 운영 애로 존재

O 기회 (Opportunity)
- 사상 최저 기준금리(5.5%) 정책으로 인한 소비, 투자 활성화 기대
- 주요 경제지표 개선으로 인한 사업 환경 개선
- 고용지표 개선으로 인한 소비력 상승 기대
-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브라질 상류층을 공략한 프리미엄 시장 확대 기대

T 위협 (Threat)
- 현지화 가치의 잦은 등락으로 인한 환 리스크 존재
- 인근국 경제위기,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 성장 불확실성 심화
- 대통령 지지율 악화로 인해 추진 중인 개혁 성공 여부 불확실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저금리, 고용률 상승을 통해 높아진 소비성향을 겨냥한 브라질 소비시장 진출 • 상위 1% 소비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상품/서비스 시장 진입	브라질 프리미엄 시장 공략
ST 전략 (강점 활용)	• 현지화 가치 하락 시기를 활용한 브라질 투자진출 • 중국의 수요를 겨냥한 브라질 1차 산품 관련 시장 진출	농축산 시장 진출
WO 전략 (기회 포착)	• 정부 발표 관세 인하 품목 집중 공략 • 공기업 민영화 프로젝트 참여 기회 모색	정부 주도 민영화 프로젝트 참여
WT 전략 (위협 대응)	• 정부가 추진 중인 세금 개혁 관련 정보 입수, 빠른 대응 전략 및 기회 활용 방안 마련	자동차 등 기계부품 사업 진출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0년 진출전략

구 분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프리미엄 소비시장	○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브라질 상류층 공략** - 브라질 총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54.3% 경기와 관계없이 강한 소비력을 지닌 상류층 공략 필요
브라질 축산업	○ **브라질은 세계 3위 안에 드는 축산업을 보유** ○ **브라질, 상업용 소 사육량 2018년 2억 1천 350만 마리로 세계 최대** - 2019년 연간 소고기 수출량 사상 최대치 기록 예상 - 2018년 브라질 대중국 소고기 수출 2017년 대비 52% 증가
자동차 부품	○ **Rota 2030 발효에 따른 자동차 부품시장 진출 모색** - 향후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차세대 자동차 모델들은 각종 첨단 장치를 탑재해야 함 - 센서나 카메라 등과 같은 첨단 제품은 브라질 생산이 거의 없음
공기업 민영화 프로젝트 참여	○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해 브라질 정부 공기업 민영화 추진 중** - 전력공사, 교통공사 등 운영 프로젝트 참여, 공기업/대기업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대중소 동반진출 추진
니치(Niche) 시장에서의 기회 포착	목표 시장 세분화를 통한 한국 상품에 적합한 니치/프리미엄 시장 진입

2-1. 브라질 프리미엄 소비시장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백만장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 중

* 브라질의 백만장자의 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8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8% 성장

○ 한국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널리 알려져,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상류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을 통해 브라질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주요 이슈 및 트렌드) 브라질 프리미엄 시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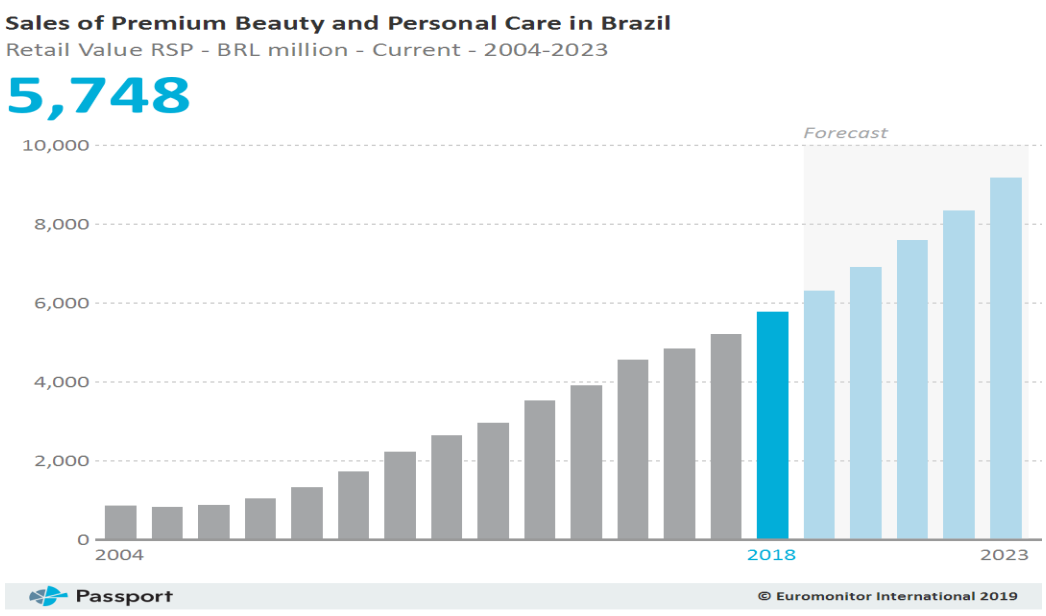
○ 브라질의 소득 상위층 및 백만장자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추세

– 브라질의 경제잡지 Economia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백만장자 수는 줄어든 가운데 브라질의 백만장자는 오히려 8% 증가, 18만 5천 명으로 집계됨

– 2018년 브라질의 프리미엄 뷰티 및 퍼스널케어 시장 규모는 약 57억불로 경기침체와 무관하게 지속 성장세를 보여 전년 대비 11% 성장 기록

– 브라질의 프리미엄 소비문화는 주로 여가생활, 뷰티 및 퍼스널케어 생활에 집중돼 있음

브라질 프리미엄 뷰티 및 퍼스널케어 시장 성장 추이



자료 : Euromonitor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높은 수입 관세 등으로 인해 수입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이 매우 높아짐

– 각종 세금이 부과된 후 제품 가격은 1.5~3배이며, 이후 물류비용, 유통업체의 높은 이윤을 추가하여 최종 소비자 가격 산정

(참고) 브라질 수입 제품 세금 산정 체계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서 대외 공동 관세를 사용하며 수입관세, 공업세, 유통세, 사회보장세가 누진 적용		
유통세의 경우 주마다 유통세율이 상이하며, 상파울루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18%가 적용되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됨		
동 표는 제품의 CIF 가격을 USD100으로 가정하고, 브라질에 제품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을 산정하여 적용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임		
CIF 가격	**100**	**USD**
수입관세(I.I)	18	%
공업세(IPI)	20	%
유통세(ICMS)	18	%
사회보장세(PIS/Cofins)	11.75	%
Example : 에어컨(HS Code : 841582)		
CIF 가격	**100.00**	**USD**
수입관세율	18.00	%
수입관세 산정 금액	18.00	USD
수입관세 반영 후 금액(공업세 산정 기준)	**118.00**	**USD**
공업세율(IPI)	20.00	%
공업세 산정 금액	23.60	USD
공업세 반영후 금액(유통세 산정 기준)	**141.60**	**USD**
신유통세 산정기준[(CIF+I.I+IPI)*100]/(100-ICMS)	172.68	USD
유통세율(ICMS)	18.00	%
유통세 산정 금액	31.08	USD
유통세 반영 후 금액(사회보장세 산정기준(CIF+I.I+IPI+ICMS))	**203.77**	**USD**
사회보장세율(PIS/Cofins)	11.75	%
사회보장세 산정 금액	23.94	USD
전체 세금 반영 후 최종가격	**196.63**	**USD**

○ 한국산 제품은 저렴한 중국산, 자국산 제품과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므로 가격보다는 제품의 품질을 강조하는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여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브라질 상류층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것이 핵심

○ 대부분의 일반 소비재들은 자국산,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상류층들의 세분화된 수요를 공략할 수 있는 니치 마켓이 존재함.

– 한국산 뷰티케어 제품의 경우 과거 미성년자, 또는 일부 K-pop 팬들에서 벗어나 최근 중산층, 상류층들도 관심을 갖는 품목

– 브라질 시장 진입을 위해 유통망을 가진 현지 업체와 협력하여 OEM 형태, 또는 합작 브랜드 형성하는 전략 필요

–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사용하는 국가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제품 마케팅 전략 필요

○ (유망품목) 브라질 상류층을 겨냥한 사치품목, 차량용 PPF(Pain Protection Film), 고급차 케어 제품,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 기타 사치품목

2-2. 자동차 부품 시장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자동차 산업은 2019년 기준 브라질 GDP의 4%, 제조업의 22%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

* 브라질 자동차 산업협회(ANFAVEA)에 따르면 2019년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9%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인 Rota 2030을 발표하고 ,에너지 효율 및 자동차 안전성 강화와 R&D 및 기술 혁신 투자를 도모할 계획

○ 브라질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은 2018년~2024년까지 약 400억 헤알의 재원을 신기술 도입과 생산라인 현대화에 투입할 계획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브라질의 자동차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Rota2030이 발효됨에 따라, 향후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차세대 자동차 모델은 각종 첨단 장치를 탑재해야 함

– 특히 차량 안전 보안 장치를 구성하는 부품 중 센서나 카메라 등과 같은 첨단 제품은 브라질 현지 생산이 거의 없음

* 브라질 경제부에 따르면 Rota 2030은 브라질로 수입되는 부품 중 브라질에서 대체 제품이 없을 경우 수입세가 면제되나, 제품 가치의 약 2%를 R&D에 투자해야 함

– 브라질의 SUV 차량용 부품은 국내 공급업체가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 연료 분사 시스템, 자동 변속기 등과 같이 이미 브라질 자동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품조차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또한, 정부의 인센티브를 겨냥한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휘발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해당 부품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현지에서 생산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은 30%~35%밖에 되지 않음

한국산 자동차 부품 브라질 시장 상반기 수출 경쟁력

(단위 : U$ 천, %)

제품명	2019 상반기	2018 상반기	2019 점유율	2018 점유율	18/19 변수출 동율	순위
자동차 부품	328,721	446,967	9.10	9.54	-26.46	5위

자료 : 브라질 경제부(Ministerio da Economia)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Rota2030으로 인해 향후 브라질의 자동차와 부품 수요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

– 센서, 카메라 등 브라질 생산이 없는 제품들의 경우 수입세 면제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낮은 가격에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살려 진출

– 교체나 신규도입 예정인 부품을 중심으로 브라질 시장 진출 고려 필요

– Rota2030 세부 계획*에 맞는 다국적 완성차 기업들과의 공동 R&D 또는 기술 제휴를 통한 '친환경 규제' 충족 노력

* 에너지 효율, 오염물질 배출, R&D, 차량 안전, 자동차 부품 공급체계 보강, 제조기술 현지화 등

– 전기차 개발 및 생산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차량, 부품기업들의 진출 노력 필요

* BMW, 도요타 등 일부 브랜드가 전기차를 취급 중이나 Rota2030 정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유망품목) 차량용 센서, 후방카메라, 기어, 브레이크, 기타 자동차 부품 등

2-3. 공기업 민영화 프로젝트 참여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인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

*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국가 재정을 정상화하여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

○ 이번 민영화 프로젝트는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공기업 운영권 수주를 통한 관련 기자재 수출도 도모하는 민관 협력진출 방안 마련 가능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보우소나루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시장 개방 및 재정 안정화를 추진 중

–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정부 채무 청산 및 기타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

* 브라질에서 수년간 독점 활동을 해왔던 여러 공기업들이 민영화가 되면서 시장 개방 또한 일어날 것으로 예상

○ 최근 브라질 정부는 총 17개의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운영에 있어서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됨

– 이중 라틴아메리카 최대 전력 생산/공급 기업인 Eletrobras, 대중교통 운행 공기업, 통신망 구축 관련 공기업 포함

브라질 민영화 대상 공기업

순번	기업명	분야	주요 업무 및 활동
1	Emgea	금융	채권 관련 업무
2	ABGF	금융	펀드 관리 및 보증
3	Serpro	IT 정보 통신업	공기업 IT 회사로 민간 기업에도 서비스 제공
4	Dataprev	IT 기술	공공 기관에 IT 솔루션 제공
5	Casa da Moeda	화폐 제조	화폐 제조 및 유통
6	Ceagesp	유통 및 창고	Sao Paulo 주에서 농업물 관리 및 유통
7	Ceasaminas	유통 및 창고	Minas Gerais 주에서 농업물 관리 및 유통
8	CBTU	교통	브라질 5개의 도시에서 대중 교통 운행
9	Trensurb	교통	Porto Alegre시 대중 교통 운행
10	Codesa	항구 및 교통	Espirto Santo주의 항구 관리 및 운행
11	EBC	통신	브라질 통신 관리
12	Ceitec	기술 발전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지원
13	Telebras	통신 및 인공위성	통신망 구축과 인공위성 관리
14	Correios	통신 및 우편	합법적으로 우정郵政 사업을 독점
15	Eletrobras	전기 생산 및 공급	라틴아메리카 최대 전기 생산 및 공급
16	Lotex	복권	복권 발행 및 유통
17	Codesp	항구 및 교통	Sao Paulo 주의 항구 관리 및 운행

자료 : 브라질 경제부(Ministerio da Economia)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공공기관/대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한 중소기업 기자재 납품, 대·중·소 동반 진출 추진

– 대부분의 브라질 민영화의 경우 국가 인프라 운영권과 관련된 프로젝트임.

– 현재 공개된 17개의 민영화 대상 기업 이외에도 브라질 정부는 추가 대상 공기업을 발표할 예정

– 한국은 브라질과 비교해 국가 전력 시스템 운영, 도시 교통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 강점을 지니고 있어 브라질 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각되기도 함

– 국가 인프라 관련 공기업 운영권을 수주할 경우 향후 유지, 보수 등에 있어서 국산 기자재 수출 등 연계 추진 가능

○ (유망품목) 전력 기자재, 건축 자재, 철강, 건축 자재, 태양전지, 스마트시티 운영 및 교통 시스템 등

3 한-브라질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020년 진출전략

분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태양광 에너지	○ 현재 68.1%를 차지하는 수력 발전을 통한 전기 공급에 차질, 전기료 급등 등으로 전력 생산 방식 다각화 필요
한-메르코수르 TA 활용	○ 한-메르코수르 TA 4차 협상 완료, 수혜품목에 대한 진출 환경 개선 기대
정책 연구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지원	○ 한국의 발전 경험을 브라질에 전수하여 상호 우호적 분위기 형성, 관련 품목 브라질 진출기반 마련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의 노하우(Know-how) 공유를 통한 양국 간 우호적 분위기 조성, 관련 품목 수출 기반 마련

3-1. 태양광에너지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브라질은 수력 발전이 국가 전력생산의 주 에너지원 68.1%이나 지난 몇 년간 브라질 전역의 강수량 감소
  - 수력 발전을 통한 전력수급 차질, 전기료 급등 등으로 전력 생산방식의 다각화 필요성
  -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요 증가

○ 브라질은 국토 대부분이 적도와 남회귀선 사이에 위치, 풍부한 일조량으로 태양광 발전에 매우 유리한 조건 보유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브라질 정부, 태양광 전력 시장 보조금 지급 등으로 브라질의 태양광 시장은 급성장 중
  – 태양광 에너지는 높은 가격 때문에 인기를 끌지 못하다가 2017년 바이오매스, 소수력 발전 등 다른 재생 에너지와 가격이 비슷해져 경쟁력 확보
  – 태양광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브라질 정부의 노력과 집열판 등과 같은 장비 가격 하락이 태양광 발전 설치 증가를 견인
  – 브라질은 실리콘 가공 기술 부족으로 태양광 전지를 수입해 태양광 패널을 조립하기 때문에 핵심 부품인 태양광 전지 수요 증가
  – 태양광 발전 장비 및 부품도 수입 의존도가 높아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시장으로 평가

○ 브라질국가전력공사(ANEEL)에 따르면 2024년까지 약 120만 대의 태양광 발전기가 브라질 전역의 가정과 회사에 설치될 전망
  – 2024년에는 태양광에너지가 브라질 전체 사용 에너지의 15%를 차지할 전망이며, 2030년까지 태양광에너지 시장은 약 1,000억 헤알 규모가 될 전망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한국 태양광 산업 관련 기업들을 브라질에 초청하여 한국-브라질 유관기관/기업 간 이해도 제고 및 네트워킹 기반 마련
  – 태양광 산업 유관기관/기업 간의 포럼, 세미나, 브라질 태양광 산업 유망지역 순회 등

○ (유망품목) 인버터, 모듈 세트 등 태양광 발전 장비 등

3-2. 한-메르코수르 TA 활용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국 정부는 중남미 경제 블록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 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
* 2017년 3월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으며, 2018년 5월 무역협상 개시 선언

○ 메르코수르(MERCOSUR)는 태평양동맹(PA)과 함께 중남미 최대 경제권 중 하나임
* 메르코수르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라틴아메리카 지역 경제 연합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9년 1월 취임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시장경제를 추구하여 EU, 한국 등과 무역협정을 추진 중
- 좌파 정권 하에서 폐쇄적이었던 브라질 대외 통상기조가 신정부 수립 이후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중
- 2018년 9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1차 공식협상이 우르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림.
- 2019년 10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4차 공식협상이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림.

한-메르코수르 TA 추진 경과

번호	날짜	내용
1	2004년 11월	공동연구 개시 합의
2	2017년 3월	협상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아르헨티나)
3	2018년 5월	무역협정 협상 개시 공식선언(서울)
4	2018년 9월 11 ~ 15일	제 1차 협상 개최(몬테비데오)
5	2019년 4월 2 ~ 6일	제 2차 협상 개최(서울)
6	2019년 7월 8 ~ 11일	제 3차 협상 개최(몬테비데오)
7	2019년 10월 1 ~ 4일	제4차 협상 개최(부산)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한-메르코수르 TA 추진을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 행사 개최, 상호우호적 분위기 조성과 업계 및 브라질 일반 국민의 긍정적 인식 제고
- 2017년 이후 매년 한-메르코수르 TA 활성화 경제협력 포럼 개최 중

○ (유망품목) 의약품, 전화기 부분품, 전자제품, 변압기 등 기타 수혜 품목

3-3. 정책연구 지원을 통한 관련 품목 수출 우호적 분위기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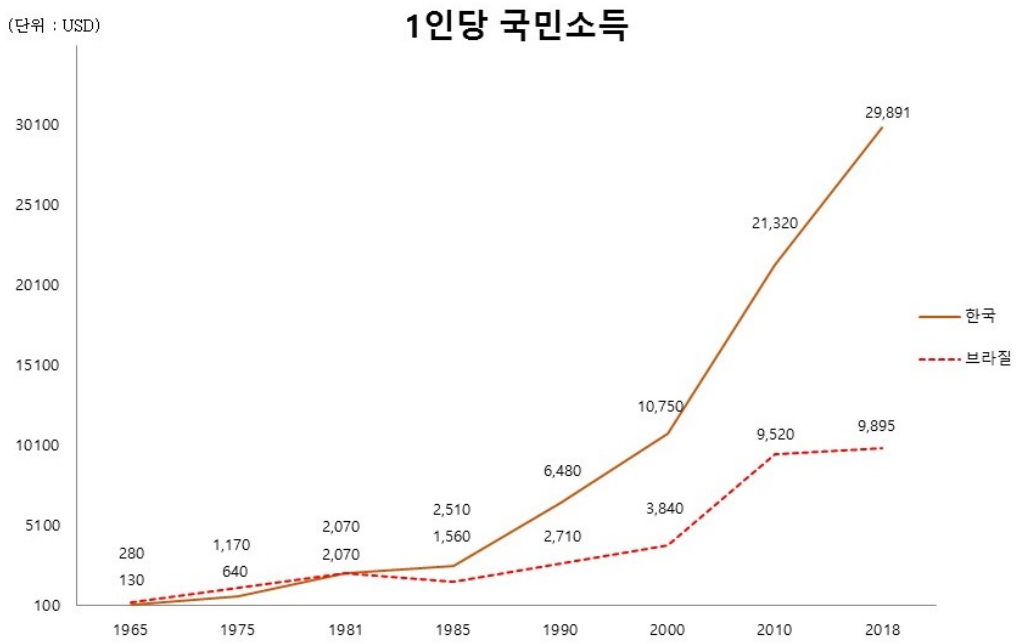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브라질 정부는 ICT, 자동차 산업 육성, 교육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노하우(Know-how) 전달받기를 희망
- ○ KOTRA 상파울루무역관은 2018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브라질 산업부(MDIC)의 요청으로 브라질 ICT 산업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수행한 적이 있음
- ○ 한국이 강점을 지닌 산업의 노하우를 브라질 정부와 공유하는 KSP사업을 통해 관련 품목 및 서비스 수출 추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브라질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80년 이전까지 한국보다 높았으나, 2019년인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브라질의 약 3배 수준

한국과 브라질의 1인당 국민소득 변화 추이 비교



자료 : IMF

○ 브라질 정부는 다양한 자국 산업 발전에 있어서 한국의 발전 경험 및 국가 주도 발전 정책 공유받기를 희망

– 브라질의 IT산업 인센티브 정책인 'Lei de Inofrmatica(레이 데 인포르마치카)'와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PADIS가 WTO로부터 불법으로 판정받아 브라질 정부는 WTO 규범을 준수하는 대체 정책 마련 필요

– 현지 생산 자동차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Inova Auto 정책이 폐지되고, 친환경 기술과 안전을 강조하는 Rota 2030 정책이 시행되는 등 브라질 산업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수할 가능성 존재

* 브라질의 열악한 공교육 시스템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브라질에 전수 가능한 분야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한국의 교육 및 중점산업 육성 등의 노하우를 브라질과 공유하는 형태로 브라질의 산업별 정책 연구/설계 및 협력

– 정부 간 해당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도 제고, 주요 네트워킹 확대, 국내 유관기업 및 기업들의 현지 진출 용이한 기반 마련

* KOTRA 상파울루무역관은 2019년 8월까지 브라질 정부가 WTO 규범을 준수하면서 기존 IT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을 수행

○ (유망품목) 자동차 부품, IT 관련 품목, 교육 시스템, 교육 관련 콘텐츠 등

4 진출 시 유의사항

환율 불안정성

- **(현황) 브라질 헤알화(BRL) 가치는 2012년 이후 각종 대내외적 요소로 인해 지속 하락하여 2019년 12월 10일 기준 USD1당 BRL4.15 수준**
  - 이러한 헤알화 가치의 하락은 브라질 수입상 및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악영향
  - 또한, 투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우도 대부분의 핵심 부품들을 수입하기 때문에 헤알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됨
- **(대응전략)**
  - ☞ 브라질 진출 예정인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브라질이 환율 변동 폭이 큰 국가임을 감안하여 내부 환 위험 관리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보호무역주의

- **(현황) 1990년 시장 개방 선언 후에도 완제품에 높은 수입관세 부과**
  - 평균 수입관세는 1990년 32%에서 2015년 10.9%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영국(1.9%), 미국(2.9%) 등 비해서는 높은 수준 ANVISA(위생감시국), INMETRO(국가품직규격관리원), ANATEL(방송통신위원회) 인증 등 수출 업체에게 까다로운 인증 요구
- **(대응전략)**
  - ☞ 주별 유통세의 경우 항구가 위치한 주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이어와 협상하여 각종 인센티브가 있는 항구 선정 필요
  - ☞ 국제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도 브라질의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 경험이 있는 사업파트너 발굴 필요

신뢰관계 구축

- **(현황) 브라질은 중국에 버금가는 관계주의사회로 비즈니스 관계를 맺기에 앞서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업무 이야기에 앞서 사교적인 내용의 대화에 많은 시간 할애
- **(대응전략)**
  - ☞ 브라질인과 거래 시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중심적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기보다, 개인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 관계 중심적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가금육 거래 사기 주의

- **(현황) 브라질의 주요 가금육 업체들을 사칭하는 사기 사건들 증가 추세**
  - 브라질을 대표하는 가금육 업체 BRF, SADIA, JBS 등을 사칭하여 가짜 명함, 계약서, BL 등을 제시하고 거래를 시도
  - 이후 당 관에서 확인 차 구체적인 통화를 시도하면 포르투갈어를 못한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던가 다시 전화 달라는 식으로 통화를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
- **(대응전략)**
  - ☞ BRF, SADIA, JBS, AURORA 등 브라질 가금육 업체들은 한국의 소규모 수입상들에 먼저 연락하여 거래 의사를 밝히지 않으므로 브라질 가금육 건으로 메일을 받을 경우 우선 의심할 필요가 있음
  - ☞ 브라질 가금육 관련 거래 시 전문기관 등을 통해 업체의 실존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거래를 진행해야 함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8708.40 (기어박스)	수입관세율(%)	0~18
자동차부품 (기어 박스 등)	수입액('19/US$백만)	3,613	대한수입액('19/US$백만)	328
	선정사유	- 한국의 자동차 부품은 대(對)브라질 수출품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어박스는 수출 1위 부품이고,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량의 경우 전체 5위		
	시장동향	- 2019년 브라질의 자동차 부품시장은 하락세를 보였으며, 한국의 경우 약 26% 상당 하락했으나, 브라질의 자동차 시장은 정부의 Rota 2030 발표로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 - 또한, 브라질의 2017년도 자동차 부품 시장은 약 220억불 수준으로, 여러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들이 브라질로 진출하면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		
	경쟁동향	- 자동차 부품 수입은 독일과 중국이 각각 15%와 13.31%로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약 9.10%로 시장 점유율 5위를 차지 - 자동차 부품은 기어박스, 플라스틱 부품, 철강가공 제품, 시트 등 범위가 다양하며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음 -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보통 공장이 많이 위치하고 수요가 높은 상파울루주 혹은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주에 밀집되어 있음 - 브라질에 진출한 글로벌 브랜드는 Bosch, Continental, Dana, Delphi와 같은 회사가 있으며, 한국기업인 Mando, Hyundai Mobis 등도 진출		
	진출방안	- 브라질의 Rota2030 법안으로 브라질에서 R&D 부분에 투자하는 자동차 부품 수입 업체에 브라질 정부의 세금 혜택이 발생 - 브라질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의 경우, 수입액의 2%를 R&D에 투자를 할 시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줌 - 또한, 브라질에 공장을 설립 한 뒤 직접진출 할 경우 브라질 주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품목명 2	HS Code	8542.32 (메모리)	수입관세율(%)	0~8
반도체 (메모리)	수입액('19/US$백만)	3,273	대한수입액('19/US$백만)	944
	선정사유	- 브라질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제품군은 반도체로 전체 수입의 약 28.86%를 차지 - 한국은 세계 최대 생산국이며 브라질에는 LG, 삼성, Electrolux와 같은 대형 가전제품 업체가 있음		
	시장동향	- 컴퓨터의 브라질 현지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부품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메모리와 반도체 수요는 높음 - 현재 브라질에서 컴퓨터와 노트북 현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 판매 상승으로 이어짐 - 중산층의 소득 증가로 IT 제품 수요가 증가, 이에 사용되는 메모리 및 반도체 제품 수요 상승했으며, 한국 브랜드 컴퓨터 및 노트북에 사용되는 메모리는 대부분 한국산 - 전기전자 제품 생산업체협회(Eletros)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브라질 전기전자 제품 판매량은 5,21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14.6% 증가		

	경쟁동향	- 2019년 한국 반도체 수입의 경우, 2018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28.86%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과 타이완산의 반도체 수입이 크게 늘면서 한국과 이 두 국가의 격차는 크게 줄어드는 중		
	진출방안	- 또한, 반도체 공장을 설립 할 시, 주정부의 보조를 받거나 브라질 정부에서 생산품을 전부 구매하는 경우도 존재 - 또 다른 방법은 브라질 유망 대학교와 협력하여 브라질의 또 다른 유망 기업을 인수 진출		
품목명 3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수입액('17/US$백만)	178	대한수입액('19/US$백만)	0.93
화장품 (스킨케어)	선정사유	-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화장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큼		
	시장동향	- 브라질의 화장품 시장은 2017년~2022년 사이 약 56% 이상 성장 예측 - 또한, 최근 브라질의 Skin Care 상품의 크게 늘면서 Make Up 상품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		
	경쟁동향	- Skin Care 시장의 경우, 브라질은 세계 시장 8위에 있으며(2017년 기준), 약 2,700여 개의 회사가 운영 중 - Skin Care 부문에서는 한국기업이 K-Beauty로 강세를 보이나, 최근 중국의 C-Beauty의 급부상으로 경쟁 구도 형성 - 브라질은 자국 기업인 Natura, Avon과 같은 기업들과 다국적 기업인 The Face Shop, Sephora 등이 진출 - 2017년 기준 한국 화장품 수입은 약 93만불		
	진출방안	-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Beauty 시장을 통한 바이어 발굴 - Skin Care 제품의 경우, 브라질의 전형적인 높은 관세와 정부 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움 때문에 수입 시 가격이 최대 3배까지 비싸질 수 있음 - 이에 몇몇 다국적 기업들은 브라질의 풍부한 자연 재료 확보와 시장 확장을 위하여 브라질에서 직접 생산공장을 차리기도 함 - Skin Care 제품의 경우, 소비층들의 온라인 구매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온라인 구매가 가장 빠르게 성장 중		
품목명 4	HS Code	3822.00 (진단용 시약)	수입관세율(%)	0~2
	수입액('19/US$백만)	-	대한수입액('19/US$백만)	-
진단용 시약	선정사유	- 혈액이나 소변 반응 등을 통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은 지카 바이러스 등 전염병 증가에 따라 수요 증가		
	시장동향	- 아마존 등 적도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성 기후를 보유한 브라질은 모기 등으로 인한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나, 주요 발생 지역인 북부 및 북동부에는 검사 장비 및 진단 시약 등이 대거 부족한 상황 - 최근에는 남부 및 남동부 도시 지역에서도 전염병이 발생, 진단 시약 수요가 증가 - 한국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6년 2.8%에서 2017년 16%로 13.2%p 증가		
	경쟁동향	- 2017년 기준 동 제품의 수입대상국 중 한국은 3위로 점유율 16.3% 차지 ・1위는 미국(40.1%), 2위는 독일(19%)		
	진출방안	-		

품목명 5	HS Code		수입관세율(%)	
에어컨 (제품 및 부품)	수입액('19/US$백만)	61	대한수입액('19/US$백만)	-
	선정사유	- 열대 국가에 속하는 브라질은 에어컨 제품과 부품이 작년 대비 41.59% 성장 중 - 브라질냉반기협회(Asbrav)의 보도에 따르면, 2019년도 에어컨 판매 또한 4% 성장할 것으로 예측		
	시장동향	- 2015년 이후 하락세를 기록하던 브라질 에어컨 시장은 2019년도 4%대 판매 성장률을 기대 - 에어컨 부품 수입의 경우 해외 수입이 크게 늘고 있으며, 에어컨 시장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에어컨 가격으로 나옴		
	경쟁동향	- 브라질 시장에는 Carrier, Hitachi와 같은 국내 생산 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음. - 한국 기업의 경우 LG와 삼성이 진출했으며, 이들은 중저가 에어컨부터 프리미엄 에어컨 시장까지 섭렵하는 중		
	진출방안	- 브라질 다수의 기업들이 ZFA에 공장을 설립하여 브라질에서 직접 생산하는 경우 다수 - 해외 수입 공산품의 경우 높은 세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음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교육서비스	선정사유	- 2억 인구를 보유한 브라질 교육서비스는 시장규모 대비 교육수준이 낮아 향후 높은 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평가 - 경제·사회 개발 정도가 낮은 북부 및 북동부 지역의 교육시장 성장 잠재력이 크며, 교육서비스 대국인 한국식 교육을 동경하는 풍조가 있음
	시장동향	- 브라질지리통계원(IBGE)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브라질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는 교육 부분 - 브라질 정부는 2020년까지 대학 진학률을 3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학교 간 교육의 질 차이가 매우 큼 - 브라질은 고등교육까지 사교육과 비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의 교육수준이 높지만, 대학교육의 경우 공립 대학이 최상위권을 유지
	경쟁동향	- 브라질의 학교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공립학교, 2번째는 사립학교, 3번째는 비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 - Kroton, Estacio, Objetivo와 같은 브라질 대형 교육 기업이 존재
	진출방안	- 지역마다 소규모 고등교육기관이 다수 존재,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용이. 외국계 그룹의 브라질 대학 인수를 통한 고품질 교육 공급 가능
품목명 2		
게임서비스	선정사유	- 브라질 인구는 약 2억 인구 가운데 약7천 5백만 명이 게임을 즐기며 유저의 대다수가 10~30대의 젊은 층 - 브라질에서 소비되는 게임은 FPS부터 MMORPG 등 여러 장르의 게임 소비
	시장동향	- 브라질의 게임 시장 규모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크며 세계 13위에 해당하며, 브라질 디지털게임공사(IBJD)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게임 관련 종사자 수가 최근 5년간 164% 성장 - 게임산업 중 콘솔 게임이 가장 규모가 크며,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순으로 인기 - 시장조사기관 Newzoo에 따르면 브라질의 게임 시장 규모는 2018년에 약 15억불 - E-Sports 대회 또한 300만불의 상금이 걸릴 정도로 규모 확대 - 콘솔 게임으로는 Call Of Duty, Witchers, GTA와 같은 게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으로는 DOTA 2, L.O.L, 모바일 게임으로는 Free Fire, Candy Crush등의 게임이 인기
	경쟁동향	- 콘솔 게임의 경우, 일본의 Nintendo의 Nintendo Switch와 Sony의 PS4, 그리고 미국 Microsoft사의 XBox가 시장을 양분 -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회사들은 게임 콘텐츠를 배포하며 진출하였으며, 배틀그라운드, 서머너즈 워, MMORPG 장르의 게임이 많이 진출
	진출방안	- 콘솔게임의 경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Nintendo, PS4, Xbox와 경쟁을 할 수 없음 - 브라질 현지 게임 회사를 통한 브라질 시장 진출방안 모색 -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해 Steam과 같은 멀티플레이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 게임 시장과 모바일 게임 시장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함

품목명 3		
물류서비스	선정사유	- 브라질의 경우 물류비용은 높으나, 제3자 물류 비중은 낮은 편으로,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 - 최근 Bolsonaro 대통령의 Correio(우체국)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 Correio가 독점하던 물류 운송 서비스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임
	시장동향	- 컨설팅 업체 KPMG에 따르면, 2014년 브라질 물류 시장 규모는 전체 GDP의 0.9%에 해당하는 499억 헤알 보유 - 도로·철도 등 낙후된 교통인프라로 인해 물류비용 상승에 따라 통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류 기업 수요 증가 - Rappi, Log와 같은 물류유통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권이 발전하면서 물류 운송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임.
	경쟁동향	- DHL과 같은 외국계 물류 업체 진출 - 다수의 물류 오퍼레이터, 운송 업체, 보관 업체 등이 존재 - Rappi, Log와 같은 스마트 물류운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 Correio(우체국)
	진출방안	- 현지 물류 업체와 제휴를 통한 브라질 시장 진출방안 모색 혹은 브라질 신생 스타트업 인수 - 한국의 배달 문화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배달 앱 개발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기간제 맞춤형 서비스 사업

○ 지사화 사업 : 약 70개사

– 품목별 전문화된 현지 전담직원을 통한 제약,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 유망품목의 브라질 시장 진출 지원

○ 월드챔프 사업 : 약 15개사

– 기술력 있는 우수 중견기업의 전시회, 광고 등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

브라질 화장품 시장 진출 확대 사업

○ 추진배경 : 브라질은 세계 4위 화장품 소비시장이나 K-뷰티의 인지도가 아직 낮아 한국 화장품 기업 수출 수요에 맞는 바이어 발굴 어려움 존재

○ 사업내용 : K-Beuaty Project manager, 방한 구매단, 뷰티전시회 등 지원

○ 추진방법(잠정)

– (연중) K-Beauty Project Manager 운영 : 현지 바이어 인콰이어리 발굴, K-Beauty 뉴스레터 제공

– (상반기) 볼로냐 화장품 전시회 지원 : 한국기업과 브라질기업이 다수로 참여하는 전시회에 직원 파견하여 상담 지원

– (상반기) K-Beauty 세미나 개최

– (하반기) 브라질 뷰티 전시회 한국관 지원

– (하반기) 뷰티 페어와 연계하여 바이어 방한 구매단 파견

브라질 지방 바이어 발굴 마케팅 사업

○ 추진배경 : 무역관 소재의 상파울루주 외에도 산업별로 구매력을 갖춘 지방 바이어들을 발굴하여 한국제품 수출 기회 극대화

○ 사업개요

– 시기/장소 : 2020년 연중/브라질 지방 도시(6개)

– 규모 : 국내기업 60개사, 브라질기업 200개사

◦ 추진방법

– (1~2월) 참여 국내기업 선정

– (3월) 주정부, 산업연맹, 협회 협조 요청 및 시기 확정

– (4~12월) 지역별 수출상담회 개최(또는 지역 유망 전시회 참가 및 KOTRA 부스 운영)

브라질 투자진출 지원

◦ 진출기업 대상 경영지원 세미나(상반기/상파울루)

– 진출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관세, 세무 등 최신 법령과 적용사례 소개 및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세미나 개최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브라질 지방 선거	2020.10.4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세금 개혁	-	
EU-메르코수르 무역 협정	-	
한-메르코수르 무역 협정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Feicon Batimat	2020.3.31 ~ 4.3	건설, 건축
Exposec	2020.4.14 ~ 16	보안 장비
Feimec	2020.5.5 ~ 9	기계, 장비
Apas	2020.5.18 ~ 21	식품, 유통 산업
Hospitalar	2020.5.19 ~ 22	의료장비
FCE	2020.6.2 ~ 4	미용, 화장품
Fispal	2020.6.16 ~ 19	식품
Beauty Fair	2020.9.5 ~ 8	미용, 화장품
Futurecom	2020.10.28 ~ 31	기술, 통신

부록 對브라질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Ⅰ. 한-브라질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브라질의 전략적 가치와 주요국의 협력전략

브라질의 전략적 가치

○ **(경제)** 세계 8위, 중남미 1위 GDP를 자랑하는 경제 대국
* GDP 1.9조 불(중남미 GDP 40.5%), 1인당 GDP 9,100불의 중남미 내 G2 국가

○ **(산업)** 자원부국으로 1~3차 산업이 고루 발전한 산업구조 보유
* 농업 6.6%, 제조업 20.7%, 서비스업 72.1%로('17년 기준) 산업구조가 다변화
* 원유, 철광석, 육류, 대두 등 1차 상품의 수출 비중 전체 수출 50.2%
* 제조업 및 서비스업 발달(항공 산업 세계 3위, 자동차 산업 세계 3위, 생명공학 발달)

○ **(시장)** 세계 5위 인구(2.5억) 기반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
* 대규모 내수시장과 더불어 미주대륙 및 유럽 진출 교두보 역할
* 인프라 : 중남미 최대 건설시장('19년 건설·플랜트 시장 규모 2,717억 불)

○ **(수출입) 中·美·아르헨티나와 교역이 전체의 45% 상당 비중**
* 교역국(2019.10월) : 중국(전체 24.5%), 미국(15%), 아르헨티나(5.1%), 독일(3.8%)
* 수출품(2019.10월) : 대두(전체 13.1%), 석유(12.6%), 철광(11.2%), 육류(6.3%)
* 수입품(2019.10월) : 석유(전체 13.6%), 기계부품(85 : 12.8%, 84 : 11.8%), 차량(7.1%)

○ **(투자)** 세계 6위, 중남미 1위 FDI 유치국으로 글로벌 기업 진출 활발
* 투자국 : ('03~'19.2Q) 美·中 투자 비중 高, ('19) 프랑스, 일본, 중국 투자 순
* 금 액 : '18년 FDI유입 833억 불(ECLAC) (브라질 GDP의 약 4.4%)

브라질 시장 가치와 잠재력

자원의 보고	세계 8위(GDP), 중남미 최대 경제, 세계 5위 인구(2.5억 명) 시장, 세계 5위 국토 면적(전 세계 농지 20%), 5위 원유 매장량
개방 모멘텀	신임 정부('19.1 취임) 이후 기존의 내수지향(inward)에서 친기업 개혁 및 대외개방 기조로 선회, 시장 활성화, 외국인 투자 기회 확대 * 연금 개혁, 정부부처 개편(29개 → 15개), 공기업 민영화 및 프로젝트 민간참여 확대 계획 * 개혁개방 모멘텀 : EU-MERCOSUR FTA 20년 만의 타결('19.6.28), 도미노 타결 전망
진출 교두보	미주대륙 및 유럽 진출의 교두보이자 협력 파트너 * 브라질은 미주대륙 진출 위한 핵심시장 : 중남미 대국으로 정치·경제 리더십, 중남미 주요 다국적 기업은 대부분 브라질 국적 * 유럽과의 문화·경제적 연결성, FTA 네트워크 등 활용한 유럽 공동 진출 가능

[유럽] FTA 등 통상협력 확대에 기반한 전통적 우호 관계 유지

○ EU-브라질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07), 신정부 대외통상정책 최우선 과제인 EU-MERCOSUR FTA 협상 20년 만에 타결('19.6)

* 자동차·부품, 기계, 에탄올 등 주요 품목 포함 90% 품목 10년 내 관세 철폐

* 타결은 완료되었으나 브라질의 파리 기후변화 협약 준수 문제가 최종 FTA 체결 관건이 될 전망(브라질 신정부는 기후협약 탈퇴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움)

○ 브라질은 유럽계 이민자가 주류를 이룬 사회로, 다양한 유럽계 기업이 진출하며 긴밀한 관계 유지 (FDI 투자금액 절반 이상 유럽)

* 유럽 중에서도 스페인과 이탈리아(브라질 최대 이민집단 형성) 기업 강세

*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의 경우 주로 화력발전 등 에너지 관련 시장 진출 多

(중국) 대규모 정책차관 바탕으로 브라질 인프라 시장 진출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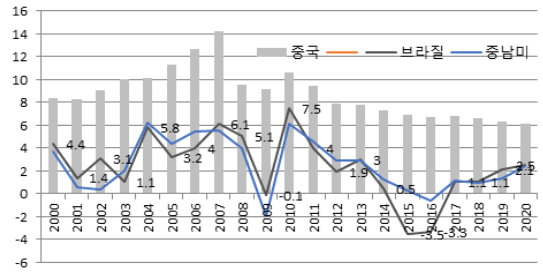
○ 브라질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경제 성장 견인차인 중국

–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09~), 양국 관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12)

* 中 정부, 2019년 브라질에서의 BRICS 정상회담 계기 브라질의 일대일로 가입 추진 전망

* 브라질의 성장세는 1) 대내변수(재정안정화)와 2) 대외변수(① 원자재가 상승, ② 중국성장기 수요 급증 → 대중 원자재 수출 증가)에 기인

〈브라질과 중국의 GDP 성장(IMF)〉



√ **브라질 성장을 견인한 중국의 수요**

브라질은 2010년을 전후하여 원자재가 상승 및 중국의 성장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대와 더불어 성장세(원자재 붐 : 대두, 철광석 등)

√ **대중무역 흑자, 미중 무역분쟁 수혜국**

브라질 대중 수출은 '18년 총 642억불(전년 대비 35.2% 증가), 294.8억불 흑자

·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입선 전환으로 브라질 대두 수출 증가(전체 콩 수출 80%가 중국향)

○ 정책자금 바탕 인프라 투자 급증, 인프라 펀드(200억불) 조성('17)

*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 중국은 브라질-중국(3:1 비중) 펀드를 조성

* (금융지원) 브라질 인프라 사업 금융지원 '05년 이래 11건 289억불

* (투자진출) '09년 이래 540억불, 中자본의 기업 인수·합병(M&A) 56건, 448억불

중국기업 대(對)중남미 영향력 확대

◈ **브라질의 빈자리를 메꾸는 중국, 공격적 對중남미 투자를 통한 자원·인프라 확보 전략**

- 최근 중국은 중남미 지역으로의 공격적인 투자진출을 통해 자원, 에너지 중심 확보 전략을 전개
- 특히, 브라질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 중남미 최대 기업인 브라질 Odebrecht 社 부패 스캔들*에 따른 프로젝트 취소 등으로 인한 공백을 정책 차관 바탕으로 중국기업이 메꾸고 있는 양상 전개
  * 중남미 인프라 수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브라질의 Odebrecht 社가 중남미 주요국 정부에 수주 입찰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대대적인 반부패 수사 및 해당 프로젝트 철수

◈ **2016년 중남미 최대의 인수건 중 2건이 중국기업의 브라질 기업 인수(ECLAC)**

① **China Molybdeum Co.Ltd. 社: 브라질의 영국기업인 Anglo American 社로부터 니오븀과 인산염 부문 인수(1,250억불)하며 세계 2위의 니오븀 공급자이자 브라질 2위 인산염 공급자로 부상**

② **China Three Gorges Corporation社 : 미국계 Duke Energ y社의 중남미 자산 매각 결정에 따라 수력발전소를 인수(총 120억불), 동 기업을 브라질을 중남미 진출 중점국으로 선정, Jupia, Ilha Solteira 수력발전소 30년 운영권 획득, 브라질 민간 에너지 기업 중 2위 규모 획득**

③ **Hainan Airlines 항공사 : 브라질 Azul 항공사의 지분 23.7%를 획득(4.5억불)**

④ **Hunan Daking International Food and Agriculture Co.Ltd.社 :** Friagril 社(브라질 곡물기업) 지분 57.6% 획득 (2억불)

◈ **중국의 투자 방식, 현지의 저항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 (중국진출 우려) 중국 대형기업들의 브라질 전기, 에너지, 통신 등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중국기업의 사업 방식에 대해 현지에서 우려 여론이 증가
- (현지 정부 및 업계 저항감 최소화) ▲현지 고용, 경영방식 및 브랜드명 유지, 본사 개입 최소화 등, ▲기술기업, 자원·에너지 분야, 그린필드보다 M&A 등 비중 월등히 多
  * 2016년 중남미 최대 M&A 중 2건이 중국의 브라질 에너지 자원 기업 인수
- (정부지원 바탕 우호적 조건 제시) 에너지, 통신 등 주요 투자분야 ▲평균 이상 입찰금, ▲적정 투자회수율 등 우호적 조건 제시 ☞ 中 정부 글로벌 투자계획에 따른 장기적 관점 투자

◈ **중국은 브라질의 장기적 인프라 입찰사업에 지속 참여중**

- ('18) 중국 CM포트 社, 브라질 2대 컨테이너항인 파라나구항(TCP PArticipacoes S.A.) 인수, 중국 CGGC 그룹(엔지니어링사), 상파울루 수 처리 기업 인수
- ('19.12) 브라질 북동부 바이아주 살바도르 이타파리카 교량 건설 입찰에서 중국 3개 기업 컨소시엄이 단독 수주 성공 (투자규모 13.3억 불, 30년간 운영 PPP 구성, **외교부, 2019**)

[미국] 브라질 신정부의 적극적인 친미 정책, 다방면 협력 확대 기대

○ 브라질 신정부의 적극적 친미 정책, 베네수엘라 과이도 지지 선회

– **(통상)** 보우소나루 대통령, 미국과 개별 FTA 체결 준비 언급('19.6)

– **(기술협력)** 교육, 에너지, 의료, 농업, 과학기술 혁신 분야 협력

분야	세부내용
교육 협력	- '57년 양자 간 풀브라이트 위원회 통해 양국 간 인력 교류 주도 - "Education USA" 등 대학생 미국 교환프로그램
과학기술 협력	- 美 지질조사국(USGS), 항공우주국(NASA), 환경보호국(EPA), 국립표준기술연구소(EPA), 국립보건원(NIH) 등과 연구 협업을 통한 방대한 연구 데이터 구축 * 예) 브라질 119개 학교, 지카바이러스 등 질병 매핑 애플리케이션 개발 참여(NASA GLOBE 프로그램)
군사기술 협력	- 보우소나루 대통령 방미 시 브라질의 NATO 비회원 동맹국(MNNA) 지정 및 NATO 가입 가능성 언급('19.3.19), 美-브 간 방위산업대화('19.4) * NATO가입 시 브라질 미국산 무기 수입 제한 완화 - 방미중 기술 세이프가드 협약, NASA-브라질항공우주협회간 인공위성 개발 협력 MoU 체결

– **(개발협력)** USAID, 브라질 정부 및 민간과 ▲아마존 생물다양성 보존, ▲과학기술, ▲기업가 정신, ▲교육부문 사회적 투자 증가

* ('19.3) USAID-브라질 환경부, 1억 불 상당 브라질 아마존 임팩트 투자펀드 LOI 서명

* (삼각협력) 美-브라질 : 온두라스, 모잠비크 식량안보 및 농업 생산성 증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 가을 멸강충 사태 공동대응

(일본) 이민사회 기반 협력 공고화, 현지 합작회사 제3국 시장 진출

○ (양국 관계) 110년 이상 이민 역사로 양국 관계 공고화, 정상 간 방문 활발

– 브라질 내 일본 이민사회를 기반으로 기업 진출 및 산업 협력 多

* 세계 최대 재외 일본인 거주지(교민 160만 명), 브라질 국민 해외 이민 국가 2위도 일본

○ (기업진출) 1950년대부터 기업진출을 통해 현지 합작회사 중남미 등 제3국 진출 형태 완성 및 투자 다변화(자동차, 제약기업 ⋯▸ 에너지 부문)

진출시기	세부 내용 및 주요 기업
1기 ('50년대)	산업화 초기 종합상사 중심 진출, Mitsubish i社 - Ajinomoto 社('56년 진출, 브라질 내 5개 공장 운영 및 60국 수출) - Nissin-Ajinomoto Alimentos 중남미 인스턴트 라면 시장 선두
2기 ('60년대말)	인프라, 프로젝트, 정보통신 부문 등 진출 1968~1975년간 중앙은행 등록 일본기업 200여 개사 이상 - Vale 社-일본 종이펄프 개발회사(JBP) 합작 Celulose Nipo-Brasileira(Cenibra) 설립 - NE C社(정보통신기술 통합솔루션 글로벌 공급업체) 브라질 진출
3기 (2000년대)	- Nippon Steel 社, 브라질 철강 생산 비중 증가 - Japan Oil, Metals NAtional Corp. - 브라질 광물기업 협력, 아프리카 광물개발 - 에탄올 부문 일본기업-Petrobras 협력, 日 국제협력은행(JBIC) 자금지원 계획

○ **(개발협력)** JICA의 대(對)브라질 ODA 사업은 2018년 기준 38백만불 상당(40천만 엔[1])으로 주로 경제협력 증진 분야, 남남협력에 집중

▲지속가능한 도시, ▲남남협력: Japan-Brazil Partnership Programme(JBPP, 2000~)통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모잠비크 등 제3국 인력개발, 모자보건, 농업개발 등 협력
도시화 관련(환경개선, 위생, 자동차 재활용시스템, 교통 혼잡 완화, 자연재해 대응)
기후변화대응(아마존 생물다양성 보존, 지속가능한 삼림관리)

1) 2018 JICA 연차보고서(2018)

나. 한-브라질 양자협력 현황

(정부협력) 수교 60주년, 포괄적 동반자관계 수립('04) 이후 교류 활발

○ **(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협정 등 양국 간 12개 협정 체결

△이중과세방지협정('18.1), △사회보장협정('15.12),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체결('10.12), △국방협력협정('08.11), △원자력협력협정('05.7), △사증면제협정('02.05), △관광협력협정('97.11), △항공협정('97.11), △투자보장협정('95), △과학기술협력협정('92.12), △문화협정('67), △무역협정('63.05)

○ **(교류)** 브라질은 한국의 중남미 최초 수교국('59.10.31.), 한(韓) → 브라질 최초 방문('96),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04) 이후 정상 방문 활발

* (고위급 방문) 브→한 : '01, '05, '10, '19/한→브 '96, '08, '11(총리), '12, '15, '18(총리)

* (현지교민) 브라질 거주 한국인 5만 명/한국 거주 브라질인 731명

(교역 동향) 양국 교역액 88억 불 수준, 대(對)브라질 흑자규모 감소세

○ **(수출)** 감소세 2017년 회복 후 주춤 ('16)$45 ⋯ ('17)$55 ⋯ ('18)$49억 ⋯ ('19.11)$44억불

* '19년 11월 기준 반도체(9억 불), 자동차 부품(7억 불), 평판디스플레이(2억 불), 원동기 및 펌프(2억 불)

* 우리기업 제조업 투자 증가하며 중간재 비중 확대 : ('11) 전체 49.3%→('18) 82.9%

○ **(수입)** 대(對)브라질 원자재 수입 점진 증가 ('16) $34 ⋯ ('17) $37 ⋯ ('18) $39 ⋯ ('19.11) $39억

* '19년 11월 기준 식물성 물질(12억 불), 철관(9억 불), 육류(2억 불), 합금고철(2억 불), 철강(2억 불)

(투자 동향) 제조업, 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현지법인 120개 사 내외 진출

○ **(금액)** 1995~2019년 9월 누계기준 83.5억불 투자(한국의 총 해외투자의 1.7%)

* 대(對)브라질 투자는 MERCOSUR 출범('95) 계기 본격화, Brazil Cost 등 투자진출 걸림돌 다수

○ **(분야)** 제조업(42.3억 불), 광업(21.3억 불), 금융보험업(6.3억 불) 순

* 약 120개 한국 진출기업 중 절반은 자동차, 차량 또는 기계 부품 제조업(55개 사), 도·소매유통(15개 사), 서비스업(10개 사), 금융·보험(7개 사), 운송·운수(5개 사) 등

*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LG전자, POSCO, CJ 등 주요 기업 현지 생산

– **(다변화)** 단독진출 → 현지기업 지분 인수, 외국기업 합작투자로 변화

* ① 삼성, 현대중공업 현지 조선소 지분 인수, ② 포스코-日기업 브라질 광산업체 인수

(협력 분야) 제조업 및 에너지·인프라, 신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 제조업(자동차, 전자, 조선) 및 5G, IoT 활용 융합산업 협력 활성화

브라질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한-브라질 협력 현황과 주요국 동향

한국	브라질	주요국
	〈'90년대 외교정책 변화: 콜로르 대통령의 소극적 개방, 국내시장 개방형 무역정책〉	
· ('56) 한국, 브라질 첫 이민 · ('59.10.31.) 한국, 중남미 국가 중 첫 수교 · ('60s) 브라질 기술이민 본격화 · ('63) 무역, 이민협정 체결 · ('93) 한국 문민정부 수립	· '30년대 국가주도개발전략, 내부지향발전 · '64년 군사 쿠데타 후 '85년 민주화 이전까지 21년간 독재체제 · ('88) 신헌법 제정 · ('90) 29년 만의 직선제 · ('91) MERCOSUR 출범 · ('94) 외채위기, 헤알 플랜(카르도주 장관)	**(일본)** (1895) 브-日 수교 **(1908) 日, 브라질 이민 시작** **(유럽)** (1960) EU-브 수교 ('91) 북한과 외교 관계 수립
· **('96) 김영삼 대통령 순방** · **('01) 카르도주 브라질 대통령 방한,** "한-브라질 '21세기 특별동반자관계' 수립	**〈참여적 자주외교: 경제개혁정책과 무역자유화〉** 카르도주(사회민주당) 대통령 (1995~1998, 1999~2002) · 공기업 민영화, 재정긴축, 무역자유화, 서민복지프로그램 착수 · ('99) IMF 구제금융	**(유럽)** ('99) EU-MERCOSUR FTA 협상 개시
〈양국관계 활성화〉 **◎ 양국관계는 노무현-룰라 시기에 진전** · ('04) **노무현 대통령 순방,**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 관계' 격상 · **('05) 룰라 대통령 방한** · ('05) 1차 한-브라질 포럼(브라질) · ('05) 3차 한-브라질 경제협력위(한국) · ('05) 한-MERCOSUR TA 공동연구 시작 · **('08) 이명박 대통령 순방** · ('08) 호세프 당시 장관 방한 · ('09) 1차 한브라질 산업협력위(한국) · ('09) 4차 한-브라질 포럼(한국) · ('10) 2차 한-브라질 산업협력위(브라질) · **('10) 룰라, 호세프 G20 참석차 방한** · ('12) 3차 한-브라질 산업협력위(한국) · ('12) 4차 한-브라질 경제협력위(브라질) · **('15) 박근혜 대통령 순방**	**〈실용주의 노선으로 고속안정성장기: 다변화-남남협력기반 파워외교〉** 룰라 다 실바(노동자당) 대통령 (2003~2007, 2008~2011) - (경제개혁) 최초로 산업, 대외통상, 과학기술혁신정책 통합추진 · 외투유치 법제도 정비 · 수출진흥청(APEX) 신설 · PAC 경제발전정책 기간산업 투자, · **취임 후 1년간 28개국 방문, 한국 포함 다양한 국가들과 무역협정 논의** - (복지정책) Fome Zero(빈곤퇴치), 교육, 복지증진을 위한 바우처 프로그램 : Bolsa Escola, Bolsa Familia	**(중동)** ('03) 룰라 대통령, 중동 방문, 22개국과 무역협정 논의, ('06) 메-파키스탄 PTA 서명, ('07) 메-이스라엘 FTA 서명 ('11) 메-팔레스타인 FTA 서명 **(유럽)** ('04) EU-MERCOSUR FTA 협상 중단, ('10) 협상 재개 ('07, '08) 1차, 2차 EU-브라질 정상회담 **(일본)** ('04) 日 고이즈미 총리 브라질 방문 ('05) 룰라 대통령 訪日 ('08) 룰라 대통령 訪日 (이민 100주년) **(중국)** ('04) 룰라 대통령 訪中, ('09) 룰라 대통령 訪中 **('09) 중국,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
	〈경제위기, 부패, 리더십 실패로 탄핵〉 호세프(노동자당) 대통령 (2011~2014, 2015~2016.8) 전임정부 정책 계승, 개혁 시도 · ('14) 브라질 월드컵	**(중국)** ('12) 中 원자바오 총리, ECLAC 방문 중 대(對)중남미 차관 (100억 불) 제공 발표 **(일본)** ('14) 日 아베총리 방 브라질

부록

	· ('16) 리우 올림픽 · ('14~'16) 부패스캔들, 탄핵	
· ('18.5) 한-MERCOSUR TA 협상 개시 · ('18.9) 한-MERCOSUR TA 1차 협상 · ('18.12) 한-브라질 산업협력 포럼	**〈반부패 개혁정책과 민영화〉** 테메르 (민주운동당) (2016~2018) · 정부지출 감축 · 연금 개혁, 교육보건 제도 개혁 · 민영화, 인프라 투자중심 성장 · 대외개방 · ('17.5) OECD 가입 신청	**(일본)** ('16) 테메르 대통령 訪日 **(유럽)** ('17) EFTA-MERCOSUR 무역협정 협상 개시 **(중국)** ('17) 중국-브라질 인프라 투자 펀드(200억 불) 조성 **(캐나다)** ('18) 캐나다-MERCOSUR 무역협정 협상 개시 **(싱가포르)** ('18.7) 싱가포르-MERCOSUR 무역협정 협상 개시 **(칠레)** ('18.11) 브-칠레 FTA 서명
('19) 한-MERCOSUR TA 2차(4월), 3차(7월), 4차(10월) 협상 ('19.5) 한-MERCOSUR 산업협력포럼 ('19.7) 보우소나루 대통령 방한 **⇒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중남미 경협전략 필요**	**〈경제위기 후 재도약〉** 보우소나루(사회자유당) (2019~2022) · 테메르의 개혁개방정책 계승 · 친미주의, 중국견제 표방하며 밸런스 외교	**(미국)** ('19.3) 보우소나루 訪美 ('19.5~6) 美, 英, 브라질 OECD 가입 공식지지 **(유럽)** ('19.6.28.) EU-MERCOSUR FTA 20년 만에 타결 **(중국)** ('19.11) 11차 BRICS 정상회의 개최(브라질) 및 신개발은행(NDB) 지역사무소 설치 예정

주 : MERCOSUR는 주로 룰라 행정부 1기('04~'06)를 전후로 다양한 국가들과 무역협정 협상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후 한-MERCOSUR TA를 포함 중단된 무역협상은 테메르 행정부 이후 급격하게 재개되는 양상을 보임.

다. 한-브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브라질의 핵심정책 및 산업협력 수요 분석

○ **(신정부 개혁정책)** 부패 스캔들로 인한 탄핵 이후 출범한 보우소나루 신정부('19.1~)는 연금 개혁, 반부패, 개방 등 강도 높은 개혁 추진

* 최우선 국정과제로 치안 강화, 인프라 효율성, 교육의 질, 실업 문제, 개인 자산 및 복지 지원 등을 지목하고 ① 부패척결, ② 보건교육, ③ 경제성장을 주요 액션 플랜으로 설정('18)

브라질 신정부 분야별 세부목표[2)]

① 교육의 질 제고	학교 증설, New Path program(직업훈련), 디지털 학생증 발급 등 교육품질, 디지털 연결성 제고
② 국민 존중 강화	취약계층 지원(13차 Bolsa Familia), 베네수엘라 난민, 가정폭력, 지카바이러스 치료, 장애 지원
③ 국민 보건 행동	외곽지역 포함 의료서비스 지원, 질병 예방 모니터링 프로그램, 통합의료시스템(SUS) 강화
④ 치안강화, 범죄감소	살인률 및 도난 감소, 승용차 및 화물차 도난 감소, "범죄예방 패키지", 부패, 마약밀매 예방
⑤ 성장주도의 농업	농업 생산성 증대, "AgroNortheast"(북동부 농업기술,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신규 시장(중국, 중동 등)
⑥ 공공부문 투명성	정부부처 통폐합, 503개 신규 온라인 서비스 예산 절감, 사회보장 개선, "Operation Lavajato"
⑦ 인프라 효율 개선	27개 기관 민영화, 고속도로 프로젝트, 12개 공항 및 철도, 항만 등 입찰로 효율성 제고
⑧ 대외관계 확대	대외개방으로 고립탈피 및 국제 신뢰 회복 : EU 간 FTA, 미국, 이스라엘, 중국, 중동 관계 확대
⑨ 경제성장세 회복	금리 및 인플레이션 감소, 연금개혁(10년간 1.2조불 절감), Economic Freedom Act, 금융 시스템 개선으로 브라질 자본 외국인 투자자 참여 증대, 가스 시장 개방(Petrobras 붕괴)
⑩ 과학기술 / 환경	미-브라질 기술보호협약('19.3), Industry 4.0 대응 계획 / 아마존 및 해양환경 보호

- **(시장 개방)** 20년 만에 타결된 EU-MERCOSUR FTA는 브라질 정부의 개혁개방 노선 모멘텀으로 작용[3)], 한국 등 추가 협상 진행
- **(반부패, 정부 효율성)** 부패 스캔들 계기로 기존의 브라질 및 유럽계 유력 기업 영향력 축소, 외국기업 진입 가능성 확대
- **(생산성 향상)** OECD 가입 목표로 생산성 증가, 성장 동력 다변화(1차 산품→고부가가치산업 전환)를 통한 경쟁력 향상 수요
- **(사회적 경제, 포용적 성장)** 빈곤퇴치, 교육, 임팩트 투자 등 사회 문제 해결 노력

ㅇ **(협력유망산업 도출)** 브라질 신정부의 정책목표 중 한국의 지원 역량을 최적화할 수 있는 수요를 선별(기존 정부 간 논의 분야 반영)

- ① 제조업, ② ICT 융복합 산업, ③ 바이오헬스(보건의료), ④ 에너지·인프라, ⑤ 농업의 5대 협력 유망분야를 도출

2) 브라질 정부 공식홈페이지(https://www.gov.br/pt-br/noticias/acoes-2019) 2019.12월 자료 및 신정부 정책자료(2018) 기반으로 작성

3) MERCOSUR(MERCOSUR)의 기체결 FTA 대상국은 이스라엘, 이집트 수준.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내향적(inward)국가로 세계 8대 경제대국임에도 불구, 현재 무역 비중이 GDP 대비 20% 미만으로 대외경제비중이 미미한 수준

세부목표(수요) 선별 후 한국의 강점과 역량을 매칭

산 업	브라질 협력 수요	우리나라의 역량
제조업 (자동차 등)	■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세계 3위 항공사 ■ 자국 내 기 술혁신 통한 생산성 향상 수요 多	■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 5위('16년) ■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 신산업 육성 정책
I C T 융복합신산업	■ 풍부한 젊은 노동력, 다양한 자연환경 ■ 산업 IoT 정책 등 국가 차원 산업 다변화 노력	■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등 ICT 선진국 ■ 기술전수를 통한 인력양성 가능
보 건 의 료	■ 인구 2.1억, 의료시장 지속 성장(57억 불) ■ 시장성에 비해 의료자원 부족	■ 선진 의료시설 및 인력 보유 ■ 스마트의료, 의료단지 운영 노하우 풍부
에너지 인프라	■ 신정부의 강력한 민영화 개방 정책 ■ 인프라 확충 및 효율성 제고 수요 多	■ 세계적 수준의 사회 인프라 ■ 신재생 산업기술 수준은 평균 81%
농 업	■ 전체 노동인구의 30%가 농업에 종사 ■ 세계 최대의 농업연구소(EMBRAPA) 보유	■ 스마트농업 등 융복합 신산업분야 경험 ■ 연구 경쟁력(세계 9위)은 있으나 산업 연결 미흡

(최근 양국 G2G 레벨 회담에서의 주요 협력 논의 분야)
TA, 교역투자, 에너지, 보건의료, 교통, 환경, 전자상거래, 문화교류, 금융(핀테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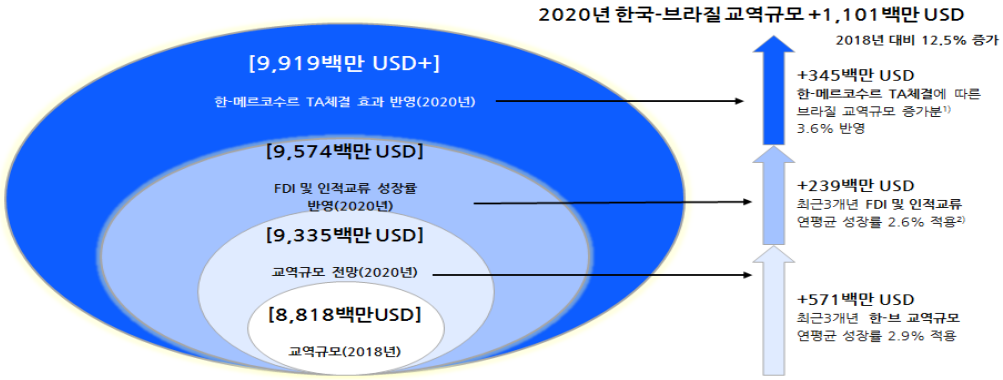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TA 발효 3년차, 교역액 100억 불 달성 목표

○ **(설정근거)** 무역규모 성장세(연평균 3.6%)에 무역협정(TA) 체결 효과 반영

교역액 목표설정 근거

◈ TA 발효 3년차 양국 교역 100억불 달성 (세계 교역규모 13위)

〈TA 발효 3년차 한국의 대(對)브라질 교역규모 전망〉



주1 : 2018년 기준 2035년 한-MERCOSUR TA체결 기대효과(對브라질 수출 38.4%, 수입 30.9%, 2개년 성장률 3.6%
주2 : FDI 투자금액 2016년 수준 가정 시 3개년 연평균 성장률 1.3%, 인적교류 성장률 3.8%의 평균값

수교 60주년 계기, 혁신 성장 파트너로서 새로운 협력 기반 마련

○ **(혁신성장 파트너)** 브라질은 생산성 향상, 혁신성장에 대한 높은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한국과 공통된 관심사 보유

– 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양국 간 특화된 협력 관계 설정 필요

○ **(협력플랫폼 재개)** 2015년 이후 중단된 한–브라질 산업협력위원회 재개 및 산업간 세부 논의를 위한 정기 협의체 구성

– 양국 간 산업협력위원회 및 한–브라질 IT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 협력 시범사업 운영 및 연관 후속 사업 진행 필요

* 양국 산업협력위('15) 자원위('15), 농업위('08), 과학기술공동위('11) 중단상태

* 韓 과기부, 정보화진흥원(NIA) – 브 과학기술혁신통신부, 국가통신연구소(INATEL) 간 협력으로 한–브라질 IT 협력센터 3년간 운영('1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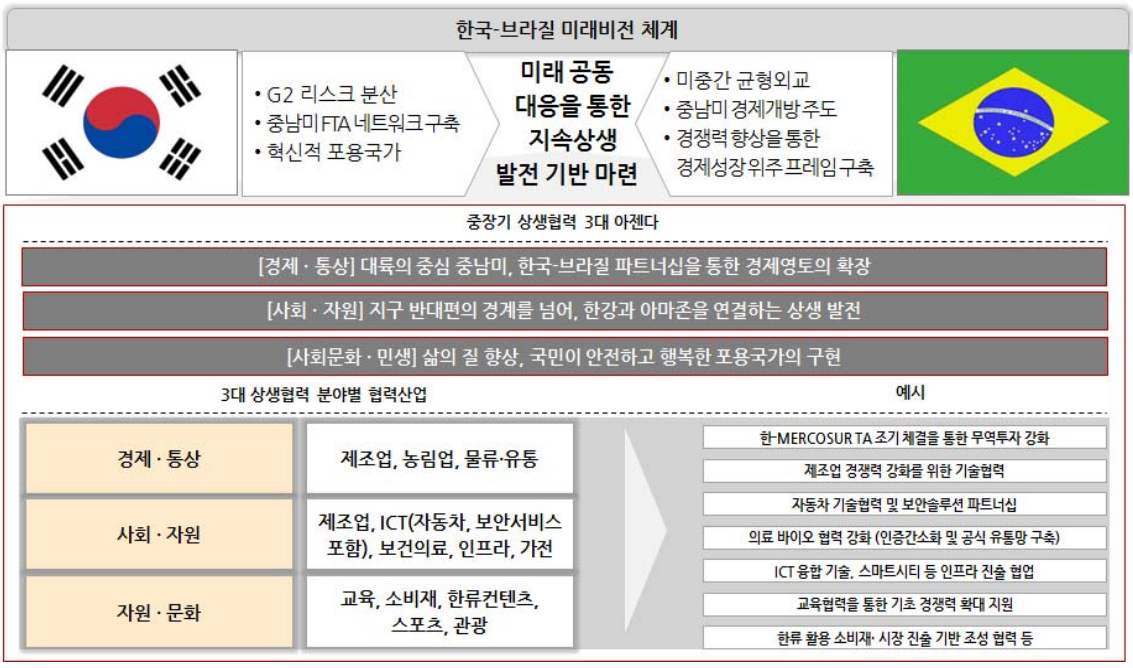
한-브라질 협의체 운영 현황

종류	개최 현황	주요 의제
산업협력위원회 (설립합의, '08.11)	- ('09.09) 1차, 한국(차관급) - ('10.09) 2차, 브라질(실장-차관) - ('12.05) 3차,한국(장관급) ('13.10), 4차, 브라질(실장-차관) - ('15.12) 5차, 브라질, (차관보-차관)	- (무역) △한-MERCOSUR TA, △해양 플랜트, △주류 등 수입서류 간소화, △통상협력사절단 파견 - (산업) △공동기술개발협력(바이오 플라스틱 등), △혁신산업단지, △에너지(바이오 연료), △타이어, △라텍스, △표준 적합성, △인증, △특허, △녹색성장, 저탄소 경제협력 등
자원협력위원회 (설립합의, '04.11)	- ('05.05) 1차, 한국 - ('07.12) 2차, 브라질(장관) - ('15.12) 3차, 브라질(차관보)	- △광물, △석유 및 석유화학, △바이오 에탄올, △원전, △에너지 라벨링 등
농업협력위원회 (설립합의, '05.05)	- ('06.02) 1차, 브라질 - ('08.08) 2차, 서울(국장급)	- △바이오 에너지, △생명공학 기술협력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설립합의, '04.11)	- ('04.11) 1차, 브라질(국장급) - ('05.07) 2ㅅ차 및 공동 심포지엄, 브라질 (장관) - ('11.08) 2차, 한국	-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 신설 - △생명공학, △원자력, △항공우주, △정보통신, △교통, △기초과학
산림협력위원회 (설립합의, '12.6)	- ('13.08) 1차 회의, 브라질(국장급) - ('15.09) 2차 회의, 남아공(국장급)	- △산림 제도, 투자정보 공유, △열대우림 공동연구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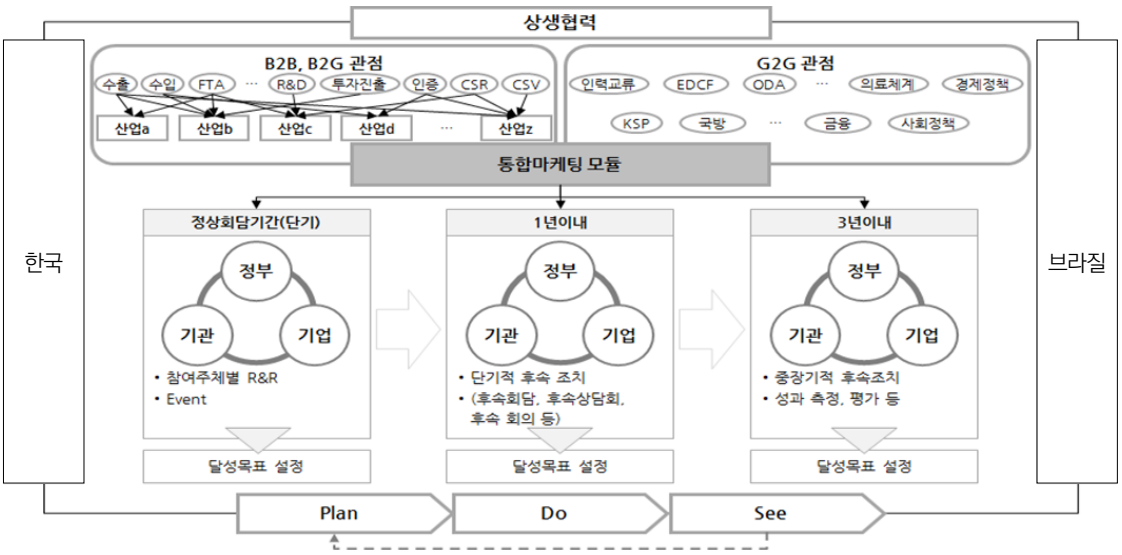
한-브라질 미래비전 및 실현 전략으로서의 K패키지

경제협력 대상국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최대 성장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국가와의 경제협력 다변화를 추구하는 브라질과 전략적 협력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대상뿐만 아니라 그 분야와 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 간 경제협력을 통한 미래 공동 지향점 설정

*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외교, 안보, 정치 및 문화 등 분야는 추가 반영 필요



한-브라질 비전 달성을 위해 양국 정상회담을 모멘텀으로 한 단기-중장기 계획수립 및 실행 필요



부록

Ⅱ.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범정부 차원의 한-브라질 협력 확대 정책 마련

〈전략적 동반자〉 양국 간 협력을 통한 전략지역 진출 네트워크 기반 확보

주 : 한국과 FTA 발효국가 지도표기(브라질 제외)

1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 **(정책수요)** 브라질 신정부, 개방경제 및 협력대상 다변화 정책 수행

– EU-MERCOSUR FTA 타결, 브라질-멕시코 간 양자 FTA 논의 등

* 한-MERCOSUR 협상 개시('18.5), 1차('18.9), 2차('19.4), 3차('19.7), 4차('19.10)

* EU-MERCOSUR FTA 20년 만에 타결('19.6)

○ **(기업수요)** 양국기업 대상 우선 협력분야 설문조사 결과, 교역확대 및 무역협정 조기체결이 최우선적으로 높은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한국(67개사)	교역확대 등 54.5%	4차 산업 11.5%	기술협력 8.6%
브라질(56개사)	교역확대 등 75.8%	기술협력 26.1%	4차 산업 11.5%

주 : 2019년 6월, KOTRA 설문조사결과, 2개씩 복수응답

– 양국 협력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양국기업 모두 높은 관세와 직간접 수입규제를 1순위로 선택(韓 27.0%, 브라질 53.2%)

* 우리기업들은 이어서 인증(23%), 운송 유통 인프라(17.9%), 복잡한 절차(9.7%) 등을 어려움으로 답변, 반면 브라질 기업은 주로 수입규제 애로만 지적

* (Brazil Cost) 우리기업은 Brazil Cost로 불리는 브라질의 고관세와 내국세, 인증허가 등에 따른 진출 어려움과 투자진출 시 환율 리스크 호소

– 한-MERCOSUR TA 협상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양국기업은 모두 관세인하를 1순위로 선택(韓 36.4%, 브라질 41.0%)

* 그 밖에도 우리 기업은 통관 간소화(27.8%), 정부조달 시장 개방(10.1%) 등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질 기업의 경우 통관 간소화(17.6%)에 이어 기술협력(16.4%)에 높은 관심을 표명

양국 간 무역협정 미체결에 따른 협력 기회 축소·박탈 사례

(예시1) 브라질의 높은 관세 및 내국세로 인한 우리 제품 경쟁력 상실
우리 소비재 제품의 경우 관세 및 유통세 등 각종 세금을 합한 최종 소비자 가격이 한국 소비자가의 6~8배에 해당 → 경쟁력 상실

(예시2) G2G 기술협력을 위한 통신장비(IT 협력센터)에 대해서도 고관세 부과

○ **(협력방안)** 개방화 모멘텀 활용, 호혜적 성격 강조로 협상력 강화

* MERCOSUR 협상 재개국가 : EFTA[4]('17), 한국('18), 캐나다('18), 싱가포르('18)

* 브라질 양자 FTA: 브라질–칠레 FTA('18.12), 브라질–멕시코 자동차 ACE55('19)

– 브라질 산업계를 포용할 수 있는 win–win 전략 통해 협상력 강화

* 한–MERCOSUR 무역협정 관련, 현지 산업계는 강한 반대 입장 표명 중(무역관)

- EU-MERCOSUR 무역협정 타결('19.6.28): 쟁점 분야인 자동차·부품, 농식품 분야 이견 및 브라질 산업계의 반대 등으로 협상 20년째 지속되다 타결
- 브라질 산업연맹(CNI)-일본 경단련 중심 산업계, 양국 간 무역협정 필요성 촉구('18)

* 브라질 내 일본 교민과 진출기업의 영향력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 한–브라질 산업협력위원회 재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IT 협력센터 등을 통한 양국 간 구체적 협력 채널 활성화로 분위기 조성 필요

2 상호 인증 협력기반 구축

○ **(정책 수요)** 브라질 정부,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공공조달 형태의 타국과의 협력수요

–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연방 규제당국으로부터 인허가 취득이 필수

☞ G2G 레벨 인증 분야 기술협력, 상호인증, 인허가 취득지원 기반조성

○ **(한국 역량)** KOTRA – 브라질 인증기관 INMETRO - KTR 공동으로 양국 **인증 분야 협력기반 구축 및 운영**(韓전문가 현지 파견)

○ **(기업수요)** 한–브라질 인증 간소화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우리기업들은 인증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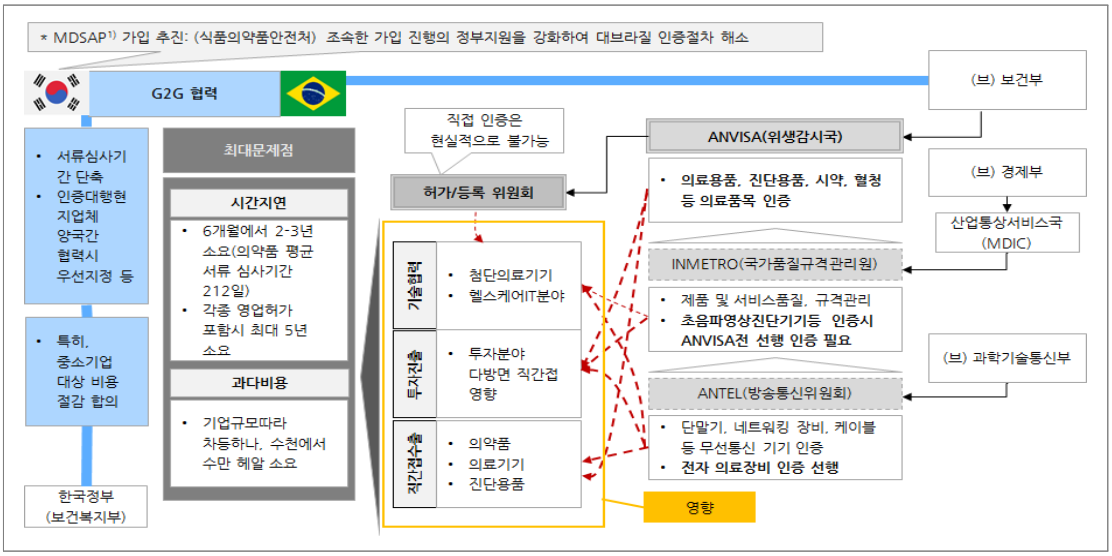
* 자동차 부품사 담당자는 "인증 간소화로 상황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상당 시간 소요되어 체감효과는 적은 편, 인증 대상 품목 축소와 리드 타임, 프로세스 간소화 절실"('19.7)

4)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非) EU 회원국 모임으로 '17년 MERCOSUR 협상 재개 2년만에 체결 합의('19.8)

○ **(협력방안)** 韓 산업부, KTR 등 유관기관과 브라질 규제 당국인 INMETRO(전자), ANVISA(의료) 레벨에서의 협력 구체화

☞ **(기술협력 강화)** 전문가 인적 교류, 인증 애로사항 협력 세미나, 공동위원회 등
☞ **(통상연계형 개발협력 활성화)** 본격적인 인증 분야 표준화 협력 목표로 무역협정 협력 챕터 등에 해당 부문 기술협력 포함
☞ **(협력 품목 확대)** 표준화 협력을 바탕으로 인증 완화 품목군 확대 등

인증분야 협력 강화 전략



한-브라질 인증 분야 G2G 레벨 협력

◈ **한-브라질 산업협력위원회('09.9) 계기 기술표준원-INMETRO 간 협력 MoU 체결**

◈ **양국 산업부 간 한-MERCOSUR TA 관련 전자·가스·자동차 등 품목 기술규제/인증에 대한 협상 진행 중**
* 브라질 인증기관(INMETRO)의 경우, SUB 그룹으로 참여 중

◈ **KOTRA - 협력 MOU 체결('15, '17년)**
- ('15.10월) KOTRA-INMETRO 협력 MOU
- ('16.9월) INMETRO에 전자파 적합성 평가 장비 기증(통상연계형 경협사업)
- ('17.5월) KOTRA-INMETRO 협력 확대 MOU 체결
  * 기존 전자분야 위주에서 의료 분야로 기술규제 완화 및 인증 협력 확대

◈ **양기관 대표 면담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추진('18년)**
- 대(對)브라질 인증 애로사항 및 진출수요 조사
  - 내용 : 브라질 진출(수출 포함) 시 인증 애로 주요 분야 및 애로 사항
- 브라질 인증 (진출) 안내자료 한국어판 제작
  - 내용 : 포어(또는 영어) 브라질 인증 안내 자료의 한국어판 제작
- 양국 인증 협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인적 교류 확대 추진(2~3주간)
- INMETRO 대상 인증 유휴 장비 이전 사업(CSR 또는 KSP 일환) 추진

◈ **KTR은 인증 취득 기업 수요를 직접 받아 이를 지원(B2G)**

3 KSP 등 활용한 후속 사업 연계

○ **(정책수요)** 브라질과 KSP사업은 주로 산업단지개발, 스마트시티, 농업, 중소기업, IT 정책 수립 등 제조업 및 산업 발전 관련 내용

* 현지 정부가 사업 주제를 신청하고 한국이 선정하는 KSP 사업은 브라질 정부의 정책 수요와 한국과의 기대 협력 방향을 직접 파악 가능한 최적의 프로그램

> 기술 혁신과 자체 제조업 역량 강화는 브라질의 산업 정책 우선순위, 특히 자원의존도를 줄이고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역량 배양과 기술 혁신이 더욱 중요

– 브라질은 한국의 ODA 비대상국으로(양국은 ODA 공여국), 경제 협력사업인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통해 사업 진행 중

* 일본은 JICA 브라질 사무소 운영 중으로, 대(對)브라질 투입금액 40.7억엔(2017년 기준)

그간의 대(對)브라질 KSP

연도	사업명	세부내용	수행기관
2011/12	브라질 수출가공지역(EPZ) 개발정책과 실제 : 한국사례와 지식전수의 시사점	•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및 수출증진 정책 • 브라질의 EPZ 개발정책 • 한국의 EPZ 개발과 브라질에의 함의	• (한) KDI, 무역투자연구원, KIEP, KOTRA • (브) 북동부 경제개발기획청
2012/13	브라질 수출가공특구(EPZ) 개발 및 운영방안	• 브라질 수출가공특구(EPZ) 현황 분석 • 한국의 경제특구 변천 및 성과 • 한국 산업육성정책과 브라질 EPZ 발전방안 • 브라질 수출가공특구 내 중소기업 육성방안	• (한) KDI • (브) 개발상공부(MDIC) 수출가공특구위원회
2013/14	브라질 농업 역량 강화	• 소농의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 시설재배와 자동화 : 원예 분야 생산성 제고 • 소농 농산물시장 수확 후 관리 차별화 방안 • 한-브라질 농산물 교역 확대 전략	• (한) KDI, 서울대학교 • (브) 농업연구청 (EMBRAPA)
2018/19	브라질 IT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 브라질의 산업 및 IT 개발정책(WTO • 한국의 IT 개발정책과 • 브라질 IT산업 개발을 위한 정책제언	• (한) KOTRA, KISDI • (브) 경제부(MDE), 과학기술혁신통신부(MCITC)
2019/20	브라질 산업재산권 자동화 시스템 개선 지원	• 산업재산권 자동화 시스템(SISCAP 및 SINPI) 개선 지원을 위한 정책컨설팅 및 관계자 역량 강화 등 • 산업재산권 체계 효율화로 지재권 인프라 선진화	• (한) KOTRA, 특허정보원 • (브) 특허청(INPI)
2011	(IDB 공동컨설팅) 중남미 3개 도시(브라질 고이아니아 포함) ICT 환경분석 및 정책권고	• 고이아니아市 개발을 위한 액션플랜 우선순위 광섬유케이블 연장 및 설치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교통 시스템 설치	• IDB(미주개발은행) • (한) 수출입은행, 국토연구원, 제이티, 삼성 SDS, KT
2012/13	(IDB 공동컨설팅) 브라질 저소득층 대상 중소기업 육성 사업	• 브라질 북동부의 소상공인 및 미소기업 개발을 위한 포괄적 비즈니스 모델의 시행 – 제라도 은행 비즈니스 모델 수립	• IDB(미주개발은행) • (한)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연구원

주 : 관료주의적 행정으로 인해 브라질에서의 상표권 취득은 평균 30개월, 특허권은 5년이 소요되며 현지 진출 외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자료 : 기존 자료 종합하여 저자 가공

① 수출가공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

– (주요 제안내용) 상대적 저개발 지역인 북동부 지역 수출가공특구 개발을 위한 한국 사례 벤치마킹, 각 지역 유망 육성사업 제안

* 중소기업 진흥, 수출증진을 위한 수출진흥청(APEX), 중소기업진흥청(SEBRAE)의 역할

– (후속) 수출가공특구 내 포스코–동국제강–현지기업 합작 기업 입주

국가	주요 연계기관
	- (기관) KDI, KIEP, 무역투자연구원, KOTRA,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대덕 Innopolis, 인천, 대불, 마산, 울산 산업단지
	북동부 경제개발기획청(SUDENE), 개발상공부 국가수출가공특구위원회(CZPE/MDIC) 지방 정부 : Pernambuco州, Alagoas州, Bahia州, Sergipe州, Maranhao州, Ceara州

② IT정책 발전 및 혁신

– (주요 제안내용) 자국 정보법(Lei de Informatica)의 WTO 피소 이후 신규 IT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수립 제언, 산학연 연계전략 등 제언

– (후속) 2018/19 브라질 IT 정책자문 최종보고회('19.8)와 연계, 우리 IT 기업 현지 상담회 개최 및 브라질 및 중남미 관계자 초청 세미나

국가	주요 연계기관
	- (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KOTRA, 서울대학교, Invest Korea,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업) 브라질 IT 포럼 및 상담회 참석 기업(KT, 바이오헬스코어, MARVRUS, JPD 등
	- 경제부(혁신국), 개발상공부(경제부로 통합) 과학기술혁신부(MCTIC), 마나우스자유무역지대, 전국산업연맹(CNI), Eldorado Institute(비영리기술연구기관), P&D Brasil(R&D 투자진흥기관)

③ 스마트시티 개발(고이아니아市 개발사례 : IDB 협력 사업)

– (주요 제안내용) 광섬유케이블 연장, 통합모니터링, 교통 시스템 설치

* 교통·범죄 해결을 위한 7개 스마트시티 서브 시스템 제안(송도, 안양모델) : 적응식 교통제어, 첨단교통정보, 자동단속시스템, 버스 정보, 돌발상황, 방범, 재난방지시스템

– (후속)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에서 후속연구 진행('15, '16~)

국가	주요 연계기관
	- (기관) 국토연구원, 수출입은행, (기업) 제이티, 삼성 SDS, KT, JT,
	- SNDUSCON(고이아스 건설산업협회), ADEMI(고이아스기업협회), AMTEX(시정부 과학기술혁신협회), SETURDE(관광환경개발부), SEPLAM(시정부 도시화계획부), CMTC(대중교통 관련 기업) 등

○ **(향후 제안)** K패키지 실행력 제고를 위한 주요 아젠다별 KSP/ODA 실행

►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등 현지 및 우리 정부 관심 사업 중심으로 유망 산업 발굴**

► **전략적 삼각협력(양국 ODA 활용)으로 중남미 공동 진출**

– 브라질은 美·日 등과 협력 중미(온두라스),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 삼각협력 기 진행 중, 중소기업 협력, 과학기술 농업역량 강화, 직업훈련을 위한 제조업기술 역량배양 등 유망

► **(국제기구 협력)** IDB(미주개발은행)등 국제기구와 정례협의 통해 협력사업 발굴, IDB의 한국신탁기금 활용 스마트시티, 인프라, 과학기술협력, 교육산업역량 개발 등 사업 추진

주요사례 - KSP사업의 후속 사업 연계

■ **(도미니카공화국) 한국전력의 KSP, EDCF 연계 및 IDB 프로젝트 입찰 수주 사례**

- 한국전력은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의 배전망 개선사업(IDB 자금, 4,500만 불 규모)을 수주하며, 우리 정부의 IDB 가입 이후 최초의 IDB 차관사업 수주 사례를 달성

KSP	후속 사업 연계	IDB 등 프로젝트 수주
· 한전, 전력설비 KSP 참여 · ('09) 수출기반시설과 전력체계 개선(EDCF 국가지원전략)	· KDI-World Bank 공동 연구 · 수출입은행 EDCF 사업	· 1차 배전 EPC 사업('11~'14) · 2차 배전 EPC 사업('16~'18) · 3차 배전 EPC 사업('18~'20) * 2차 : OPEC, 3차 : WB 자금

나. [G2B, B2B] 기술협력 통한 상생발전

1 제조업

○ **(시장 수요)** 브라질은 자동차, 반도체를 제조업 발전 동력으로 선정, 정부 차원의 해당 육성정책 추진을 통해 연관 산업 및 시장 확대

* 산업단지 발달, 산업진흥정책 등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가공특구(EPZ) 등 조성

브라질 경기침체와 제조업 위기론

◈ **(제조업 위기론)** 제조업 경쟁력 하락에 대한 반성 및 개선 수요

- 브라질 전국산업연맹(CNI), '17년 브라질의 전 세계 제조업 점유율 30년 만에 처음으로 2% 이하(1.98%)를 기록(기존 점유율 3% 안팎 유지)
- ▲인프라 부족, ▲법·제도적 불안정성, ▲과도한 관료주의, ▲복잡한 조세제도 등 고질적인 Brazil Cost가 제조업 경쟁력 하락, 경기침체가 제조업 비중 위축을 가속

* 브라질 글로벌 제조업경쟁력 지수 하락 : ('10) 5위 → ('13) 8위 → ('16) 29위

◈ **Industry 4.0을 통한 브라질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회복 노력**

- 브라질 정부, 자국 기업의 15%가 8년 내 Industry 4.0을 실현하도록 86억 헤알(2조 6천억 원 상당)을 산업근대화 인센티브로 제공할 예정

○ **(시장 역량)** 글로벌 제조기업 진출 및 항공산업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해 있으나 최근 전체 제조업 지수 하락세

* 자동차 세계 10위 생산국, 세계 3위 수준 자국 항공사 보유 / 제조업 경쟁력지수 하락

– **(중간재 수요)** 경기 회복 및 제조업 재활성화에 따라 중간재 수요 증가 전망

* 브라질 내 다국적 기업 진출로 생산기반 마련, 브라질 가전시장 세계 5위(제조업 부문 FDI 비중 전체의 37%), 삼성 판매량 1위, LG 4위

– **(역내 생산 체인)** MERCOSUR 관세동맹 회원국인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을 중심으로 생산 체인 구축

*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파라과이 등지에서 생산 후 브라질로 수출

– **(GVC 편입)** EU-MERCOSUR FTA 및 추가 FTA가 가시화될 경우 브라질 국내뿐 아니라 유럽, 미국 등으로 GVC 구축 가능성 확대

○ **(협력 현황)** 우리기업 현지 진출 및 기술협력은 대기업 주도 양상

– **(현지 진출)** 대(對)브라질 투자는 대기업-협력업체 동반진출 양상

* 지리적 한계, 언어·문화 장벽 및 Brazil Cost로 중소기업 단독진출 비용 부담

* '11년 현대차 생산공장 건설과 함께 현대모비스, 다이모스, THN 등 동반진출

– **(기술 협력)**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브라질 정부의 투자진출 세제 혜택 및 R&D 투자 의무화 등에 따라 우리 대기업이 협력 주도

* 삼성전자, LG전자, 동국제강-포스코 등이 현지 공동 연구소 및 합작회자 운영

우리 대기업 제조업 상생협력 사례[5)]

◈ **[삼성전자]** 마나우스 TV / 휴대전화 R&D 센터 자체 운영, 외부 민간연구기관 공동 기술개발센터 운영: ▲CESAR 연구소 공동으로 '삼성/CESAR 과학기술협력연구소' 설립('06), ▲Instituto Reconcavo de Tecnologia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

◈ **[LG전자]** 현지 연구기관 파트너십 구축 R&D ▲BRISA(정보통신연구기관)와 협력관계 구축('02), ▲CESAR-파트너십 구축('06), ▲쿠리치바 소프트웨어 단지 내 소프트웨어국제기술센터(CITS)와 솔루션 개발 계약('06), ▲캄피나스 통신개발연구센터(CPqD) 공동 기술개발 투자('06) 등

◈ **[동국제강-포스코]** 브라질 광업회사(Vale) 공동출자(30:20:50)로 북동부 베셍 산업단지(CIPP) 내 합작법인(제철소) 가동('16.6)

* 참여 업체별 역할 분담(철광석 공급/제철소 건설 및 운영기술 /생산된 슬래브 50% 이상 구매) 통해 생산 체인을 구축한 **최고의 산업 협력 사례로 평가**

우리 중견기업 제조업 상생협력 사례

◈ **[사례1] 브라질의 변화하는 산업정책을 활용하고 지역 혁신에 기여**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H 社), 브라질의 Parit 社 JV(50:50) 설립,
양국 정부와 대학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기업 간 협력기반 마련

* 브라질 정부의 반도체산업 지원정책[6)]으로 세금감면 및 부지 무상제공(10년 장기)

* 인턴십, 고용기회, 연구 프로그램 통한 산학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전략

** 협력 파트너 물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첨단기술산업 육성 동기 강한 현지 기업, 세제 혜택과 토지, 인력수급 가능성, 물류 인접성 등을 고려

◈ **[사례2] MERCOSUR 역내 생산 체인을 활용한 제조업 기업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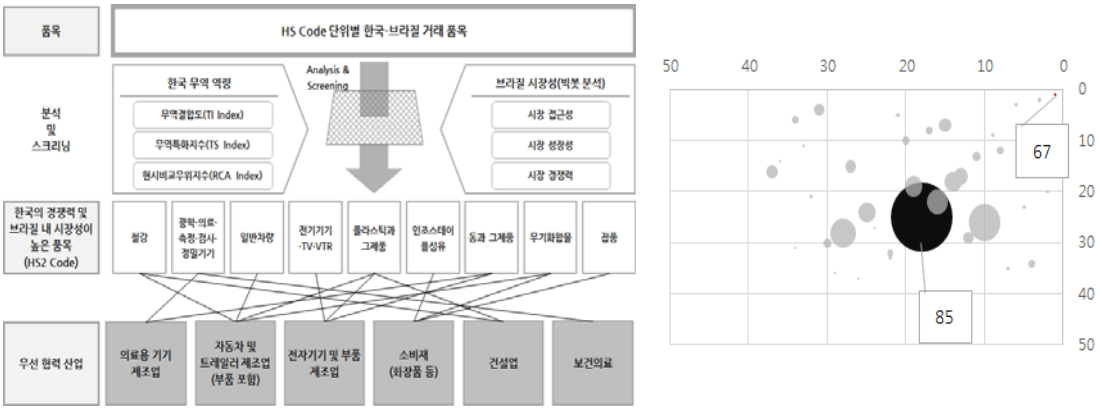
* 자동차 부품 업체(T 社)로 대기업과 현지 동반진출 후, 현지 진출 여타 전자제품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관세동맹의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파라과이 마킬라 지역에 생산법인을 통해 브라질 시장 진출 박차

* 파라과이는 저소득국으로 MERCOSUR 원산지규정 적용 비중 40%, 브라질 현대자동차 공장까지 실제 운송시간 단축(24~25시간) 및 비용 절감(중국 수준) 효과

5) KIEP(2019), "한-브라질 수교 60주년 :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13p., KIEP 기초자료 19-17
6) 반도체 투자기업 세금감면제도(PADIS) 등을 통한 ICT 제품 생산 및 개발 장려

○ **(협력 확대방안) 전기기계, 기술협력, 다국적 기업 등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내 기업 연계 확장**

– **(유망품목)** 한국 무역 역량과 브라질 시장성이 모두 높은 항목으로 전기기기(HS code : 85), 철강(72), 인조섬유(55), 유기화학품(29) 등



주 : KOTRA 자체분석('19)

– **(기술협력 합작 파트너)** 브라질 기업은 한국 기업의 최대 강점을 기술경쟁력으로 꼽고 있으며, 양국 기업 간 기술협력에 높은 관심

브라질 기업 대상 설문조사(2019.6) 결과

설문내용	1 순위	2 순위	3 순위
한국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에서 기대하는 바	기술협력 (30.0%)	신시장 및 신규 고객 확보 (29.2%)	신제품 개발 (26.7%)
한국의 타 국가 및 기업 대비 강점	기술경쟁력 (43.8%)	품질경쟁력 (34.7%)	가격경쟁력 (14.0%)
한국의 타 국가 및 기업 대비 약점	문화 및 현지 관습 이해 부족 (36.5%)	현지시장 이해 부족 (25.2%)	가격경쟁력 부족 (17.4%)

– **(다국적 기업 협업으로 네트워크 활용)** 현지 진출 글로벌 및 브라질 다국적 기업(물티라티나스)과 협업하여 기존의 산학연 프로그램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대중소 기술협력 시행

* 브라질 물티라티나스는 자국 내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연 프로그램 시행중

* Embraer社(항공기제작사) – 항공기술기관(Instituto Tecnologico de Aeronautica) 협업

물티라티라스 : 2000년대 부상한 중남미 다국적 기업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 자원,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로 평가

[신산업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안(예시)]

세부 협력방안	참여 주체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한 전략적 기술 제휴	
-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 기술개발 협력 등 기술 제휴협약 - 양국 기업 간의 전기차 핵심 부품 개발 및 성능 향상 (에너지 배터리 등) - 한국 전기차 부품회사 부품 현지 조달 및 공급망 확충	(한) 자동차· 부품업체, LG 화학 및 에코프로 등 (브) 자동차 조립업체
친환경 자동차 합작투자	
원가절감, 라인업 확충을 통한 생산 증대 등의 합작투자 목표 설정, 브라질 내수시장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친환경 이동수단 개발	(한) 자동차, 부품업체 (브) 조립업체
전기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투자진출)	
정부 간 협력 하 법·제도 마련, 전기자동차 인프라 개발구역 지정, 국내 전기자동차 인프라 관련 업체의 투자진출	(한)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전력, 전기 자동차 인프라 관련 기업 (시그넷,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등) (브) 인프라부, 자동차협회 등
산업용 로봇 기술제휴	
빠르게 성장하는 브라질 스타트업과의 합작투자 혹은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브라질 기업 및 대학 연구소가 최근에 개발한 기술 등을 제휴함으로써 동반 성장 가능	(한) 국내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뉴로메카, 티이에스 등), 한국로봇산업협회(KAR), 연구기관(KAIST 및 UNIST 등) (브) 산업용 로봇 기업(스타트업 포함), 관련 분야 대학 연구소

○ **(협력 체계) 투자진출기반 양국 주력 기업 중심 협업 기반 조성**

단계별 방안	자동차 분야	기계장비/로봇
협력 프레임	현대 등 대기업 중심으로 브라질 멕시코시장점유율 확대 → 부품, 보수 등 중소업체 진출 분야로 확대	기계장비 분야 브라질 투자진출 활성화 → 생산단가 절감 및 브라질 일자리 창출 효과 제고
1단계	(G2G) 공장증설, 생산 확대 등에 관한 규제 완화 등 합의, TA 체결 추진	(G2G) 기계장비 분야 투자방안 합의
2단계	(B2B) 현대차 시장점유 확대	국내 주요 기계장비업체 현지 투자
3단계	중소 부품업체 진출, 유지·보수 지속	기계장비 분야 시장 확대
추가 방안	친환경 차량을 포함한 자동차 분야 전 과정 협력 프로세스 구축	브라질 공장 생산 기계의 브라질 내수 판매 및 타국가 수출

2 ICT 융복합 신산업 : 5G, 자동차/보안, Agtech 등

○ **(시장 수요)** 브라질 정부는 산업 IoT 정책을 통해 ▲스마트시티, ▲의료, ▲농업, ▲제조업 분야에 기술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 도모

– (정부 수요) 정부기관과 3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4차 산업위원회 출범

* 경제부, 과학기술부, 브라질 산업연맹(CNI), ABDI 등

– (기업 수요) 브라질 기업들의 사무 자동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산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

– (보안 분야 취약) 디지털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큰 편이나, 특히, 정보보안 부분에서 기술 개발 및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브라질 주요 산업의 기술경쟁력 분석(브라질 산업 IoT 보고서)

	기술 종류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지역개발	제조업
정보 보안	임베디드 암호화	◑	◑	○	◔
	전파방해 대책(Anti Jamming)	◔	○	○	○
	변조방지(Anti-tampering)	◑	○	○	○
	디지털 서명	◔	◔	○	○
	블록 체인	◔	◔	○	○
	장치액세스 제어	◕	○	◔	◔
	페일 세이프(Fail Safe)	◑	○	◔	◔
	세이프 펌웨어(Safe Firmware)	◕	○	◔	◔
	액세스 네트워크 보안 액세스	◕	○	○	○
	DDos 방지	◕	○	○	◔

자료 : 브라질 과학기술부&BNDES(2017), 49p, 박민경(2017)에서 재인용

ㅇ **(시장 역량)** 디지털 시장 성장 잠재력은 큰 편이며 중남미 내 혁신 역량은 높은 편이나 산업발전 및 정보보안 부문에서 기술 역량은 미흡

– 브라질은 높은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보이는 전통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IT와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 多

* 브라질은 세계 3위 농업수출국(쇠고기, 닭고기, 커피 등 수출 1위)

– **(물티라티나스)** 중남미 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이 떨어지는 가운데, 브라질 기반 다국적기업(물티라티나스)들이 기업 분야 혁신을 주도

* '08~'16 기간 중 물티라티나스 기업의 연수익성장은 평균 중남미 대기업의 3배

– **(테크노라티나스)** 테크노라티나스 기업들은 혁신성과 발전 가능성 보유

* 물티라티나스와 같이 다국적 기업이나 주로 디지털 기반 신생 벤처기업

브라질의 물티라티나스(Multilatinas) 2018(BCG 기준) 및 해외 진출 현황(2015)

	기업명	분야		기업명	분야
1	Alpargatas	신발제조	14	Itau Unibanco	금융
2	Banco BTG Pactual	금융	15	Klabin	포장지
3	Braskem	석유화학	16	Marfrig	식품
4	BRF	육가공	17	Minerva	육가공
5	Camil	식품	18	Natura	화장품
6	Cielo	카드결제 솔루션	19	Netshoes	전자 상거래
7	Duratez	산업용 우드패널	20	Stefanni	IT
8	Embraer	항공기	21	Suzano Papel e Celulose	펄프제지
9	Fibria	펄프제지	22	TUPY	주철
10	Gerdau	철강	23	Ultrapar	화학 (연료)
11	Globo	방송	24	Vale	철강
12	GOL	항공	25	Votorantim Cimentos	시멘트
13	Iochpe-Maxion	자동차 부품	26	WEG	전기차 솔루션

브라질 20대 기업 해외 진출 현황(2015)

주 : 브라질 물티라티나스 감소('09년 34개→'18년 26개), 대신 Cielo, Netshoes 등 TecnoLatinas이 새로 성장
자료 : BCG(2018.3.15 자료), 각 기업 연차보고서, Columbia Center on Sustainable Investment(2017)에서 재인용

○ **(한국 역량)**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CT 발전지수에서 지난 10년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ICT 강국이자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상용화

- OECD의 유선 광 인터넷 보급률에서 한국은 2018년 2분기 78.5%의 보급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 1위를 차지(접속속도는 노르웨이, 스웨덴과 공동 1위)
-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추어 IoT(사물인터넷) 개발 및 정보보안 산업, 인공지능,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ICT 기술 역량 보유

  * 디지털 사회를 실현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 ⋯› 기술, 시스템, 인력양성 지원

○ **(협력 현황)** 한-브라질 IT 협력센터 중심 5G, IoT, 스마트팜 프로젝트 진행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브라질 IT 협력센터 운영('17~'19)

- 3년간 100만불 규모 5G, IoT 중점 협력과제로 정보화 프로젝트(정밀농업기술 등) 추진
  * K-ICT 10대 전략품목(SW, 정보보안,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지능정보, 5G, UHD, 스마트 디바이스, 디지털 콘텐츠) 중 선정
- 한국정보화진흥원(NIA)-브라질 과학기술통신부(MCITC)-국가통신연구소(INATEL) 간 협업
- 전자제품 조립기업이 비중 높고 브라질의 실리콘밸리인 Santa Rita de Sapucai 산업단지 입주

① ('17~'18) LG 유플러스, LG CNS 참여, 스마트홈, 스마트빌딩 서비스 도입 위함 시범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컨설팅 실시
② ('18~'19) KT, 5G와 사물인터넷(IoT) 기술활용 스마트팜 실증단지 사업

○ **(협력 확대방안)** 기술 협력, KSP 및 CSR를 활용 G2G-B2G-B2B 주체 참여

- **(주요 분야)** 기술제휴-생산역량공유, 공동R&D 중심 경협 활동 전개, 양국이 산업기반을 갖춘 자동차 부문 ICT 융합, 보안 관련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 보안 솔루션, 현지 수요가 높은 어그테크 등 제안
  * (사회 문제 해결①) 화물차량 도난 등 물류 문제 해결을 위한 IoT 및 전자정부 도입
  * (사회 문제 해결②) 드론 활용 정밀농업 개선과 소농 지원 : 퀄컴(Qualcomm)社 – 브라질농업연구소(EMBRAPA) – 사회경제연대기관(ISES)
- **(협력 주체)** 정부, 관련 연구소, 인증기관 및 산업별로 세분화된 기업 간 기술협력(대기업-중소기업-테크노라티나스 등) 강화

IT 융복합 신산업 우선 협력 분야 및 양국 간 대중소 기업 협력 예시

세부 협력방안	참여 주체
스마트 센서	
- (G2G/G2B/B2B) 의료기기, 자동차, 보안(CCTV), 드론 등 다양한 분야 활용 가능, IoT 확대에 따른 스마트팩토리 및 스마트홈 분야도 유망	(한) 산업기술평가원, 전자부품연구원, 스마트 센서 기업 등 (브) 관련 기관 및 제조업체
스마트보안솔루션	
- (G2G) ANATEL(정보통신국)의 인증 간소화, 보안 솔루션 분야 정보 및 인적 교류 활성화 MOU 체결 - (G2B/B2B) 공공입찰 참여 활성화, 보안 및 경비 솔루션 관련 양 국가 대표 행사(브라질 국제 보안장비 전시회, 한국 세계보안엑스포) 유관기업 참여 촉진 및 후속 지원, 파트너 발굴, 공동 기술개발, J/V 설립 모색	(한) 전자통신연구원, 보안 솔루션 관련 기업, 스타트업 등 (브) 경제부, 인프라부, 산업부, 산업연맹(CNI) 및 유관 기관
자동차기술협력	
- (G2G) 자동차 ICT 융합 기술교류 및 정책 협력 MOU 체결 * 브라질 코스트(복잡한 조세제도와 통관 정책, 비효율적 관료주의 관행 등)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영주비자 발급, 현지인고용의무 등) 완화기반 - (G2B/B2B) 현지 협력업체 발굴 및 JV 설립 모색을 위한 파트너십 지원, 공동 기술개발	(한)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전력, 전기 자동차 인프라 관련 기업 (브) 인프라부, 자동차협회 등
스마트농업(Agtech) : 스마트팜, 정밀농업, 스마트농기계 등 대중소기업 협력	
- (G2G) 한-브라질 IT 협력센터 재개를 통한 스마트팜 실증단지 후속 사업, 국책연구원 간 기술개발 협력 등 - (G2B/B2B) 기술 라이선싱, 농업데이터 공유 플랫폼, 스마트 농기계 관련 양국 간 대표 행사(전시회) 유관기관 참여 촉진, 후속 지원, 파트너 발굴, 공동 기 술개발, J/V 설립 모색 등	(한) 정보화진흥원, 관련 기업 등 (브) 과기부, 농업연구소(EMBRAPA) 및 통신연구소, 관련 분야 어그테크 스타트업 기업 등 * 브라질 농업 스타트업 400개 이상

3 바이오헬스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디지털 헬스케어 등

○ **(시장 수요)** 브라질 정부, 산업 IoT 전략(Hospital 4.0) 통해 의료시설 현대화 및 만성질환 환자 대상 헬스케어 IT 시장으로 확대 구상

* 브라질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9.1%이나, 의사 수는 232명/10만 명 수준

– **(의약 제품)** 브라질 만성질환 세계 10위 수준 → 고혈압, 당뇨약 수요↑

* 전자상거래 기반 의료용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분야로도 확대 가능

○ **(시장 역량)** 브라질은 중남미 1위의 헬스케어 시장(GDP 9.1%)

* 헬스케어 R&D 투자액 1,655억불('18)로 전년 대비 4.7% 성장, 병원 6,500여 개

– **(의료기기)**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 규모 약 57억 불이며, 의료기기 65%는 수입 의존

* 중남미 전체 시장은 향후 5년간 8.4% 성장(전 세계 평균 5%) 전망

○ **(한국 역량)** 세계적 수준 ICT 기반 의료·병원 시스템, 우수 인재, 첨단 산업 경험 등 국제 경쟁력 보유, 신약 및 제약·의료기기 수출 성과

* 반도체(바이오와 유사)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기간(선진국 1/2수준)에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확보

*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 2/3 점유

– **(바이오)** 나노테크, 스마트팜, 농작물 병충해 관련 협업, 브라질 생물다양성과 제약·화장품 분야 공동 협력 가능

◈ **(우리기업 진출 사례) 기술이전과 정부 조달 시스템으로 현지 진출**

- 의료기기(신속 진단키트) 스마트업 업체 G 社
- 유관 분야 행사 계기 현지 관계자와 네트워크 형성, 브라질 국영의료기관PDP 프로그램 조달로 지카 바이러스 발발 시기 신속한 납품, 판매량 급증

* 브라질 기관-타 국가와 공동개발 후 기술에이전시 조달업체로 등록, 납품 가능

◈ **(G2G 협력) 브라질 아마존 스마트보건선 개발 등 원격 의료 협력**

- 韓 한국기술사업진흥원- 브라질 따오바떼시립대학교 : 스마트보건선 기술개발 MoU
- 韓 한양대학교 병원 - 브라질 상파울루대학 INCOR 병원 : 원격협진 모델도출 연구

◈ **(G2B 협력) 브라질 국영기업과 우리기업(B 社) 공동 연구 수행**

- 브라질 보건복지부 산하 국영기업 B 社와 체외진단 분야 사업제휴 및 신약 개발 공동연구 MoU 체결('19.7)

◈ **(G2G 협력현황) 한국생명공학연구원-브라질 Campinas 대학-농업연구청(EMBRAPA), 오스왈도크루즈 연구원(FIOCRUZ) 바이오 협력/韓 농진청-EMBRAPA 협력**

* EMBPARA : 전 세계 최대규모 농업연구소, FIOCRUZ : 남미 최대 백신 공장 운영

○ **(협력전략) 공공조달 참여 지원, 인허가 취득 지원, 비즈니스 기회 확대**

구분	브라질 수요분야	주요 플레이어	연관 사업 방향
헬스케어 공급체계	의료장비 공급 분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파진흥원 등	- (G2G) 양국 의료장비 제조업체 간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 레벨 지원 체계 MoU - (B2G) 의료장비, IoT 공급업체들의 현지 투자진출을 위한 포럼, 세미나 개최 - (B2B) 양국 중대형 병원 간 현지 투자진출 확대 - (B2B) 헬스케어 IT 기업 간 상호교류 확대
	헬스케어 IT		
	의료기관 /시설 투자	국내 중대형 병원	
의약	의약품 원료 분야	보건복지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종근당, JW홀딩스, 셀트리온 등	- (G2G) 중국 견제를 위한 의약품 원료 투자 분야 한-브 협력 강화 합의 - (G2G) 의약품 세금 감면 - (B2G) 의약품 제조업체 간 투자 협력 강화
	브라질		

- (G2G) 브라질 전체 의약품의 약 80%를 공공조달을 통해 공급 → 인증 분야 기술협력 등 국가 레벨 협력기반 조성 (보건복지부 등)
- (B2G) 의료기기 인허가 취득 지원 : 브라질 의료기기는 ANVISA(연방규제당국)에 의하여 관리, 인허가를 받아야 진출 가능
- (B2B) 단일 품목, 단독진출보다는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시너지나 융복합이 가능한 기업 간 콜라보 형태의 비즈니스 기회 발굴 노력

한-브라질 보건의료 기술협력 강화(안)

국민의료보건시스템(SUS: Sistema Unico de Saude)			
협력타깃	**주요내용**	**주요 플레이어**	**협력방안**
국민의료보험시스템(SUS) 확대 개발 기술 협력	기존 접근 가능 한정된 의료인들의 확대 방안을 통한 공공/민간 서비스 균형 유지 및 헬스 플랜 향상	(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IT 업체 (브) 복지부, 경제부	(G2G) 건강보험 운영노하우 (B2G) 전산 시스템 기술협력 (B2B) 헬스케어 IT 기업 간 기술협력
공공제약회사와의 협력(PDP: Productive Development Partnership) 활용	SUS를 위한 공공조달 참여, 현지 공급기업과의 공동개발 후, 브라질 정부에서 일정기간 제품구매 보장	(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IT업체 (브) 복지부 등	(B2G) 공공입찰 참여 지원 (B2B) 공공제약회사와 기술협력 강화

기술협력/교류 확대를 위한 주요 전시회 활용 한-브라질 보건의료 네트워킹 기회 확대	
협력방안(예시)	**추진목표**
국제 의약품, 바이오 산업전(Korea Pharm & Bio) '20년 사업 KOTRA와 공동 개최 - 한-브라질 의약 분야 네트워킹 리셉션 개최('19년 한-인도)	브라질을 의약업체 간 기술협력을 위한 핵심 협력국 설정
한-브라질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확대 개최 - 양국 병원, 연구기관 등 협력 네트워킹 구축, 장관급 협력 가능성 타진	국가 단위 네트워킹 구축, 병원/연구기관 간 기술 교류 활성화

4 인프라·에너지 협력 강화

◦ **(물류 인프라 개선)** 브라질의 물류 품질은 산업발전 저해 요인('18 인프라 지수 3.14/7, OECD 평균 5.18)
◦ **(정부 민영화 정책)** 신정부의 인프라 중심 민영화 프로젝트 활용, 정부 간 지원펀드 및 IDB 활용 협업 가능

◦ **(시장 수요)** 도시화 부작용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활성화 정책
– **(도시화의 명암)** 1990년대 이후 산업화로 진행된 브라질의 급격한 도시화의 경제적 성장 연결
☞ 위생, 치안 해결이 최우선 순위
* 주요국 도시화율(세계은행, 2018): 브라질(86.6), 멕시코(80.2), 중남미(80.6), 한국(81.5)
– **(스마트시티)** 브라질 정부는 위생, 도시 치안 해결과 효율성 증진 위한 해결책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을 정책과제로 설정

* Sao Jose dos Campos市 스마트시티 통합 안전허브 운영으로 3년간 살인율 19% 감소
* Rio de Janeiro市, 사물인터넷 도입으로 교통사고 대응 시간 25% 감축
* 스마트 미터기 도입으로 브라질 내 도전(盜電) 전력 손실 20% 감축 전망(Ampla)

◦ **(시장역량)** 에너지부 신설 및 공기업 민영화, 민자 참여 확대
– **(규모)**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건설 시장('19년 건설·플랜트 시장 규모 약 2,717억 불)으로, 2019년 기점으로 성장세 전환
* 이전 정부에 시작되었으나 완공되지 못한 인프라 프로젝트 80여 건 진행 예정

브라질 건설시장 성장 전망

	단위	2018	2019	2020	2021
규모	10억	259.9	271.7	286.5	303.1
성장률	전년 대비 ,%	-2.5	0.5	1.2	1.5
GDP 대비 비중	전년 대비, %	3.8	3.7	3.7	3.6

자료) IBGE, Fitch Solutions

– **(민영화)** 브라질은 정부부처 개혁 일환으로 인프라부 신설, 기존 인프라 관련 공기업들의 민영화 작업 활발
* 브라질 인프라부 장관, "연방정부 소유 100개 공기업 민영화 혹은 해체"('19.1.8)
* (공항) 인프라부, "2022년 초까지 국영 공항운영사 Infraero 산하 44개 공항(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공항 포함) 전면 민영화 계획"('19.6.26)
– **(PPP)** 자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사업 적극 추진

◦ **(한국역량)**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인프라 건설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신시장 진출이 필수적

– **(수주증가)** 포스코, 현대엔지니어링 등 최근 브라질 수주 증가세 뚜렷

* 우리 수주규모(만 불): ('14) 2,532 → ('15) 1,073 → ('16) 1,461 → ('17) 997 → ('18) 4억 7,037

– **(금융역량)** 韓 국토부, 2019년 연내 1조 5천억 원 규모의 PIS(Plant, Infrastructure, Smart City Fund) 펀드 조성[7)]

* 유무상 차관, 경협 증진자금 등과 연계한 복합금융구조 설정, 스마트시티 투자 리스크 대폭 완화 예정
: KOICA–EDCF–EDPF–정책수출금융–민간금융 결합

*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 글로벌 인프라 펀드 조성 및 활용[8)]

○ **(협력전략①)** 팀코리아 전략 : 한국전력, 수출입은행, 가스 공사 등 공공기관과 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이 중요 (B2G)

– **(금융지원)** KOTRA–KIND 협력 플랫폼을 활용, PPP 수주 확대

*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KOTRA간 MOU 체결('18.8)

** 세계 PPP 시장 한국점유율 1.5% 미만, '17년 해외 프로젝트 수주액 중 PPP 비중 6% 미만

○ **(협력전략②)** 국제기구 활용을 통한 안정적 프로젝트 진출

– **(리스크 완화)** 현지의 정치적 불안정 리스크 등으로 우리 기업은 국제기구를 통한 안정적인 진출 기반 선호

– **(현지 수요)** 중남미 정부 역시 MDB 개발차관 및 조달 통한 안정적인 금융기반 프로젝트 진행을 선호

* IDB 차관규모 : '17년 승인 차관 90개, 연간 총 113억불 수준

* IDB 조달규모 : '17년 입찰 총 1,192건, 29.8억불 수준

☞ **(브라질은 IDB 프로젝트 최대국)** 전체 IDB 프로젝트 중 브라질 비중 15%로 1위(87/573개)

- (수주 국가별) 브라질(총 297억불, 프로젝트 금액기준 전체 96.1%), 일본(2.9억), 미국(1.6억), 독일(1.4억), 프랑스(1.2억)순, 브라질 자국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브라질 지사 수주 비중 高
- (분야별) : 도로공사, 수자원 인프라 비중 多
- (외국기업 주요 참여 분야) 산업기계장비, 의료기계, 전자장비, 서비스 등

– **(협력현황)** 한국은 2005년 미주개발은행(IDB)을 통해 조달참여권 획득하였으나 현재까지 우리기업 브라질 IDB 수주 사례는 없음

* 우리기업 IDB 수주실적은 총 8건 18.4억불로 주로 에너지 분야 수주

7) 대경장회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내용('19.7.8)
8)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시장에서 프로젝트 수주성과확산 위한 정책 내용('18.11)

PPP 수주 확대를 위한 KOTRA- KIND 협력 플랫폼

◈ 양기관 협력 MOU 체결('18.8) 배경

○ (시장) PPP 시장 확대에도 우리기업 진출 실적저조
* 신흥국 투자개발사업 시장 규모(WB) : '05년 403억 불 → '15년 1,199불(약 3배)
* 세계 PPP 시장 한국점유율 1.5% 미만, '17년 해외 프로젝트 수주액중 PPP 비중 6% 미만

○ (현황) MDB·재정사업 위주, 단순 도급형 프로젝트 발굴 중심 수주 지원 한계
⇨ **해외 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PPP 프로젝트 지원 신기능 도입 필요**

◈ 업무협력 범위

○ 국별 PPP 시장 진출 관련 정보 수집 및 발간

○ 유망 프로젝트 공동개발

○ 발굴 프로젝트 정보공유

○ KIND의 잠재적 투자대상 검토 시 KOTRA의 현지조사 및 수행기업 공동지원

○ 해외 정부 및 발주처 교섭 등 프로젝트 수주 공동지원

○ KIND 직원의 코트라 해외무역관 파견 및 공동사업* 추진
* (예) 국가별 PPP 정책 공동연구, PPP 전문 국내 설명회· 상담회 추진 등

〈기관 간 업무협력 R&R〉

PPP 프로젝트 개발 단계						⇨ 사업수행
KIND 역할	잠재 프로젝트 발굴 ⇨	대상사업선정 ⇨	타당성 조사 (F/S) 실시 ⇨	프로젝트 확정 ⇨	금융조달 및 투자 ⇨	건설, 운영
KOTRA 역할	프로젝트 정보제공	평가참여 (해외부문)	타당성 조사지원(OPS)	해외 발주처 협상 지원	금융주선지원	현지진출 지원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개요

○ (설립목적) 우리기업의 해외 PPP 시장 진출 지원(국토부 산하/'18.6 창립)

○ (주요기능) 사업발굴·개발·금융지원 등 PPP 사업 전단계를 전문적 지원
* 현재 국토부 운영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이관, 신규 조성 중인 신남방·신북방 GIF 수행예정
* 사업발굴 및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예산 114억 원 조성

○ (자본금) 총 1,900억 원 (현물출자 1,300억 원 + 현금출자 600억 원*)
* 7개 공기업(토공, 도공,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현물투자/ 건설공제조합·수은 현금투자

○ (조직/인력) 사업개발, 투자관리 등 3개 본부 7개 팀/ 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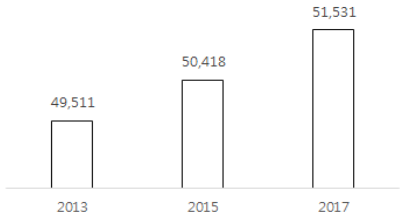
다. [국민] 삶의 질 향상, 행복한 포용 국가의 구현

단순 인력 교류를 넘어 경제협력* 더 나아가 상호문화발전 및 SDG 구현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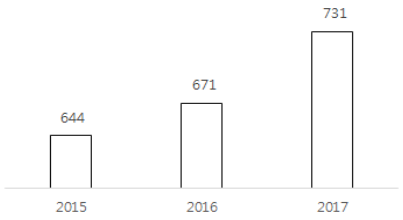
* 교육, 문화 콘텐츠, 스포츠 등 교류를 국가/기업 CSR과 연계

<양국 거주 인력 현황>

브라질 거주 한인 동포 수[1]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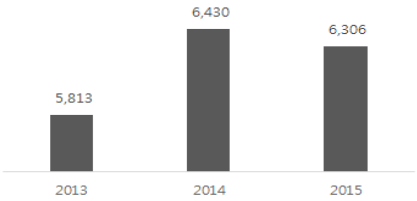


한국 거주 브라질인[1]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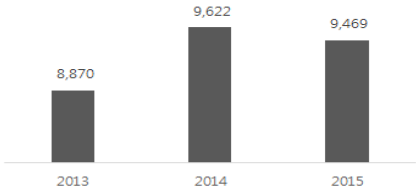


<양국 인력 교류 현황>

(브라질 → 한국) 한국 방문 브라질인 (단위: 천명)



(한국 →브라질) 브라질 방문 한국인 (단위: 천명)



<양국 SDG 분석 결과>

SDG 점수 차이 ■ >20.0 ■ 9.0~20.0 □ <9.0

No.	내용	브라질	한국	한국-브라질 차이	절대값
SDG1	빈곤퇴치	96.9	99.3	2.4	2.4
SDG2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67.7	83.2	15.5	15.5
SDG3	보건증진	78.2	91.3	13.1	13.1
SDG4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77.4	91.7	14.3	14.3
SDG5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68.3	67.4	-0.9	0.9
SDG6	물과 위생	98.3	79.9	-18.4	18.4
SDG7	에너지	89.6	88.6	-1	1
SDG8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67.6	83.4	15.8	15.8
SDG9	인프라와 산업화	45.3	83.4	38.1	38.1
SDG10	불평등 해소	25.7	86.6	60.9	60.9
SDG11	지속가능한 도시	79.4	80.0	0.6	0.6
SDG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70.3	65.2	-5.1	5.1
SDG13	기후변화대응	90.1	85.4	-4.7	4.7
SDG14	해양자원 및 생태계	59.9	56.0	-3.9	3.9
SDG15	육상생태계	56.4	52.9	-3.5	3.5
SDG16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47.3	71.8	24.5	24.5
SDG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66.4	49.8	-16.6	16.6
평균		69.7	77.4	7.71	7.71
절대값의 평균, 표준편차		평균: 14.08, 표준편차: 15.25			

평균 이상의 점수 차이를 가진 SDG

SDG	우위국가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SDG 2)	한국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SDG 4)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SDG 8)	
인프라와 산업화 (SDG 9)	
불평등 해소 (SDG 10)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SDG16)	
물과 위생 (SDG 6)	브라질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SDG 17)	

부록

1 상생을 위한 인력 교류 확대방안

○ **(인력 교류 확대방안)** 문화, 교육, 스포츠 등 협력 분야 다각화 노력

> ○ **정부, 기업,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한국문화원 외 K-Beauty, K-Pop 등 한류 콘텐츠 오프라인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 ○ **한국문화원 K-콘텐츠 강좌 오프라인 교육지원(장소 섭외 및 강좌 홍보 등)**
> ○ **양국 교육기관(대학교, 사설기관) 및 상파울루 시청 간 MOU를 통한 학생 교류 및 한국어 강좌 확대(온, 오프라인)**
> ○ **스포츠 교류 확대(대학 간-지방 리그간 축구교류)**

○ **(SDG 이행 협력방안)** SDG 이행관점에서 분야별 협력방안 도출

– **(SDG_2.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빈곤층 지원을 위한 기업 CSR과 스마트농업 협업으로 브라질 소농(전체 75%)의 삶의 질 제고 지원

– **(SDG_3. 보건증진)** 아마존 등 낙후지역 취약계층 대상 원격 의료, 제약바이오 공공조달을 통한 현지 보건인프라 강화 지원

– **(SDG_4.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현지 교육부와의 민관협력(CSR 포함)을 통해 스마트 교육 인프라 증진 지원

– **(SDG_8.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브라질 청년 대상 전문 직업교육 및 스타트업 기업 간의 기술 인력 교류 기회 확대

– **(SDG_9. 인프라와 산업화)** 브라질 인프라 진출을 통해 물류교통 인프라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지원

– **(SDG_10. 지속가능한 도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정부 및 대중소 협업을 통해 치안 제고 및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마련, 생산성 증진

– **(SDG_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증진)** 정부·기관·기업 간 협력 등 한류 콘텐츠(K-Beauty, K-Pop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 K-POP 아이돌 스타 초청 공연과 K-Beauty 및 한류상품 전시회 등을 패키지화하여 매년 1회 이상 추진 필요(오프라인 행사 확대 개최 필요)

– **(SDG_14. 해양 자원과 생태계)** 해양 자원 및 아마존 등 주요 생태계 등에 관한 양국 정부 연구기관 공동 연구 등

2 교육 협력 지원으로 역량 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정책 수요)** 브라질 정부는 교육개발을 통한 사회 부정부패 척결, ICT 개발, R&D 육성으로 첨단 산업개발, 경제 성장 달성 목표

* 일반교육(부정부패 척결, 삶의 질 향상, 시민의식 제고)와 전문교육(첨단기술과학 분야 육성,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구분

○ **(시장 현황)** 정부는 공교육 개선 노력 대비, 여전히 아동 수 대비 교육 시설 부족과 편재, 교사 수 및 교사자질 부족 등의 문제점

* (소득 불평등과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브라질 지니계수 0.524로 189개국 중 9위, 2000년대 초반 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 불평등 완화세는 2017년부터 사실상 중단

* (기초역량 부족) 브라질은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PISA 종합순위 기준 64위/72개국(과학 63위, 읽기 59위, 수학 66위)로 아르헨(39위), 칠레(45위), 콜롬비아(58위), 멕시코(59위) 등 중남미 내에서도 하위권에 위치

○ **(한국 역량)** 한국은 인적자원 개발 분야 다양한 경험과 역량 보유

* (KSP 사례) ('16~'17) 니카라과, ('15~'16) 우즈베키스탄, ('14~'15) 페루, ('12~'13) 사우디 등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브라질 자격 상호인정 연구('17)

– 보우소나루 대통령, 대선 시절부터 교육 분야의 모범사례로 한국(PISA 종합 11위)을 언급하며 협력 의지 지속 피력

○ **(협력 현황)** 각 대학 간 협력 및 UST 등 산학연계 협력 지속, 2011년 브라질 정부의 '국경 없는 과학' 프로그램과 연계한 공동협력 시행

[국경없는 과학 프로그램 : 과학기술 분야 상호 연구개발 공동협력]

- 2011년 지우마 호세프 정부가 국가 간 교류협력을 통한 과학, 기술, 혁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
- 주관기관은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와 교육부로, 세계 150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1,000명의 국비 장학생을 1년간 해외 대학에 파견하였으나, 예산문제로 현재는 대학원생으로 대상 축소
- 한국은 韓 교육부와 무역협회, 브 국립과학기술자문위원회 등이 주관, 2기 사업('15) 이후 추진력 상실

○ **(협력 확대방안)** 한국 브랜드 인지도 증가에 따라 한국 유학 희망학생 증가, 상파울루 한국 교육원 활용 교육 협력 방안 모색 가능

* 상파울루 한국교육원, 교포 및 현지인 대상 한국어 교실, 재외동포 학생 대상 초등교육과정(한국 학제 1~6학년), 교포 대상 포르투갈어 교실, 사물놀이 교실 운영 중

– **(G2G)** KSP 등 정책 협력을 바탕으로 ① 기초 교육 분야 협력(영어, 문화, 기초과학 등), ② 산업역량 강화 연계 직업교육 등 협업, ③ 한국 내 기존 교류 프로그램을 활용한 브라질 대학원생 초청

– **(G2G/G2B)** 국내 전문인력(연구인력, 교사, 강사 등)의 현지 파견 및 현물 지원(교육시설, 교보재 등), 기업 CSR 사업 교육 지원 연계

* (예) 한국 전문가 현지 중장기 파견을 통한 교육 / 브라질 실무 담당자 한국 연수 등

① **기초 분야 협력** : 주 상파울루 한국교육원 인프라 활용, 분과별 학습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행지원, 장기적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의 시설 활용 지역별 조직 구축 지원 등 * (예) 수학, 과학기술 교육,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② **직업교육** * (예) Coca Cola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지역사회 연계 지역훈련 사례 벤치마킹

③ **우수 인재 초청 프로그램 활용 친한파 인재 육성** : 국립국제교육원, Korea Foundation, UNIST, 서울대학교 등 각 유수 대학 초청 프로그램에 브라질 인재 초청 비중 확대로 친한파 인재 육성

* 기존의 국경없는 과학 프로그램과 유사한 인재 교류 프로그램 신설

3 문화 콘텐츠와 소비재 유통망 협력

○ **(시장 역량)** 브라질 콘텐츠 및 소비재 전자상거래 시장 지속 성장

– **(콘텐츠)** 브라질 콘텐츠 시장규모, 디지털 분야 성장에 따라 연평균 10% 성장('15년 494억 불 → '19년 722억 불)

* OTT(Over the Top: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서비스 수익 예상치 연평균 33% 증가 : ('15) 1.8억불 → ('18) 4.6억불, 넷플릭스 이용자 수 세계 4위(290만 명)

☞ **디지털 미디어 성장, 스마트폰 보급으로 다양한 플랫폼 통한 이용자 수 증가, 기존의 빈부격차 등에 따른 접근 제한성 해결**

– **(소비재 전자상거래)** 2018년 브라질 소비시장 규모 9,500억 헤알(2,500억 불) 수준으로 2023년 1조 4천억 헤알(3,700억 불)로 성장 전망(Euromonitor, '19)

* 인터넷 상거래의 경우 전체의 10% 수준인 900억 헤알 수준으로, 2023년까지 연평균 18% 수준 성장, 모바일 거래의 경우 연평균 30~47%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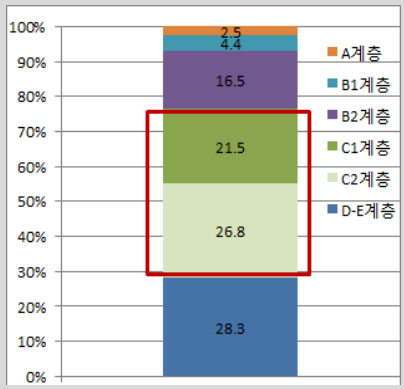
– **(소비자 구성)** 세계 9위 수준 빈부격차, 계층별 소득·구매성향 차이

* 지니계수(세계은행): 브라질(53.3), 멕시코(43.4), 콜롬비아(49.7), 한국(31.6)

* 고소득층 대상 프리미어 전략 및 신흥 중산층 대상 개별 접근 전략 필요

브라질 가계소득별 계층 구성(2017)

구분	월소득 기준	인구 (백만 명)	비중 (%)
A계층	BRL 25,554.33 (USD 6,773) 선진국형 소비패턴	5.2	2.5
B1계층	BRL 11,279.14 (USD 3,000)	9.2	4.4
B2계층	BRL 5,651.64 (USD 1,500)	34.5	16.5
C1계층	BRL 3,085.48 (USD 820) 신흥중산층, 20-30대 비중 高	44.9	21.5
C2계층	BRL 1,748 (USD 500)	56.0	26.8
D-E	BRL 719 (USD 200)	59.1	28.3



자료 : ABEP(2019)

○ **(한국 역량)** 브라질 內 K-pop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영화, 드라마, 음식, 화장품 등 콘텐츠 및 전자상거래 시장경쟁력 지속 제고

* 상파울루에서 BTS 중남미 공연 개최('19.5), 공연 이후 소비재 수출 3배 상승(KOTRA 무역관)

* (브라질 언론이 보도한 한류의 경제적 효과) 한국을 방문한 브라질 국민 2001년 4,700명 → 2013년(싸이 북동부 카니발 축제) 15,000명→2014년(BTS), 2017년 2만 명 상회

– **(K푸드, K뷰티)** 한국의 가공식품류와 화장품 등 현지 소비자에 인기

* '메로나'는 현지 소득 대비 고가임에도 불구, 2012년 당해 50억 원 상당 판매

* 브라질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293억 불로 세계 4위('16년), 한국은 브라질의 제17위 수입국(77만 불)

○ **(협력 확대방안)** 소프트파워 외교 통한 양국 간 협력 토대 기반 마련

한류 활용 소비재 콘텐츠 등 협력 전략

한류 활용
- (G2G) 한류 홍보 행사(전시회, 포럼, 부대 행사) 확대 개최 협약 체결 및 소비재, 한식 기업 진출 기반 조성 - (G2G) 한-브라질 퓨전 문화 행사 개최로 양국 국민 문화 다양성 증진 및 관련 기업, 예술인 진출 기반 마련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극대화 - (G2G) 엑스포, 전시회 등의 한국 홍보행사 확대 개최와 이와 연계된 국내 제품 홍보관 마련 등으로 국내기업 브라질 시장 진출 활로 확보 - (B2B) 엑스포, 전시회를 활용해 뷰티 콘텐츠, K푸드 홍보와 향상된 인지도를 기반으로 플래그숍 운영과 브라질 현지 매점 입점

소비재/콘텐츠 확산	인력교류 활성화
- (G2G) 브라질 위생국, 식약처와의 협업을 통한 화장품, 식품업 진출 가이드라인 제작(인증취득 절차 방법, 유통 및 생산 안내서 등 제작) - (G2B) 한국 영상물 및 콘텐츠 현지어 자막지원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현지 업체와의 협업 및 현지제작 추진을 위한 유통망 개척, 현지 제작 지원	- (G2G) 정부 상호 어학연수 프로그램 지원 및 한국학 사업 확대, 한국인 교수 파견 및 온라인 강의 추진을 통한 지한파 양성 - (G2B) 어학당 수료생 대상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한국인 관광 안내 등의 직무 일자리 진출 지원

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CSR 활성화

○ **(현지 수요)** 브라질은 노동 관계, 빈부격차, 비차별 이슈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현상 활성화

–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노동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성노조, 시위 등 사회단체 영향력을 고려, 포용적 자세 필요

(사례1) 브라질 노동검찰(MPR), 캄피나스 공장 고강도 노동 및 휴식시간 미준수 등으로 한국기업 기소('11.11), 마나우스 공장에 대해서도 2.5억 헤알 상당 민사소송('13.8)

(사례2) 2018년 브라질 운송업체 파업으로 물류 대란, 피해규모 21조 원 추산

– 라바자투(Lava Jato) 사건 이후 국민들의 반부패에 대한 인식 고조

○ **(현황)** 브라질 기업 및 글로벌 진출기업들의 CSR 참여가 활발

– **(정책)** 브라질은 증권거래소, 보베스파 기업지속가능지수 개발 공시('05), 자체 Ethos 지수, ABNT NBR 16001 표준 등을 지정 공시

* 브라질의 Ethos Institute를 설립('98), CSR 의식 제고를 위한 중심 역할 수행, 자국 내 기업의 1/2 이상이 Ethos Institute에 따라 사회정책을 추진

- UN 글로벌콤팩트* 참여 브라질 기업 총 854개 사(다국적 기업 현지지사 포함)로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 수준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주제의 10대 원칙 준수를 합의하는 협약
  * 브라질 중진국 함정의 주요 원인인 빈부격차(지니계수 세계 9위) 및 수천만의 빈곤층 지원, 기초역량 강화, 아마존 보호 등 이슈
- **(특징)** 지역별 격차를 고려, CSR 활동도 이에 맞추어 전개
  * 고소득지역인 브라질 남동부와 미개발지역인 북동부 평균 소득 차이는 약 4배
  * (남부) 스포츠, 교육, (북동부) 문화 프로그램, 일부 은행 소액 상환 프로그램 실시
- Natura(화장품), Petrobras(에너지), Vale(광산), Itau Unibanco 등 브라질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경영 일환으로 CSR 수행 중

브라질 진출 주요 기업의 CSR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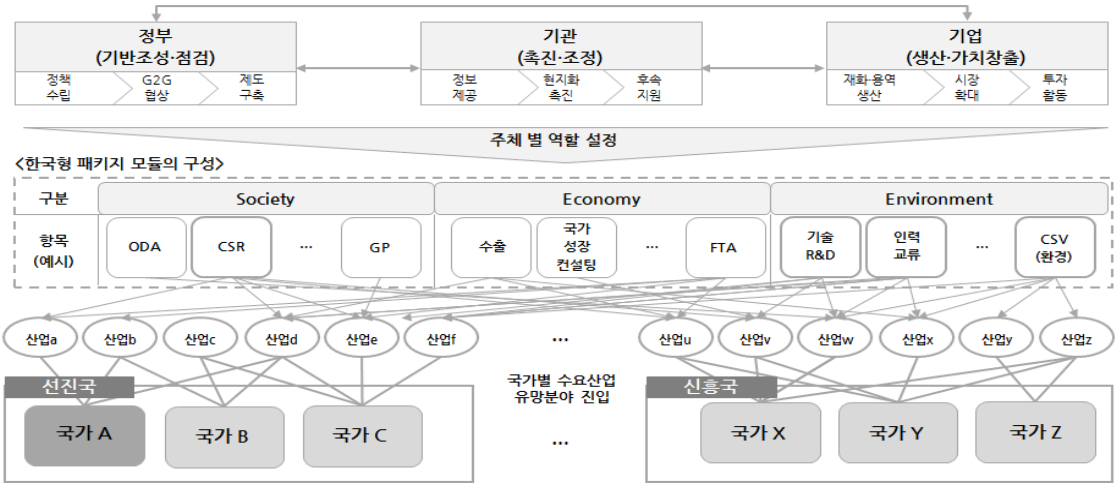
기업명	CSR 활동
Natura (브라질)	- 환경보호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 : 탄소중립성 달성 프로그램, 아마존 생물다양성 보존 - Saborina 지역 비누공장 : 21개 지자체 2,500개 농촌 가구가 원료 제공 - 농민 대상 지식 자원 전수
Banco Santander (스페인)	- 고등교육 투자 및 지원에 중점 - Amigo de Valor : 기부를 통해 취약 아동 및 청소년 재정지원, 약 8만 4천 명에 혜택 - 유아교육 프로그램 : 교육부 공동 5세 이하 아동 공교육 정책 강화 위해 바이아주(州) 19개 지자체 지원, 원거리 교육망 활용
Coca Cola (미국)	- "Coca-Cola Colective" 프로그램 : 브라질 NGO와 파트너십 체결, 젊은이 대상 유통, 사업개발, 기업가 정신 등 교육하여 지역 청년 근로 역량 강화 - 지역 내 기업-NGO-대학과 클러스터 구성 - 프로그램 이수 청년 30% 코카콜라 및 파트너십 지역 소매점 취업, 10%는 창업
Toyota (일본)	- 상파울루주(州) Indiatuba에서 종업원 2천 명이 코롤라 생산 - Arara Azul(푸른 앵무새 프로젝트) : 판타나우 습지 지역 멸종위기 조류 모니터링 - 마타아틀란티나 : 현지 구조재단 제휴를 통해 숲 식생 회복 사업(재조림, 환경교육 등) - 지역사 재인식 : 지역 학교 학생 대상 역사 지역 박물관 행사, 재조림 사업, 환경교육 등
LG전자 (한국)	- ('10~'12) 14~24세 청소년 대상 무료 직업훈련 프로그램 - 마나우스 공장 종업원 대상 프로그램 : 전염병 예방접종, 직원 자녀 돌봄, 크리스마스 봉사
삼성 (한국)	- 캄피나스 공장 청소년 문화프로그램(My first Cultural Flight) 운영 : 미혼모 자녀양육 조직 소속 청소년들 브라질리아 방문 및 문화 체험 비용 후원 → 지역 신문에 보도
현대자동차 (한국)	-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 현대차-지역 축구단-시 정부 3자 CSR 모델 수립 - 현대차-브라질 고등교육재단(CAEPS) 국경 없는 과학 프로젝트 후원 MoU 체결 - 해피무브 한국대학생 브라질 자원봉사 활동 - 자동차 공장 건설지인 피라시카바市 다문화 축제 지원, 국내 축구팀 초청 친선경기

G2G/B2G 레벨에서 CSR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대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CSR 활동 홍보지원**
- **브라질 진출 대기업 CSR에 중소기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대기업의 경우 활동 수행 여부가 크게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의 활동은 미비
- **단순 나눔의 CSR에서 경쟁 업체와의 차별화된 마케팅 수단, 전략적 경영 활동으로 진화(예 : CSV) 될 수 있는 프로세스 지원**
- **글로벌 및 현지 기업들 스포츠, 교육, 문화프로그램, 직업교육, 환경 분야 시행**
- **현지 청년 대상 현지 기진출 대기업 기술전수 및 직업 교육프로그램 확대 지원**
  * 고급인력 공급 인센티브 협의(G2G), 수료 학생 현지기업 취업 지원(B2B)

Ⅲ. 향후 對브라질 K패키지 실행체계(안)

브라질 정상순방 연계 정부–기관–기업 주체별 역할과 이행방안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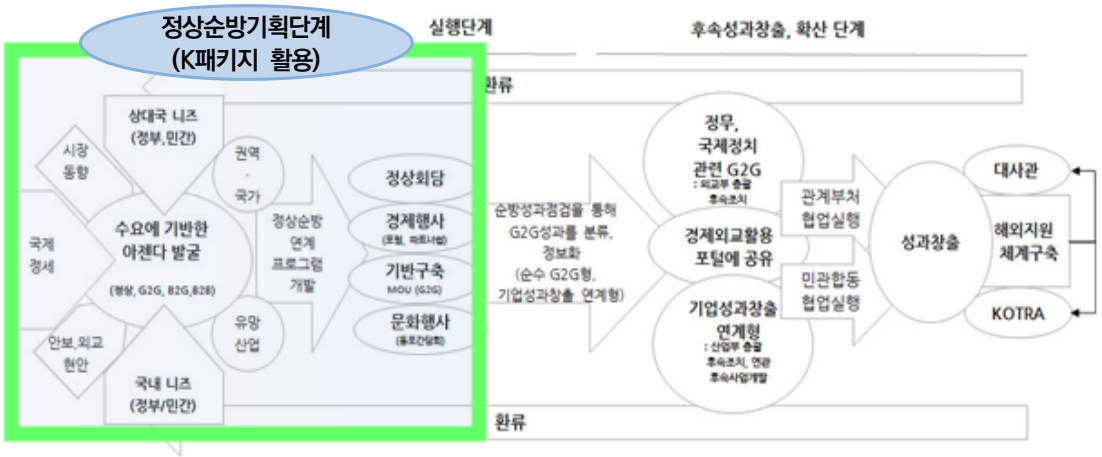
★ 각 협업 주체들의 역할별 권한과 책임의 부여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의 유도

관계부처 수요 반영, 정부 차원 K패키지 마련, 순방 시 활용

– 경제부문 중심만이 아닌,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전 분야 참여 주체 수요의 종합적인 반영으로 국가 레벨의 K패키지 작성 필요

* 코트라 작성(필요 부분 관련 기관 의견 수렴), 수요조사 설문 실시(정부, 기관, 기업 모두 대상)로 각 참여 주체 통합 참여로 실질수요와 이행방안의 마련

<정상순방 사업 중장기 이행방안 로드맵>



가. 한-브라질 협력 채널 재개, 양국 경제협력 이행 현황 점검

1 한-브라질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한 지속적 이행점검 체계 가동

- 한-브라질 산업협력포럼 재개 → 향후 정례적으로 개최
- Sub 분과 설립으로 분야별 트러블 슈팅, 신규과제 발굴, 실행력 제고
  * 양국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두가 되는 거버넌스 스킴

Governance Model

추진주체	
KOREA	MOEF, MOTIE, KOTRA
BRAZIL	MOE(MDIC), APEX

경제/통상/인프라	
한국	브라질
MOEF	MOE
MOTIE	MOE(MDIC)
MOFA	MRE
KOTRA	APEX
MOLIT	MI(Infraestrutura)
MOTIE	MME
KDI	IPEA
KOILA	NTC

과학/교육/보건/환경	
한국	브라질
MSIT	MCTIC
NST	CNPQ
NIA	INATEL
MHW	MS
ME	MMA
KSHSM	ABRAHUE
KTR	INMETRO
MFDS	ANVISA

자원/문화/교육	
한국	브라질
MAFRA	MAPA
KFS	SFB
MCST	MC(cidadania)
MCST	MOT
MOE	MEC
KOGAS	ANP
KF	MRE-DODC
MOEL	MOE-Trabalho

한국	브라질
MOEF: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FKI: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DI: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FS: Korea Forest Service KOILA: Korea integrated Logistics Association LH: Korea Land & House development Cooperation MSIT: Ministry of Science, Information & Technology NI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MHW: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ST: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mmission ME: Ministry of Environment KSHSM: Korea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KTR: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MFDS: Korea Food and Drug Safety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T: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KOGAS: Korea Gas Corporation NOC: National Oil Corporation MC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TO: Korea Tourism Organization MOE: Ministry of Education KF: Korea Foundation MOEL: Ministry of Empoyement and Labor KICA: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gency KOCCA: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MOE: Ministry of Economy (Finance, Planning, MDIC-CAMEX(Industry), Labor) MRE: Ministry of Foreign Affairs(itamaraty) APEX: Brazilian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 CNI: National Federation of Industry MI: Ministry of Infrastructure(Infraestructura) MME: Ministry of Mines and Energy IPEA: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Research SFB: Brazilian Forest Service NTC: National Association of Cargo Transport and Logistics ABIMAQ: Brazilian Machines and Equipment Industry Asso. MCTIC: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INATEL: National Institute of Telecommunication MS: Ministry of Health(Saudade) CNPQ : National Council for Scientific and technology Development MMA: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BRAHUE: Brazilian Association of University Hospitals INMETRO: 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Standardization and Industrial Quality ANVISA: National Health Surveillance Agency MAPA: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Supply ANP: National Agency for Petroleum, Natural Gas and Biofuels MC: Ministry of Citizen(Cidadania) MOT: Ministry of Tourism MEC: Ministry of Education RNP: National Education and Research Network CEFETS: Federal Centers for Technological Education CAPES: The Higher Education Personnel INEP: Anísio Teixeira Nat'l Institute for Edu. Studies/Research

2 [향후과제] 관계부처 수요 반영, 정부차원 K패키지 마련, 순방 시 활용

○ KOTRA 차원 자료로(對정부 제안 성격), **양국 정부·유관기관·대기업의 구체적 수요 추가 반영 필요 → 정부 차원 K패키지 마련**

* 경제 부문 중심이 아닌, 외교, 안보, 사회, 문화 全 분야 참여 주체 수요 반영

나. 현지 민·관 협력 이행체계 구축, 범정부 차원의 아젠다 선정

- B2B, B2G 사업을 중심으로 대사관, KOTRA, 유관기관 사업과 연계한 중장기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현지의 포컬 포인트 역할을 수행
- G2G 사업 및 각종 외교, 안보, 문화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이슈는 동 보고서의 내용과 부처·기관별 수요에 기초하여 아젠다를 선정
- 또한, 브라질 시장을 호혜적 협력파트너로 재조명하고 상생협력의 필수적인 동반자로 격상시키려는 정부 주도적인 능동적 자세 요구

<한-브라질 상생협력 요약>

브라질의 공급가능 분야

◈ **제조업 경쟁력 지수 29위('16)**
- 자동차, 항공산업(세계 3위)에서 일부 경쟁력, 전반적 역량 하락

◈ **풍부한 영토와 자원**
- 세계 5위 영토, 천연자원(철광석 및 희토류 세계 2위), 작물 등

◈ **거대한 내수시장**
- 세계 5위 인구, 세계 8위 GDP

◈ **신정부의 대외개방정책**
- MERCOSUR 개혁 등, 민영화

한국의 수요 분야

◈ **탈G2 수출선 다변화 추구**
- 대중, 대미 수출의존도 40%

◈ **글로벌 시장에의 수출 지속 확대**
- GDP의 50% 수출로 달성 목표

◈ **제조업 생산능력 활용을 위한 기술협력**
- World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2017 세계 5위(Deloitte)

◈ **비즈니스 전략 고도화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강화

브라질의 수요 분야

◈ **브라질 경쟁력 및 혁신 역량 강화**
- 기술, 인력 개발 및 산업 발전

◈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 신재생에너지, 교통 등 분야, PPP

◈ **디지털 신산업 분야 협력**
- ICT, 스마트시티, 농업, 핀테크 등

◈ **교역대상 다변화**
- 中美 경제의존도↓, 보호무역 대응

한국의 공급가능 분야

◈ **해외 투자진출 전 세계 상위권**

◈ **높은 전문기술 보유**
- 대학 졸업자 비율 약 68%

◈ **제조기술·생산능력 전 세계 최상위국**
- Bloomberg Innovation Index 2018, 5년 연속 1위

◈ **경제 발전 및 해외진출 풍부한 경험보유**

다. 주요 협력 분야별 기회 및 Key Player 요약표

구분	협력방안	분야	관련 협력 기회	
			참여주체(한국)	참여주체(브라질)
			관련기관(한국)	관련기관(브라질)
			세부 추진 내용	
[G2G]				
1	FTA 체결 등 통상 제도적 기반 마련	통상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KOTRA, 무역협회 등	브라질 전국산업연맹(CNI)
			한-MERCOSUR TA 협상 등 정부차원 협상 기반조성 활동	
2	상호 인증 협력기반 구축	인증	산업통상자원부	
			KOTRA, KTR	ANVISA, INMETRO, ANTEL
			G2G 레벨의 인증분야 기술협력, 상호인증, 인허가 취득지원 기반조성	
3	산업단지 협력, 산학연계 제조업 역량 확대 KSP	KSP	기획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Credit
			한국 산단공, KOTRA	CZPE(수출가공특구위원회)/MDIC
			브라질이 관심을 갖고 있는 로컬 기업 기술 이전과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글로벌 파트너링	
4	전략적 삼각협력으로 중남미 공동진출	Joint Consulting	산업통상자원부	IDB, WB, CAF, 외교부
			KOTRA, 한국 중소기업	APEX, 브라질 중소기업
			농업, 의료 및 제조업 중소기업 역량강화 등 강점 분야 3국 공동진출	
5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IT정책수립 지원	KSP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부, 경제부
			KISDI, NIPA, KEIT, STEPI, IITP	CNI, Eldorado Institute, P&D Brasil
			국내 성공사례를 통해 브라질 IT 지원정책 관련 종합적인 현황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실시. 인프라, 기술 등 전체적인 제도적인 기반 구축	
6	전자정부 수립지원	KSP	LG CNS	과학기술혁신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교통부, 공공행정부
			국내 전자정부 성공사례를 통해 브라질 전자정부 관련 종합적인 현황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실시. 인프라, 기술 등 전체적인 제도적인 기반 구축	
[B2B]				
7	자동차 생산 협력	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브라질 포드, 닛산, GM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제부,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부품산업협회
			브라질의 높은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 대기업 중심 브라질 시장 현지투자, 점유율 확대 후, 부품 등 중소업체 진출 분야로 확대	

구분	협력방안	분야	관련 협력 기회	
			참여주체(한국)	참여주체(브라질)
			관련기관(한국)	관련기관(브라질)
			세부 추진 내용	
8	전기자동차 전략적 기술 제휴	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 LG화학, 에코프로	브라질 포드, 닛산, GM
			산업부, 국토교통부	통신교통부,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부품산업협회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 기술 제휴 협약 체결, 양국 기업 간 전기차 핵심 부품 개발 및 성능 향상, 한국 전기 자동차 부품 회사의 부품 현지 조달 및 공급망 확충	
9	친환경 자동차 합작투자	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 모비스, 파워텍	브라질 포드, 닛산, GM
			산업부, 국토교통부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부품산업협회
			합작투자를 통한 원가절감, 노동력 공급, 생산증대로 멕시코 내수 시장에 맞는 다양한 친환견 이동수단 개발	
10	전기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	자동차	시그넷,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브라질 포드, 닛산, GM
			국토교통부, 환경부	통신교통부, 사회부, 도로공사
			양국 정부 간 합의 내용 마련을 통한 브라질 현지 내 전기 자동차 관련 인프라 개발 및 국내기업 투자 진출	
11	공작기계 산업협력포럼	기계장비	한국 공장기계/로봇 관련 기업	브라질 공작기계 업체 및 바이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공작기계 산업협회	경제부,
			양국 간 공작기계산업 현황 소개, 기계 수출입 상담, 상호 미래 협력분야 모색, 합작 및 기술협력 추진	
12	산업용 로봇 기술 제휴	기계장비	한국 로봇 관련 기업	산업용 로봇기업
			한국로봇산업협회, KAIST, UNIST	관련분야 대학연구소
			빠르게 성장하는 브라질 스타트업과의 합작투자 및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브라질 기업 및 대학 연구소와 제휴가능	
13	K-콘텐츠, K-뷰티 관련 설명회, 상담회	소비재 유통	한국 콘텐츠 및 화장품 관련 기업	방송국, 유통(물티라티나스) 기업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KOTRA,	경제부, CNI, APEX
			브라질 내 높아지는 K-콘텐츠, K-뷰티에 대한 관심으로 국내기업대상 현지 시장진출 설명회 및 국내외 수출상담회를 통해 국내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 지원	
14	한국 K-뷰티 소비재 현지진출	소비재 유통	한국 화장품 관련 기업	유통(물티라티나스) 기업
			산업부, KOTRA	경제부, CNI, APEX
			브라질 내 K뷰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합작하여 소비재 시장진출 및 제품 공급 협력 가능	
15	빅데이터를 통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비재 유통	CJ 오쇼핑 등 유통망 플랫폼	유통(물티라티나스)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OTRA	경제부, 과학부, IT 산업협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브라질 공공/민간분야 빅데이터 연구를 기술 및 인적자원 협력을 통해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현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과 협업 및 한국상품 진출 지원	

구분	협력방안	분야	관련 협력 기회	
			참여주체(한국)	참여주체(브라질)
			관련기관(한국)	관련기관(브라질)
			세부 추진 내용	
16	한국 음악, 드라마 방송 협력	문화콘텐츠	방송국 및 콘텐츠 관련 기업	콘텐츠 기업, 인플루언서 등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문화진흥원	문화부, 국가통신위원회
			현재 한류 콘텐츠가 방송이 아닌 유튜브 중심으로 퍼지고 있으며, 한류 콘텐츠의 고정편성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이므로 TV 및 라디오 방송협력 추진 가능	
17	국내 IT, 보안, 핀테크 스타트업 브라질 진출	ICT	국내 연관기업	Nubank 등 테크노라티나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 창업진흥원, KOTRA	과학기술부, IT 산업협회
			양국 정부 레벨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 협력 기반조성 후, 한국창진원-KOTRA-INADEM 3자 MOU를 통한 한국 유망 IT,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멕시코 인큐베이터 입주 및 공동지원.	
18	국내기업 전자기기 지원 CSR	전자기기	삼성전자, LG 전자	브라질 취약계층 학교 및 보육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OICA, KOTRA	
			시설이 미비한 학교 및 보육시설에 태블릿, PC 및 사무용품 공급, 브라질 소외 계층 및 취약지역 아동 복지 개선 지원	
19	스마트 센서 및 2차 전지 생산 협력	전자기기	오토닉스, 켐트로닉스, 포스코컴텍	부품 수요업체
			산업기술평가원, 전자부품연구원	경제부, 과학부
			한국 업체는 스마트 센서의 설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차전지에서도 가격, 기술 경쟁력이 있으므로 멕시코 수요 업체와 기술제휴 및 공동 R&D 추진 가능	
20	비만, 당뇨병 치료 원격 의료기술 제휴	보건의료	세브란스,유헬스케어사업단, LG전자	브라질 병원, Disrito Federal, Hill-Rom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부, 사회보장청
			브라질의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원격치료와 같은 장기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의료기술 제휴 및 병원 간 협력가능	
21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교역 확대	보건의료	관련 우리기업	Somar Grupo Farmaceutico
			보건복지부, 한국의료기기공업협회	보건부, COFEPRIS, 제약협회, UNIVERIX
			전체 의약품의 약 80%를 공공조달로 공급하는 브라질에 양국 간 G2G 레벨의 합의를 통해 전자상거래 기반 의료용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분야로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교역확대 가능	
22	의료기기 인허가 취득지원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ANVISA
			KOTRA, 중소기업	브라질 인증기관
			기존 브라질 인허가 취득 지원사업 개선 및 확장	
[B2G]				

구분	협력방안	분야	관련 협력 기회	
			참여주체(한국) / 관련기관(한국)	참여주체(브라질) / 관련기관(브라질)
			세부 추진 내용	
23	에너지, 인프라 협력 활성화	에너지 인프라	삼성물산, 한화큐셀, 두산중공업	Petrobras 등
			산업부, KOTRA, 한국전력공사, 수출입은행	에너지부
			양국 정부 레벨의 합의 및 MOU 후, 각 B2B, B2G별 PPP 개발연계. 양국 경제행사 기획 후 핵심 기업 참여 상담 지원	
24	에너지 분야 (석유/가스, 신재생에너지) 협력 (PPP연계)	에너지 인프라 KSP	기획재정부	Petrobras 등
			KOTRA, 수출입은행, KDI, 산업연	에너지부
			기존 KSP 에너지 분야 발전 프로젝트(2018 멕시코) 사례 벤치마킹	
[국민]				
25	국내기업의 브라질 학생 인턴 채용 및 장학금 지원 CSR	CSR	삼성전자, POSCO	브라질 고등학교, 대학교
			KOICA, KOTRA	교육부
			브라질 청년 대상 현지 국내 대기업 인턴 채용 및 직업 교육프로그램 확대 지원	
26	대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CSR 활동 홍보	CSR	삼성전자, LG, CJ 등	주정부
			KOTRA, KOICA	현지 수혜대상 기업, 개인, 지자체
			현지 정부, 유관기관 등 관계자, 현지진출기업, 현지기업, 수혜자 등이 참여하는 CSR 시상식 개최	
27	브라질 청년 대상 기술전수 및 직업 교육프로그램 지원	CSR	대한상의	CNI,
			현대위아, 기아자동차, CJ 등	현지 청년 구직자
			현지 기진출 대기업의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브라질 현지 청년 구직자 대상 무상교육 제공	
28	한류문화 전파 및 확대를 통한 문화교류	기타	세종학당, Korea Foundation	브라질대사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	문화부, 브라질 주정부
			브라질 내 한류 콘텐츠(춤, 노래,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문화, 음악 강연 및 체험 행사 주최 추진	

첨부 한-브라질 경제 및 무역투자 관련 주요 통계

브라질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 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 구	백만 명	198	202	203	205	206	208	210	211
명목 GDP	십억 달러	2,464	2,456	1,800	1,795	2,053	1,868	1,960	2,063
1인당 명목GDP	달러	12,427	12,176	8,846	8,752	9,928	8,968	9,344	9,765
실질성장률	%	1.9	0.5	-3.5	-3.3	1.1	1.1	0.8	2.5
실 업 률	%	4.6	6,5	9.0	12,0	12.7	12.3	11,8	11,5-12
소비자물가상승률	%	5.4	6.3	9	8.7	3.4	3.7	3.6	4.1
재정수지(GDP대비)	%	-3.4	-4.1	-3	-1.3	-0.4	-0.8	-1.7	-1.6
총수출	백만 달러	241,967	224,974	190,971	185,232	217,739	239,889	129,999	-
(對韓 수출)	〃	4,501	3,830	3,122	2,881	3,077	3,437	1,735	-
총수입	〃		229,127	171,458	137,585	150,749	181,230	101,524	-
(對韓 수입)	〃	9,097	8,525	5,420	5,451	5,239	5,380	2,860	-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19,438	-4,153	19,512	47,646	66,989	58,658	28,475	-
경 상 수 지	〃	-74,218	-104,181	-59,434	-23,530	-38,875	-30,075	-26,475	-31,025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95	2.35	3.34	3.48	3.20	3.85	3,80	3,81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84.2	-32.6	-76.8	-59.3	-166	-130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820	638	495	527	675	612	-	-

주 :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기입, 2019년 수출입(음영표기)는 6월까지 기준
자료 : 중앙은행, 국가지리통계원(IBGE), Global Trade Atlas, UNCTAD Stat.

브라질의 수출입 동향

연도별 브라질의 수입 동향('14년~19.3Q)

연도	수입금액 (USD 10억)	증감률
'14년	229.13	-4.4%
'15년	171.46	-25.2%
'16년	137.59	-19.8%
'17년	150.75	9.6%
'18년	181.23	20.2%
'19.3Q	133.59	-1.3%

연도별 브라질의 수출 동향('14년~'19.3Q)

연도	수출금액 (USD 10억)	증감률
'14년	224.97	-7.0%
'15년	190.97	-15.1%
'16년	185.23	-3.0%
'17년	217.74	17.5%
'18년	239.89	10.2%
'19.3Q	168.69	-4.8%

브라질의 10대 수입품목('18년, HS2)

품목명	수입금액 (USD 10억)	비중
(27) 광물연료에너지	26.23	14.5%
(85) 전기기기부품	21.76	12.0%
(84) 기계류부품	19.10	10.5%
(87) 일반차량	14.03	7.7%
(29) 유기화학품	10.59	5.8%
(89) 선박	9.87	5.4%
(31) 비료	8.62	4.8%
(39) 플라스틱 및 제품	7.34	4.0%
(30) 의료용품	7.20	4.0%
(90) 광학측정 정밀기기	5.50	3.0%
'18년 총 수입	181.23	100.0%

브라질의 10대 수출품목('18년, HS2)

품목명	수출금액 (USD 10억)	비중
(!2) 종자(대두)	33.52	14.0%
(27) 광물 연료에너지	29.67	12.4%
(26) 광, 슬랙, 회	23.66	9.9%
(84) 기계류부품	14.79	6.2%
(02) 육류	13.29	5.5%
(87) 일반차량	12.65	5.3%
(72) 철강	11.80	4.9%
(47) 목재펄프	8.36	3.5%
(23) 조제사료	7.17	3.0%
(17) 당류 설탕과자	6.67	2.8%
'18년 총 수출	239.89	100.0%

자료 : Global Trade Atlas

브라질의 10대 수입대상국('18년)

국가명	수입금액 (USD 10억)	비중
중국	34.73	19.2%
미국	28.97	16.0%
아르헨티나	11.05	6.1%
독일	10.56	5.8%
한국 (5위)	5.38	3.0%
멕시코	4.91	2.7%
이탈리아	4.51	2.5%
일본	4.36	2.4%
프랑스	3.94	2.2%
인도	3.66	2.0%
2018년 총수입	181.23	100.0%

브라질의 10대 수출대상국('18년)

국가명	수출금액 (USD 10억)	비중
중국	64.21	26.8%
미국	28.77	12.0%
아르헨티나	14.95	6.2%
네덜란드	13.07	5.4%
칠레	6.39	2.7%
독일	5.21	2.2%
스페인	5.15	2.1%
멕시코	4.51	1.9%
일본	4.33	1.8%
인도	3.91	1.6%
한국(13위)	3.44	1.4%
2018년 총수출	239.89	100.0%

자료 : Global Trade Atlas

* (韓) '10년 이후 브라질 수입시장에서 5위를 유지, 비중은 감소세(4.6→3%)
* (中) '10년 이후 중국이 주요 수입대상국으로 부상(중국은 '10년 이후 브라질 최대 수출국)
* (日) 일본은 브라질 수입시장 비중 점차 감소('00) 4위(5.3%) → ('18) 8위(2.4%)

<브라질 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 무역액 및 비중 변화(2000~2018)>

(단위 : 억 달러, %)

2000			
no.	국가	금액	비중
1	미국	129.1	23.1
2	아르헨티나	68.5	12.3
3	독일	44.5	8.0
4	일본	29.7	5.3
5	이탈리아	21.7	3.9
6	프랑스	18.6	3.3
7	알제리	15.1	2.7
8	한국	14.4	2.6
9	베네수엘라	13.3	2.4
10	영국	12.2	2.2
	합계	558.9	100

2005		
국가	금액	비중
미국	126.4	17.2
아르헨티나	62.4	8.5
독일	61.4	8.4
중국	53.4	7.3
일본	34.0	4.6
알제리	28.3	3.9
프랑스	26.8	3.6
나이지리아	26.4	3.6
한국	23.3	3.2
이탈리아	22.7	3.1
합계	734.7	100

2010		
국가	금액	비중
미국	270.4	14.9
중국	255.9	14.1
아르헨티나	144.3	7.9
독일	125.5	6.9
한국	84.3	4.6
일본	69.8	3.8
나이지리아	59.3	3.3
이탈리아	48.4	2.7
프랑스	48.0	2.6
인도	42.4	2.3
합계	1,817.7	100

2016			
no.	국가	금액	비중
1	미국	238.1	17.3
2	중국	233.6	17.0
3	독일	91.3	6.6
4	아르헨티나	90.8	6.6
5	한국	54.5	4.0
6	이탈리아	37.0	2.7
7	프랑스	36.9	2.7
8	일본	35.7	2.6
9	멕시코	35.3	2.6
10	칠레	28.9	2.1
	합계	1,375.9	100

2017		
국가	금액	비중
중국	273.2	18.1
미국	248.5	16.5
아르헨티나	94.4	6.3
독일	92.3	6.1
한국	52.4	3.5
멕시코	42.4	2.8
이탈리아	39.6	2.6
일본	37.6	2.5
프랑스	37.2	2.5
칠레	34.5	2.3
합계	1,507.5	100

2018		
국가	금액	비중
중국	347.3	19.2
미국	289.7	16.0
아르헨티나	110.5	6.1
독일	105.6	5.8
한국	53.8	3.0
멕시코	49.1	2.7
이탈리아	45.1	2.5
일본	43.6	2.4
프랑스	39.4	2.2
인도	36.6	2.0
합계	1,812.3	100

자료 : Global Trade Atlas(최종검색일 : 2019년)

韓→브라질 10대 수출품목('19.1~11)

품목명	수출금액 (USD 백만)	증감률
집적회로 반도체	880	-17.6%
자동차 부품	662	10.4%
평판디스플레이	237	70.8%
합성수지	227	8.5%
원동기	211	43.1%
승용차	158	9.2%
의약품	132	12.0%
무선통신기기 부품	86	-63.8%
건설중장비	78	10.3%
기타 석유화학 제품	70	-26.3%
총수출	4,447	-1.9%

韓←브라질 10대 수입품목('19.1~11)

품목명	수입금액 (USD 백만)	증감률
철광	937	7.3
박류	591	-6.3
사료	51	418.4
합금철	219	27.1
가금육류	217	14.5
강반 제품	207	44.9
펄프	176	-37.4
동광	142	-31.3
기초유분	109	-8.7
커피류	85	-5.9
총수입	3,871	7.8%

자료 : K-stat, MTI 4단위 기준

브라질의 투자 동향

對브라질 글로벌외국인 투자유입('14~'18)

연도	유입금액 (USD 백만)	증감률
'14년	87,714.0	16.6%
'15년	60,334.1	-31.2%
'16년	73,377.9	21.6%
'17년	70,257.8	-4.3%
'18년	88,318.9	25.7%

브라질의 글로벌외국인 투자유출('14~18)

품목명	수입금액 (USD 백만)	증감률
'14년	20,606.9	31.7%
'15년	3,134.0	-84.8%
'16년	14,693.5	368.8%
'17년	19,352.4	31.7%
'18년	14,060.4	-27.3%

자료 : UN ECLAC(2019년 6월 버전)

韓→브라질 해외투자금액('12~'19.9)

연도	유입금액 (USD 백만)	증감률
'12년	978.86	-16.3%
'13년	533.83	-45.5%
'14년	467.27	-12.5%
'15년	766.97	64.1%
'16년	741.20	-3.4%
'17년	458.95	-38.1%
'18년	374.38	-18.4%
'19.9월	160.95	-
누적합계	8,349.14	

韓→브라질 8대 투자 분야('91~'19.9)

품목명	수입금액 (USD 백만)	비중
제조업	4,230.42	50.7%
광업	2,129.22	25.5%
금융 및 보험업	630.30	7.5%
건설업	516.66	6.2%
도매 및 소매업	283.99	3.4%
운수 및 창고업	240.59	2.9%
부동산업	225.54	2.7%
농업임업어업	57.95	0.7%
누적합계	8,349.14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19년 12월)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백승원**	과장	상파울루무역관	55-11-3175-3030(ext 035)	andre@kotra.com.br
2	K패키지(본사 경제협력총괄팀)				

KOTRA자료 20-098

2020 국별 진출전략 브라질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44-6(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